

본 인쇄물은 2021 속초시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1 ANNUALLY 제37호

속초문화

Sokcho Culture Journal



©이설운

 속초문화원



하늘지붕

높은 산들을
사람들은 지붕이라 불렀다
알프스 히말라야 킬리만자로

빨갛게 언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린 사람들
저무는 저녁
우리의 눈비 굿기엔 너무 먼 지붕

높은 산들도 지붕이 필요하지 않을까
산의 지붕이 하늘이라면
내 지붕도 하늘이라 하고
시린 손 내리고
그저
오는 눈비 맞으며 살기로 한다

알프스 히말라야 킬리만자로
그리고 가난하나 우리들의 지붕
저 하늘 있으니



김향숙

등단 - 2003년 계간 시현실 겨울호
시집 『따뜻한 간격』
〈갈뫼〉동인, 〈고성문학〉동인
한국문인협회 회원,
현 속초문인협회 지부장



속초문화

2021 · 제37호

Sokcho-culture Journal





CONTENTS

002 권두시 하늘지붕 - 김향숙

006 발간사 - 김계남(속초문화원장)

008 지상갤러리

인연因緣 - 이덕우

공룡능선에서 - 이설윤

비오는 날 갯배 - 전순애

상도문 돌담길 - 이철구

설악대교가 보이는 청초호 - 손명자

특집1

014 속초 지명 역사성 및 정체성 연구 포럼 - 양용석

특집2

022 『梅谷日記』, 구한말부터 해방직후까지 속초유림의 기록 - 김만중

특집2

042 속초 청초호(青草湖)의 여러 가지 이름에 대하여 - 정상철

속초문화원 365

064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065 속초도시변천사 기록사업

066 문화시민학교 교육강좌 운영

068 향토사안내서 발간 사업

069 2021 속초문화원 공모사업

속초문화

혜 풍 김광희



속초문화

ANNUALLY 2021 제37호

www.sokcho-culture .com

- 070 속초도문농요 전승 및 공연 (속초도문농요 전수관 위탁관리)
- 071 2021 지방문화원 사랑방 지원 사업
- 072 2021 학교문화예술교육
- 074 제56회설악문화제 설악소사 (설악산신제)
- 075 『2021 어르신문화 프로그램』 어르신문화활동지원
- 076 2021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사업
- 078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활성화 지원사업
- 079 2021 속초문화원 발간책자

향토사연구위원 기고

- 082 2021년 속초문화재단 사업을 돌아보며 - 김은현
- 089 “설악문화재 시민 사랑·화합 속 새롭게 발전하길” - 장재환
- 099 팬데믹에서 지속가능한 삶 - 이수영
- 110 동해북부선 열차여, 이제 한없이 달려라 - 최영택

초대작품

- 119 흰구름 따라 - 탁명원

(우)24821 속초시 번영로 155
TEL.(033) 632-1231
FAX.(033) 632-1241
E-mail. sc2439@kccf.or.kr
펴낸곳 : 속초문화원
발행인 : 김 계 남
편집인 : 양 용 석
진 행 : 김 은 중, 전 육
발행일 : 2021. 12. 31.

<속초문화>는 속초시 보조금으로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 글과 사진은 속초문화원과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코로나 일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속초문화 제37호」 발간을 준비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다양한 사업들과 그 속에 묻어있는 흔적들을 시나브로 떠올려봅니다. 몇 해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시간들 속에서도 용기와 당당함으로 맞서며,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려 노력하고 인내해 온 모든 분들의 열정이 그 어느 시 간보다 소중함으로 빛나는 순간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속초문화원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헌신과 열정으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담아내고 펼쳐 내는데 주저함이 없는 한 해를 보내왔으며, 다채롭고 중요한 문화 사업들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향토사와 도시변천사를 중심으로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 계승을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며 지역 문화의 아름답고 소중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행복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문화학교 강좌들을 진행하며, 문화학교 강사분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수강생 분들의 배움을 위한 땀과 즐거움을 함께 하였습니다.

정부와 기관들이 주관한 다양한 문화 공모사업들에 지원 · 선정되어 속초 문화의 외연을 지역만이 아닌 강원도와 전국으로 확장시키며, 이를 통한 자긍심을 품으며 고취시켜 보았습니다.

「설악제례」를 통해 하늘에 우리 속초의 안녕과 번영, 속초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유구한 역사와 시간속에서도 스러짐없이 쇠퇴하지 않고 올곧게 이어 나갈 수 있었던 보살핌에 감사드렸습니다.

「속초 지명 역사성 및 정체성 포럼」에서 조선시대부터 유구히 내려온 속초지명의 유래와 정체성을 찾으며 선인들의 자취와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속초문화원의 역할과 역량은 속초 시민들과 함께 시작되고 전개되며, 각자 삶의 모습 하나 하나가 문화의 중요한 밀알이 된다는 믿음을 지니며 올 한 해 사업을 「속초문화 제37호」에 담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속초문화원 원장 김 계 남





인연 因緣



해정 이덕우

대한민국 서예대상전 (전국학원연합) 대상,
초대작가

대한민국 동양미술대전 우수상, 초대작가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강원서예대전 우수상, 초대작가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입선 4회

강원서예대전, 강원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

강원미술대전 서예부문 운영위원장 역임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속초미술협회 회장,

해정서예연구원장

속초시 중앙로74, 3층 해정서예연구원

M. 010-5376-1314 E. ldw1314@daum.net



공룡능선에서•40.0cmx 100cm •Water color on paper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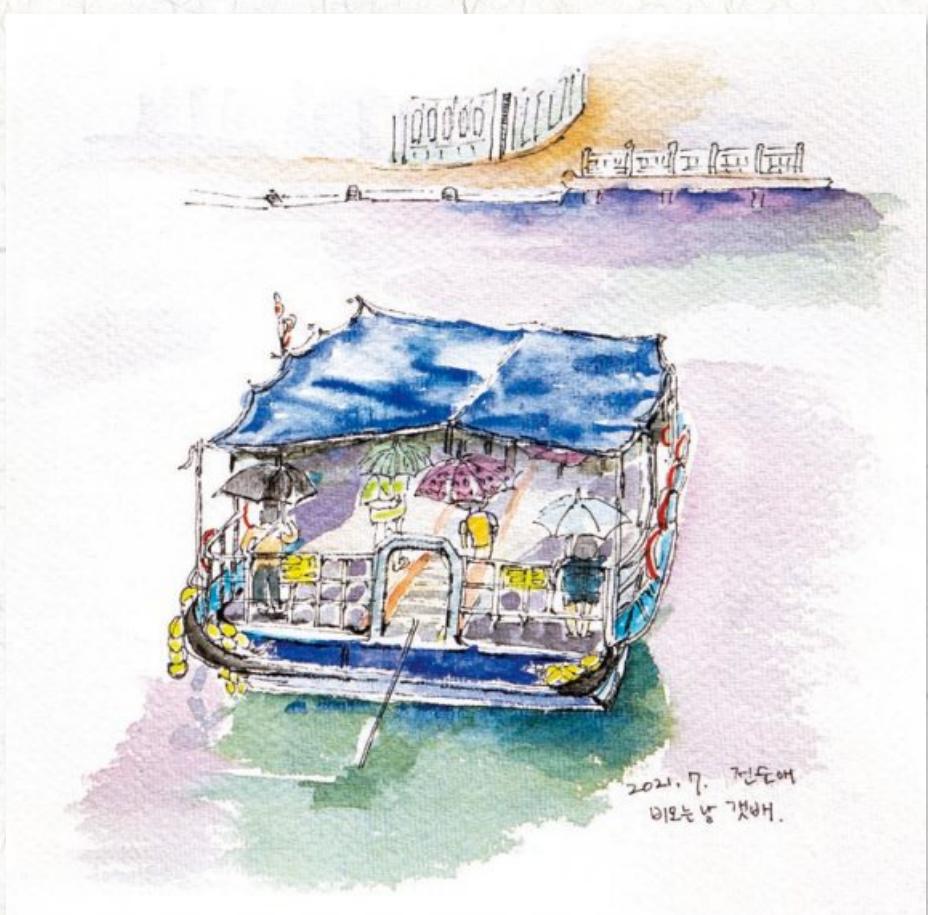
이 설 윤



개인전 2회, 동북아시아교류전
(한,중,일,러;일본도또리현) 2회
국제 단야 아트페어(김제).
Washington, D.C. 2013, 아메리카 국제 살롱전(L.A)등
200여회
강원미술대전, 신미술대전 초대작가
신미술대전 심사위원역임, 동아예술대전심사위원역임.

강릉수채화협회부회장역임
한국미술협회, 강릉수채화협회, 강원구상작가회 회원
현, 마츠 미술관관장

속초시 도문동 하도문길 14-1 마츠 미술관
M. 010-2879-5201



비오는 날 갓배 • Watercolor on paper

전순애

어반스케쳐스속초



상도문 돌담길 • Watercolor on paper

이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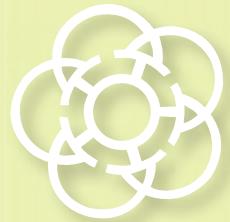
어반스케쳐스속초



설악대교가 보이는 청초호 •Watercolor on paper

손명자

어반스케쳐스속초



“특집1”

- 속초 지명 역사성 및 정체성 연구 포럼





2021년도 속초문화예술사업
2021 속초문화원 향토사 포럼
■ 일시 : 2021. 12. 03.(금) ■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별관 2층 소강당

속초 지명 역사성 및 정체성 연구 포럼

양용석 *

속초 지명에 대한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온 논제이다.

지금까지 속초문화원이 발간한 향토사 관련 책자와 자료들에 실린 속초 지명의 유래는 다양하다. 다양성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해왔다.

2021년 제1차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회의에서 주요 사업 주제로 논의된 이번 포럼은 연구위원 대부분이 사업 진행에 대한 긍정적 의견들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조선시대 문헌¹에도 등장하는 속초 지명이 그 유래를 바로잡지 못하고 여러 사람의 주장만 분분한 현 상황을 정리하여 보자는 향토사 연구위원들의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2021년 속초문화재단이 ‘2021년도 속초문화예술사업’공모에 속초문화원이 이를 주제로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요청이 받아들여져 이번 포럼이 진행되었다. ‘김만중·최재도·정상철’ 위원이 발제자로 나서고, ‘이수영·장재환·정종천’ 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주었다.

*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사 과정 졸업(북미 사회·문화 전공)

1.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속초(束草)’라는 이름이 문헌상 처음 보이는 곳이 ‘세종실록자리지’이다. 조선 전기, 강원도 동해안의 해군부대를 표기하며 ‘속초포(束草浦)’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김만중 연구위원



최재도 연구위원

문현조사, 선행연구, 사례연구, 그리고 본인들의 주장하는 근거를 뒷받침할만한 학술 조사와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학설과 이론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만중 연구위원²은 「속초(束草) 지명(地名) 정체성 연구 – 타 지역 사례와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하였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속초, 속새’지명이 전국적으로 분포하는데, 그 유래에 있어 가장 많은 것이 ‘속새’라는 풀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강화군, 제천군, 봉화군, 춘성군, 평창군, 홍천군, 인제군, 청송군, 홍천군, 경북 경산군’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와우형 풍수’와 관련된 지명 유래로 ‘아산군, 영일군, 예천군’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속새 풀이름’유래에 대한 문제는 ‘속초 지역에서 속새풀이 자생하는 곳이 알려진 데가 없다’는 점이다. 굳이 찾자면 속새가 자생하기에 적합한 토양인 설악 산 일대에서 찾아야 하는데, 속새 지명은 산쪽이 아니라 현재 속초시내인 바닷가쪽에 남아 있기에 속초와 속새풀과의 지명 유래 연관성을 떨어진다 볼 수 있다.

‘와우형 풍수’지명 유래의 경우, 다른 지역은 마을 안에 있는 특정한 지형을 가리키는 것인데, 속초의 경우에는 영랑호와 청초호 사이의 지형을 와우형으로 보고 있어 그 범위가 너무 넓으며, 소의 먹이가 되는 지형도 여럿 되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김 위원은 결론에서

지명 유래는 단순히 언어의 변화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언어 속에 숨어 있는 함축적 의미와 대상물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과학적 조사가 선행될 필요성도 있다. 속초 지명의 유

2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속초시청 학예연구사.

래가 되는 속새라는 풀의 분포도 조사라든가 지형의 정밀 조사를 병행하면 과학적 근거를 통한 인문학적 해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최재도 연구위원³은 「속초」지명의 음운론적 고찰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섰다.

최 위원은 발표에서 ‘이두식 표기’를 중심으로 속초 지명에 대한 유래와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다.

이제 ‘속초’라는 지명을 살펴보자. 조선지지자료나 한글지명총람(1967)에서 보듯 그 어원은 ‘속시’이다. 한글지명총람에서는 속새풀이 많아 ‘속시’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는 현재 확인할 수 없다. 분명한 건 ‘속시’라는 순우리말 지명으로 불렸고, 우리말 ‘시’는 대체로 ‘풀’을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草’라고 번역한다. ‘속시’에서 ‘속’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그냥 음만 빌려와 束이라 썼다. 관공서 문서에는 그리하여 ‘束草’라고 표기하게 된다. 여기에서 束草浦라는 지명이 나오게 되고 다시 束津이라는 지명도 만들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속초리가 커졌을 땐 항구 쪽과 분리하여 속초리와 속진리로 나뉘기도 한다. 즉 후대에 와서 속초와 속진이 다른 마을 이름으로 쓰인 것일 뿐 본디 그 기원은 ‘속시’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시’를 근사(近似) 발음으로 표기(音假)하면, 塞 沙 砂 舍 寫 등 다양하게 쓸 수 있다. 따라서 ‘속시’를 束塞 束沙 束砂 束舍 束寫 등으로도 표기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모래를 묶는다’느니, ‘집을 묶는다’느니 하는 식으로 엉뚱하게 해석하면 곤란하다. 일부 문헌에서 束沙, 束沙湖, 束沙浦 등의 지명이나 오기도 하는데. 이 역시 ‘속시’의 다른 표기일 뿐이다. 음독(音讀)이냐 훈독(訓讀)이냐, 음가(音假)냐 훈가(訓假)냐의 차이일 뿐, 어떤 표기도 우리말 ‘속시’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다만, 앞에서 말했듯 ‘속시’가 꼭 ‘속새풀’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해 봄야 한다. 그럼 1(조선지지자료)에서 속초를 ‘속시’라고 표기할 때, 옹치를 ‘독시’라고 표기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지명 ‘외옹치(外甕峙)’는 “독(단지) 모양의 언덕”이라는 뜻으로, 우리말 지명 ‘밧(밖)독재’를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다.⁴ ‘속시’가 풀이름이라면 ‘독시’도 역시 풀이름이어야 할 터인데, 그런 풀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더욱이 ‘독시’가 풀이름이라면 옹치(甕峙)니 옹진(甕津)이니 하는 한자어 지명을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 ‘독시’의 독을 옹(甕)으로 표기한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일부 소장 향토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속초’가 ‘속새풀’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은 꽤나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중략>

검토해 보았듯, 束草는 ‘속시’라는 우리말을 이두식으로 표기하면서 생겨난 지명이다. ‘속시’가 과연 속새풀을 의미하는지는 좀 더 연구해봐야 하겠지만, 남의 나라 글자를 빌려 표기하는 과정에서 束草가 된 것임은 확실하다.

3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속초문화재단 이사. 극작가.

4 정상철의 ‘속초의 역사와 이해’(2018)에 따르면 ‘도문면 외옹치’ 말고도 ‘소천면 내옹치’도 있었다 한다.



束草라는 지명이 생기고 ‘풀을 묶는다’는 의미가 생성되자, 거꾸로 이에 맞춰 갖가지 유래들을 만들어 붙여 왔다. 풍수지리를 들이밀기도 하고, 이웃 도시에서 엿들은 설화를 슬그머니 옮겨놓기도 한다. 본디 구전설화라는 것이 그러해서, 전해지는 과정에서 덧붙여지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한다. 속초 지명과 관련된 설화들은 모두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다.

비록 사실(fact)이 아닐지라도 우리 지역에서 풍성한 설화들이 생산되고 있음은 굳이 말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최근 의욕 있는 향토사학자들이 더 이상 ‘풀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각성 아래, 속초 지명의 근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캐보려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주장하건대, 음운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속식’라는 순우리말에서 束草라는 한자 지명이 발원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속식’과 ‘독식’가 정녕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원뜻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 밖에도 최 위원은 ‘솔산’, ‘와우형’, ‘울산바위 설’에 대해 학문적 연구를 뒷받침으로 하여 기존 설과 주장의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정상철 연구위원⁵은 「속초(束草) 지명유래에 대한 소고(小考)」를 주제로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섰다.

5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속초시립박물관 관리담당.

정 위원은 속초의 기존 지명 유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시작으로 「속초지명 유래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주장 일부를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束

1. 묶다, 동여매다(두르거나 감거나 하여 묶다)
2. 결박하다(結縛—)
3. (집아)매다, (띠를)매다
4. 합치다(合—)

- 출처 : 네이버 한자사전

‘속초(束草)’, ‘속사(束沙)’, ‘속진(束津)’ 이란 단어를 유심히 보면 뭔가 공통점 (Commonality)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건 바로 ‘속(束)’이란 단어이다.

‘속(束)’자는 한자사전에서 보듯이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를 두르거나 감거나 하여 묶다’는 의미이다. ‘초(草)’, ‘사(沙)’, ‘진(津)’ 마지막 단어는 다르지만, ‘속(束)’자는 공통적으로 들어간다.

기존의 4가지 속초지명 유래에서도 세 번째 ‘속새풀’ 기원설을 제외하면 첫 번째 ‘솔섬’관련 유래에서 소나무와 풀을 묶어서 세워 놓은 것 같은 형태라고 하여 ‘묶다(束)’라는 표현이 존재하며, 두 번째 ‘와우형’ 관련 유래에서는 풀을 묶어서 소가 먹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지었다 하여 ‘묶다(束)’라는 표현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울산바위’ 관련 전설에서도 풀로 새끼를 꼬아 울산바위를 동여 맨 후 불에 태워 재로 꼰 새끼처럼 만들었다는 이야기에서도 ‘묶다(束)’라는 표현이 존재한다. 위 세 가지 지명 유래에 공통적으로 ‘묶어서’, ‘동여 맨’ 처럼 ‘속(束)’자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신라 경덕왕 때에 2음절의 한자로 바뀐 지명이 오늘날까지 계속 쓰이고 있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의 지명은 고려 왕조가 들어서면서 변경되었는데, 고려 시대에 고쳐진 지명은 거의 대부분이 조선 시대에 까지 계속 쓰여졌다고 한다. 다만 행정 체계에 따라 지명에 위계를 붙여 주(州)를 천(川)·성(城)·산(山)·곡(谷)·양(陽)·원(原) 등으로 바뀌기도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수원(水原)은 상고시대에는 매홀(買忽)이었는데 ‘매’는 ‘물’을 뜻하고 ‘홀’은 ‘성’이므로 고대 후기에 수성(水城)으로 바꾸었다가, 고려 시대에는 수주(水州)로, 조선 시대 이후에는 수원(水原)으로 바뀌었으나 근원인 ‘물·수’자는 변하지 않았다. 왕조가 바뀜에 따라 민심의 쇄신을 위하여 지명을 변경하려던 의도와는 달리 지명은 토지 고착성이 강하여 쉽게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⁶

그렇다면 공통된 단어인 ‘속’을 이 지역 지명의 근원으로 가정한다면 ‘속초’지명의 어원이 ‘초(草)’가 아닌 ‘속(束)’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겠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본 소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가정(假定)이 필요하다. 그것은 묶거나 동여맨다는 것은 묶거나 동여매는 과정을 통해 ‘두 개의 물건을 하나로 잊는다’는 즉, ‘속(束)’자에는 ‘잇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 개인의 의견이지만, ‘속초(束草)’란 이름이 현재 ‘풀을 묶다(술목관계)’로 해석되지만 ‘풀로 묶다(술보관계)’로 해석이 가능하며, 속초의 또 다른 이름인 ‘속사(束沙)’ 지명이 ‘모래’와 관련됨을 가정

6 한민족대백과사전-지명(地名)



정상철 연구위원

할 때 ‘풀을(로) 묶다’라는 의미보다는 ‘모래를(로) 묶다’로 풀이되고, 속초리지역은 ‘모래로 묶인 지역’, 또는 ‘모래로 둘러싸인 지역’이라는 결론을 돌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영금정에 있던 ‘솔섬’과 본토사이를 잇는 가느다란 모래톱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지금의 나아가 영랑동~동명동~청호동~조양동으로 모래가 띠로 이어지는 형태를 연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중략〉

즉, 속초해안지역은 전체가 모래 띠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동해안 전체가 모래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1)속초지형의 자연적 형성과정에서처럼 사주와 석호가 발달한 지역이 주로 많은 모래와 접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속초해안지역 전체가 모래 띠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로 속초지역이 모래로 묶어진 지역 즉, ‘속사(束沙)’라는 지명의 유일한 근거라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속초지역 전체에 대해 이야기하였지만, 속초라는 지명은 현재의 속초지역(과거에는 도문면과 소천면지역)을 아우르는 대표명사이지만 과거에는 ‘속초리’라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속초’라는 지명의 어원도 ‘속초리’에 한정해서 찾아야 한다.

정 위원은 ‘속초 지명의 유래’를 기존 4개설 이외에 ‘모래로 이어진 설(設)’을 추가하며, 결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정리하자면, ‘속초(束草)’, ‘속사(束沙)’, ‘속진(束津)’이란 단어를 유심히 보면 뭔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건 바로 ‘속(束)’이란 단어이다. ‘속(束)’자는 한자사전에서 보듯이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를 두르거나 감거나하여 묶다’는 의미이다. ‘초(草)’, ‘사(沙)’, ‘진(津)’ 마지막 단어는 다르지만, ‘속’자는 공통적으로 들어간다. 즉, ‘속초’라는 이름이 ‘모래로 이어진 마을’ 또는 ‘모래로 둘러싸인

2021 속초 지명 역사성 및 정체성 연구

■ 일시 : 2021. 12. 03.(금)

■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별관 2층 소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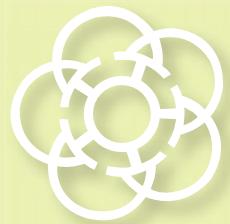
좌로부터 김만중, 최재도, 양용석, 정상철, 장재환, 이수영 연구위원

마을(모래안 마을)’이라는 의미인 ‘속사(束沙)’로 사용되어 오다가 ‘속사 → 속시 → 속새로 변환된 후 ’새‘를 초(草)로 인식하여 속초(束草, 새가 한자화)’가 되었으며, 나라에서 기록하는 공식적인 이름이 되었지만, 과거 속초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부르던 ‘속사’라는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중략>

본 글의 목적 또한 속초지명의 유래 중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지 본 글의 내용이 100%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필자는 그 옛날 속초라는 지명을 작명했던 선인들의 의지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며, 다만 다양한 문헌들과 자료를 통해 연구하고 익히는, 아직도 배움에 부족함이 많은 후학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속초 지명 유래의 통일성은 이루지 못하였지만 학술적 · 과학적인 근거들을 통해 기존 속초 지명 정체성의 모호함을 선명함의 틀 속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향후, 이번 포럼의 과정과 결과물들이 속초 지명의 정체성, 더 나아가 속초 역사와 문화를 포함한 속초향토사 연구를 발전시켜나가는데 있어 유의미한 자료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속초문화**



“특집2,”

- 梅谷日記, 구한말부터 해방직후까지
속초유림의 기록



『梅谷日記』, 구한말부터 해방직후까지 속초유림의 기록

김만중*

I. 머리말

우리나라는 ‘기록의 나라’로 일컬어질 정도로 『朝鮮王朝實錄』이나 『承政院日記』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일기도 많이 남아 있다. 미시사적 기록으로서 일기는 중앙 차원의 기록이 채 담지 못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 특히 조선시대의 『亂中日記』·『眉巖日記』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각 지역에서 한말부터 일제강점기의 일기들이 다수 발굴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한 연구 결과물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이런 연구 성과들이 쌓이면 근대사 해석이 더욱 풍부해지고,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 속초시 도문동 上道門里¹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해주오씨 집안의 유

* 속초시청 학예연구사.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이 글은 강원사학 제36집(강원사학회, 2021. 5.)에 실린 글을 轉載한 것이다.

학자였던 오윤환은 직접 쓴 글을 비롯하여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를 오윤환의 손자며느리와 증손자가 속초시에 기증하였다.² 속초시는 기증 의미를 부각시키고 지역학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梅谷日記』를 비롯한 기증 자료의 국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³ 속초시립박물관에 전시 중인 『梅谷日記』는 吳潤煥이 1891년 2월부터 1946년 7월 사망하기 바로 전날까지 56년간 매일 쓴 일기로서, 19세기 말부터 8·15 해방 후까지의 생활상을 담고 있는 기록 유산이다. 모두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3·1운동과 관련된 연구와 국립문화재연구

1 상도문리는 『매곡일기』를 쓸 동안 襄陽郡 道門面→道川面(1914년)→束草面(1937년)→束草邑(1942년)→束草面(인공 치하) 관할로 행정 구역(행정구역 통폐합, 읍 승격 등)의 변화를 겪었다. 1963년 속초시로 승격되면서 上道門里, 中道門里, 下道門里를 합하여 도문동으로 하였다.

2 『강원도민일보』 2003. 5. 2. <선비 매곡선생 선양 본격화>; 설악신문 2003. 5. 5. <속초시 매곡 선양사업 추진>; 속초시·강릉대학교, 속초시 매곡 오윤환선생 선양사업 기본계획, 2003.

3 속초시, 『國譯 梅谷遺稿』, 2006; 속초시·속초문화원, 『國譯 梅谷日記』, 2007; 속초시박물관, 행정건축일기 번역 및 학술연구, 2009; 속초시박물관, 학무정 시집 번역 및 학술연구, 2011.

소에서 일괄 조사한 강원 지역 소재 일기자료로 소개되기도 하였다.⁴

『매곡일기』에는 지역에 대한 기록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곡일기』에 나오는 기록들을 지역에서 일부 활용하여 책자 제작이나 사업에 활용한 적은 있지만 종합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지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후, 인물, 지명, 사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일기의 미시적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매곡일기』를 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 해방 직후까지는 왕의 나라인 조선에서 황제의 나라인 대한제국으로 이행, 타국의 강압적 지배, 해방, 외국군의 주둔 및 통치가 있었던 엄청난 격변의 시기였다. 『매곡일기』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강원도 영동 북부 지역의 한 유림의 생생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매곡일기』를 중심으로 경험하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았던 오윤환의 생애와 주변 인물과 친교 관계를 통해 사상적 근원을 살펴볼 것이다. 『매곡일기』의 형태와 편제를 살피고, 농업, 장시, 민족운동, 해방후의 정세 등 『매곡일기』에 드러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매곡일기』의 사료적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오윤환의 생애와 친교

1. 생애

吳潤煥은 양양군 도문면 상도문리에서 海州吳氏 집안의 吳尙根과 金海金氏 사이에서 1872년 11월 16일에 태어나 1946년 7월 12일에

⁴ 정병욱, 『1919년 삼일운동과 일기 자료』, 『한국사학보』73, 2018a, 208쪽;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시대 개인일기(충청·강원·전라·경남)』, 2018, 13쪽, 282쪽.

사망하였다.⁵ 호는 梅谷, 자는 聖斌으로 효행을 실천하고, 한학을 공부한 유림으로 후학을 가르치는데 힘쓴 교육자였다. 3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吳尙根이 죽자 할아버지 吳信泳은 그를 20여 년 동안 극진히 키웠다. 1934년에는 상도문리 쌍천가에 鶴舞亭을 짓고 많은 선비들과 함께 시를 읊고 글을 지었으며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육도장으로 삼기도 하였다. 그의 부인은 감찰을 지낸 金海 金朝植의 딸이고, 자녀는 3남 2녀이다.⁶

오윤환은 해주오씨 賛成公派로서 고려시대 檢校軍器監事를 지낸 시조 吳仁裕의 26세손이다. 찬성공파는 오인유의 8세손으로 左贊成을 역임한 吳潘을 중시조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 양주의 培養里에서 대대로 世傳해왔는데, 양양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오반의 8세손인 吳應吉 때부터이다. 1560년에 양주 배양리에서 태어나 할아버지 吳叔津에게 학문을 배운 뒤에 蔭補로 司僕寺正에 제수된 오응길은 1592년 병에 걸리자 치료의 목적으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양양군 현북면 綿玉山으로 요양을 왔다. 그러나 불과 2년 뒤인 1594년에 30대 중반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⁷ 현북면 광정리에서 태어난 오응길의 6세손 吳甲熙는 아버지 吳楷泰가 죽자 그 제를 다 마치고 도문으로 이주하여 정착한다.⁸ 이렇게 해주오씨는 오응길이 면옥산에 요양으로 내려온 이후 현북면과 도문면을 중심으로 하여 뿌리를 내리게 되며, 향반으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오응길의 후손은 양양군 현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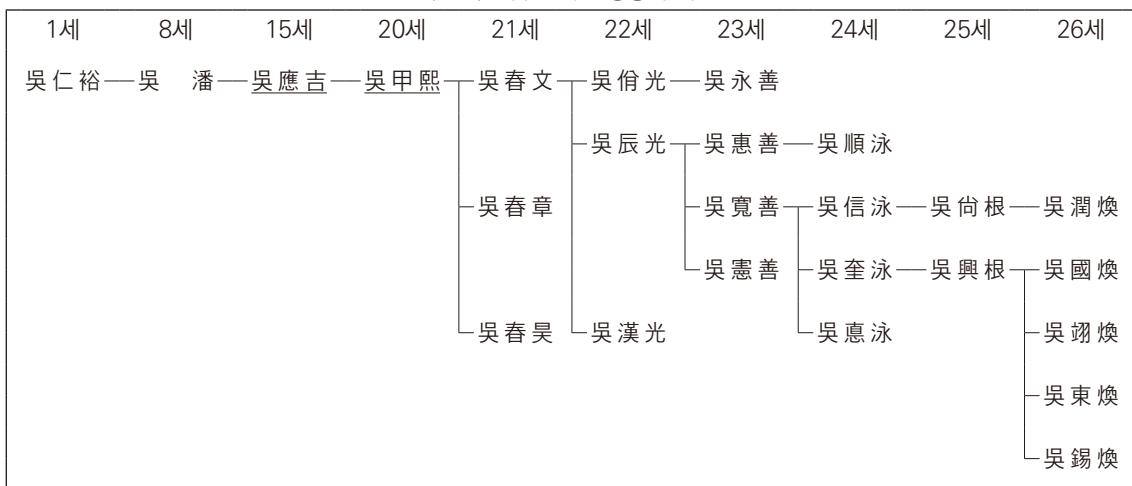
⁵ 일기의 날짜는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모두 음력이다. 신문 기사 등의 날짜는 양력이다. 오윤환의 생애는 『梅谷遺稿』, <梅谷吳處士行狀> 참조.

⁶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속초시사(하)』, 2006, 1845쪽; 『梅谷遺稿』, <梅谷吳處士行狀>

⁷ 『梅谷遺稿』, <司僕寺正吳公墓碣銘>.

⁸ 『梅谷遺稿』, <先六代祖考知中樞公行狀>.

〈도 1〉 해주오씨 찬성공파 파보^{*}



*속초시·강릉대학교,『속초시 매곡 오윤환선생 선양사업 기본계획』, 2003, 17쪽.

과 속초시 도문동(상도문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영동북부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⁹

2. 학문관과 친교 인물

오윤환은 李珥, 金長生, 宋時烈, 金昌翕 등과 李恒老, 柳重教, 柳麟錫, 李根元 등의 글을 주적으로 삼았다. 이이의 글을 비롯하여 다른 성현의 글을 베껴 쓰고 숙독함으로써 학문을 키워나갔다. 오윤환은 裴縉煥, 閔丙承, 李奎顯, 金聖基, 沈東鎮, 李鍾英 등과 편지를 주고받거나 직접 만나 강론하고 학식을 나누었다.¹⁰ 손자 吳秀鉉은 오윤환이 유인석과 이근원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우고, 이규현, 배진환, 김성기 등과 道義로써 교제하였다고 하였다.¹¹

배진환(1871~1939)은 자는 台甫, 호는 松窩로 류중교, 이근원, 류인석의 문인이다.¹² 류

인석과 元容八의 의병에 참여하였으며, 류인석과 이근원이 죽은 뒤에 횡성군 둔내면 우옹리에 자리를 잡고 右用精舍를 열어 후진 양성에 매진하였다. 오윤환은 1926년 여행 때 배진환의 집에서 유숙을 하였으며, 1939년에 별세한 것을 기록하였다.¹³ 오수현과 魚敬學은 오윤환에게 글을 배운 뒤에 함께 배진환에게 나아가 학문을 넓혔다.¹⁴

민병승(1865~1947)은 자는 公祐, 호는 丹雲으로 여주 이포 강변에서 은거하면서 유림의 신망을 받았던 이근원의 문인이다.¹⁵ 오윤환은 가끔 민병승을 찾아보려고 하였으며,¹⁶ 글을 보내 안부를 묻기도 하였다.¹⁷ 민병승은 오윤환의 고조부 오진광의 碑碣文을 지어 주었다.¹⁸

9 『峴山誌』, 성씨조, <오: 해주>; 조선총독부, 『朝鮮の姓』, 1934, 369쪽, <양양군 도천면 상도문리, 현북면 상광정리>; 『江原道誌』, 성씨조, <해주오씨: 찬성 오반의 후손들이 상도문리에 거주한다>

10 『梅谷遺稿』, <梅谷吳處士行狀>.
11 『梅谷遺稿』, <跋文>.
12 양평문화원, 『藁溪淵源錄 - 華西李恒老先生淵源錄 -』, 1999, 159쪽; 횡성군, 『횡성군지(증보판)』下, 2001, 1752~1753쪽; 張三

鉉編, 『華西淵源錄 <上>·華西淵源人名錄』, 2019, 327쪽.

13 『梅谷遺稿』, 1926. 9. 17; 1939. 6. 17.

14 『梅谷遺稿』, <序文>.

15 여주군사편찬위원회, 『여주군사 - 제2권 성씨와 인물』, 2005, 442쪽; 양평문화원, 위의 책, 122쪽; 張三鉉編, 위의 책, 273쪽.

16 『梅谷遺稿』, 1940. 8. 11.

17 『梅谷遺稿』, <上閔台丹雲 / 全九月 日>, <上閔台丹雲 / 全四月 日>

18 『梅谷遺稿』, 1941. 4. 15; 梅谷遺稿, <學生吳公墓碣銘>

이규현(1874~1951)은 자는 宇文, 호는 廣菴으로 류종교와 류인석, 이근원의 문인이다.¹⁹

충무공 李舜臣의 후손으로 을미의병과 원용팔·鄭雲慶·李康季의 의병에 참여하여 항일구국 투쟁에 나섰으며,²⁰ 의병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就正錄』을 지었다. 의병이 해체된 후 여주 외사리에 은거하면서 강학소를 설치하여 후학 양성과 학문에 전념하였다.²¹ 오윤환은 이규현의 서재인 東小齋를 시로 지어 보내면서 안부를 물었다.²² 이규현은 오윤환에게 글을 보내왔으며²³, 오윤환의 11대조 오옹길의 墓碣銘²⁴과 조부 오신영의 墓碣銘²⁵을 지어 주었다.

심동진은 강원도 고성군 강정에 살던 유학자로, 이근원의 문인이다.²⁶ 1918년경 도천면에서 서당 교사를 한 인연으로 오윤환과 친분을 갖게 된다. 일제에 희생당한 崔益鉉과 류인석을 뜻을 이어받아 국토를 잃어버린 한국의 부흥을 성취하자는 취지의弔詞를 이근원의 장례식에서 낭독한 것을 알게 된 양양경찰서는 그를 취조하여 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징역 4개월을 선고 처분한다.²⁷ 오랫동

19 여주군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50쪽; 양평문화원, 앞의 책, 252쪽; 張三鉉 編, 앞의 책, 469쪽.

20 김기승·천경석, 「이순신 후손의 항일독립운동」, 『이순신연구논총』15, 2011, 343~344쪽.

21 여주군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453쪽; 양평문화원, 위의 책, 305쪽; 張三鉉 編, 위의 책, 570쪽.

22 『梅谷遺稿』, <次東小齋韵 李廣庵齋号 全月 日>, <與李廣庵奎顯/全十一月 日>.

23 『梅谷遺稿』, <梨湖途中 / 李廣庵>

24 『梅谷遺稿』, <司僕寺正吳公墓碣銘>.

25 『梅谷遺稿』, <副護軍吳公墓碣銘>.

26 양평문화원, 위의 책, 187쪽; 『설악신문』2019. 8. 19. <우리가 몰랐던 속초양양의 독립운동가 7인의 행적(엄경선)>; 張三鉉 編, 위의 책, 374쪽; 고성군지편찬위원회, 『高城郡誌(中)』, 2020, 661쪽.

2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국외 항일운동 자료: 일본 외무성기록, '不穩言動者處分ノ件(高第18174號, 秘受12515號)'

안 오윤환과 교류했으며, 1921년에 사망하였다.²⁸

김성기(1889~1944)는 호는 毅軒으로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우암리에서 태어났다. 효심이 뛰어났으며, 후학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였고 배일사상을 실천으로 옮겼다.²⁹ 오윤환과 친교가 있던 그는 상도문을 찾아오기도 했지만, 오윤환이 그를 만나기 위하여 손양면 우암리로 행차하거나 현북면 광정리를 방문하기 위해 오가는 길에 만나기도 하였다. 학무정이 건립되자 방문하여 글도 남겼다.³⁰ 1944년에 작고하자 오윤환은 祭文을 지어 그를 애도하였다.³¹

이종영은 호는 東隱으로 양양군 손양면 태생이다. 같은 집안 사람인 이종영에게 이근원이 편지를 보내기도 해 그의 문인으로 보고 있다.³² 오윤환은 학포리에 거주하던 이종영을 수시로 찾아뵙거나 맞이하면서 교류를 하였으며, 그의 생일에 글을 지어 보내기도 하였다.³³ 이종영은 학무정이 건립되자 찾아와 글을 남겼고³⁴, 이런 인연으로 오윤환의 문인³⁵으로 보기도 하며, 1944년에 작고했다.³⁶

심상황은 심동진과 같은 강정에 살던 유학자

28 『梅谷日記』1914. 10. 29; 11. 1; 1918. 2. 13; 4. 23; 5. 27; 9. 11; 10. 18; 1921. 6. 22.

29 양양군, 『양주지』, 1990, 901쪽; 張三鉉 編, 위의 책, 154쪽.

30 『梅谷遺稿』, <鶴舞亭 / 毅軒 金聖基>; “金聖基 … 甲戌七月十六日”『登亭日錄』

31 『梅谷日記』1944. 1. 1; 『梅谷遺稿』, <祭金毅軒文 / 甲申正月日>

32 朴敏泳, 「錦溪 李根元의生涯와 學問」, 『大東文化研究』 第35輯, 1999, 96~98쪽; 『錦溪集』卷十一 書, <與宗人致德 鍾英>(친환경농업박물관, 『國譯 錦溪集』(上), 2009, 399쪽); 양평문화원, 위의 책, 28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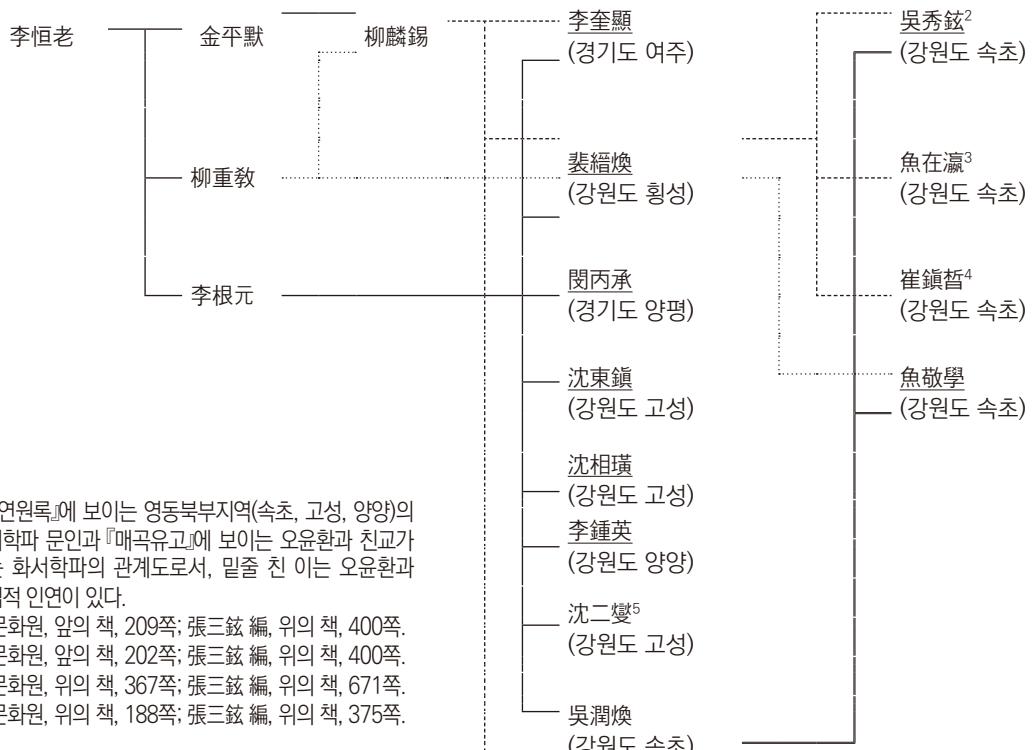
33 『梅谷遺稿』, <奉和 李東隱 瞥宴韵 昨日十一月十三日追吟>

34 『梅谷遺稿』, <鶴舞亭 / 東隱 李鍾英>; “李鍾英 … 乙亥三月初六日”『登亭日錄』

35 張三鉉 編, 앞의 책, 531쪽.

36 『梅谷日記』1944. 1. 25.

〈도 2〉 오윤환과 화서학파 관계도¹



1 『벽계연원록』에 보이는 영동북부지역(속초, 고성, 양양)의 화서학파 문인과 『매곡유고』에 보이는 오윤환과 친교가 있는 화서학파의 관계도로서, 밑줄 친 이는 오윤환과 직접적 인연이 있다.

2 양평문화원, 앞의 책, 209쪽; 張三鉉 編, 위의 책, 400쪽.

3 양평문화원, 앞의 책, 202쪽; 張三鉉 編, 위의 책, 400쪽.

4 양평문화원, 위의 책, 367쪽; 張三鉉 編, 위의 책, 671쪽.

5 양평문화원, 위의 책, 188쪽; 張三鉉 編, 위의 책, 375쪽.

이다. 오윤환은 심상황에게 글을 보냈으며,³⁷ 심상황은 학무정이 건립되자 방문하여 글도 남겼다.³⁸ 1940년에 오윤환은 김성기, 고광두, 노병열과 함께 금강산 여행을 떠난다.³⁹ 금강산을 두루 여행한 뒤에 심상황을 방문하여 회포를 풀었고, 觀海齋에 들러 금계 선생 영정을 奉審하였다.⁴⁰ 이에 심상황을 이근원의 문인⁴¹ 또는 오윤환의 문인⁴²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오윤환이 교류했던 이들은 대체적으

로 화서학파와 연관이 있다. 매곡유고의 서문을 쓴 어경학⁴³이나 손자 오수현⁴⁴도 화서학파의 일원이었다. 화서문인들의 항일독립투쟁을 기념하기 위하여 양평 용문사 입구에 세운 ‘화서연원 독립운동기념비’에 오윤환은 류인석, 이규현, 이근원, 배진환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華西淵源錄』에 오윤환은 이근원과 류인석의 문인으로 나오며, 화서학파 내에서도 일가를 이루고 있다.⁴⁵ 오윤환을 류인석의 문인⁴⁶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류인석의 교유관계를 밝힌 몇몇 글

37 『梅谷遺稿』, <復庵 沈相璜>

38 『梅谷遺稿』, <鶴舞亭 / 復庵 沈相璜>; “沈相璜 … 甲戌八月二十九日”『登亭日錄』

39 『梅谷日記』1940. 4. 24. ~ 5. 2.

40 『梅谷日記』1940. 5. 2. 『梅谷遺稿』, <遊金剛實記>

41 양평문화원, 위의 책, 187쪽; 張三鉉 編, 위의 책, 374쪽.

42 張三鉉 編, 위의 책, 374쪽.

43 양평문화원, 위의 책, 202쪽; 張三鉉 編, 위의 책, 398쪽.

44 양평문화원, 위의 책, 209쪽; 張三鉉 編, 위의 책, 327쪽.

45 張三鉉 編, 앞의 책, 418쪽; 張三鉉 編, 『華西淵源錄 <下> - 華西淵源師弟錄』 2019, 218~285쪽. ‘화서학파 11,026명 중 오윤환의 문인은 1,950명으로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46 張三鉉 編, 『華西淵源錄 <下> - 華西淵源師弟錄』 2019, 218쪽.

에서는 오윤환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⁴⁷ 화서학파 내에서 오윤환의 위치와 사승관계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오윤환과 교류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도 2>와 같이 이근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⁴⁸ 오윤환도 이근원과 관계가 깊음을 기록하고 있다.⁴⁹

III. 매곡일기의 형태와 편제

1. 형태

『매곡일기』는 오윤환이 20세가 되던 1891년 2월 1일부터 작고하기 전날인 1946년 7월 11일까지 쓴 일기이다. 현재 속초시립박물관에서 소장·전시하고 있는 『매곡일기』는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 앞에 별도로 명칭이 붙어 있지 않고, 3권으로 나누어 엮어놓기만 했다. 권3에 ‘續修日記’라고 제목을 표지에 적어 놓은 것이 특징이다. 각 권의 크기는 권1은 가로 19cm, 세로 19.7cm, 권2는 가로 17.7cm, 세로 17.5cm, 권3은 가로 17cm, 세로 23.4cm이다.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韓紙에 한 쪽당 15일씩 기록하여 엮어놓았다. 권1은 1891년(辛卯) 2월부터 1909년(己酉) 12월까지, 권2는 1910년(庚戌) 정월부터 1941년(辛巳) 12월까지, 권3은 1942년(壬午) 정월부터 1946년(丙戌) 7월 11일까지 기록하였다.⁵⁰

일기는 날짜와 그날의 날씨를 충실히 기록하였다. 가장 많이 서술된 내용은 농사와 사람들

47 毅菴學會, 『毅菴柳麟錫資料集 | -간찰문을 중심으로』, 2004;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滿雲 柳然益先生 寄贈 春川 高興柳氏 家傳 資料』, 2013; 김인선, 「毅菴 柳麟錫 간찰을 통해 본 교유관계와 의병활동」, 『의암학연구』13, 2015, 65~69쪽.

48 朴敏泳, 앞의 책, 96~98쪽.

49 『梅谷日記』 1918. 2. 7.(이근원 사망일), 1918. 3. 21.(이근원 장사일). 사망일과 장사일을 따로 기록할 정도로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듯하다.

50 속초시·속초문화원, 『國譯 梅谷日記』, 2007, 9쪽.



속초시립박물관에 전시 중인 『매곡일기』

의 왕래이다. 논을 일구고 씨뿌리기, 김매기, 벼베기, 타작하기 등 매년 농사의 전반적인 내용과 학문을 배우러 오는 학생이나 문인, 인근 주민들이 왕래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외에도 주로 농한기인 겨울철에 製紙와 관련된 활동과 간단한 집안 행사, 서울이나 금강산 등 외지를 유람한 내용, 각종 계 모임에 참석한 일, 일제강점기에 당국이 수시로 감시하러 찾아오는 일, 인근 지역의 소식 등이 기록되어 있다.⁵¹

2. 편제

일기의 제일 첫 부분인 1891년 2월 1일 앞에 범례를 두고 일기 전반의 서술 체계를 적고 있다. 그러나 일기를 쓰게 된 목적이나 동기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서술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

무릇 이 일기는 먼저 … 음양·풍우의 변화를 서술하였고, 뒤에 빈료, 산행, 음식 등을 서술하였으니, 뒤에 보는 자는 …⁵²

51 속초시·속초문화원, 위의 책, 9~12쪽.

52 “辛卯二月大乙未朔 …凡此日記其先敍△△陰陽風雨之變△後錄賓僚山行飲食△△後觀者△…△”여기서 △는 원래 글자가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글자가 결락되어 알아보기 힘들

『매곡일기』의 체계성은 범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글자의 결락으로 전체 문장을 완벽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현재 남아 있는 기록으로 보아 먼저 날짜를 적고 그 다음에 기후와 하루의 일상 등을 적고 있다. 나중에 누군가가 일기를 보게 될 경우를 감안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매곡일기』는 686개월, 2만일이 넘는 매우 긴 시간의 기록으로 그 기간 중 평달은 666달, 윤달은 20달이었다. 乙未改革으로 양력 사용이 공식화되었으나, 일기는 마지막 날까지 음력을 기준으로 쓰고 있다.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양력을 쓰기도 하였으나, 일본의 영향으로 시행된 양력 사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신념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그 날 있었던 일에 대한 소회를 쓰고 있는데 대부분 취침 전에 쓴 것으로 파악된다. 일기는 매일 그날 쓰되 전날 쓰지 못한 것을 어쩌다 다음날 적기도 하였다.⁵³ 가끔 그 날의 일기를 다 쓰고 주로 밤에 생긴 일을 마지막에 적은 경우가 있는데, 일기를 쓰고 난 뒤에 기후 변화가 발생하면 적었다. 자기 직전 또는 다음날 적었다기보다 다음날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록한 것으로 봐야 한다.⁵⁴

일기에는 특기할 만한 것도 있다. 어느 날은 날씨만 있고 내용이 없는 날이 있다.⁵⁵ 어느 날

53 『梅谷日記』1894. 12. 21.

54 일기의 내용을 다 적고 난 뒤에 저녁이나 밤에 눈·비가 내리는 등의 기상변화가 생기면 내용 뒤에 이를 추가하고 있다. 『梅谷日記』1895. 1. 23; 10. 11; 1896. 10. 25; 1897. 4. 13; 5. 11; 1898. 11. 16; 1900. 3. 7; 6. 16; 6. 26; 1901. 1. 2; 2. 14; 7. 2; 11. 6; 1902. 2. 15; 5. 3; 1904. 11. 3; 11. 23; 1923. 2. 8; 1945. 4. 21; 5. 26; 6. 2.

55 『梅谷日記』1891. 11. 17; 1893. 10. 2; 1894. 7. 13; 7. 29; 1896. 4. 14; 9. 25; 1897. 8. 4; 1898. 5. 18; 6. 2; 6. 7; 6. 11; 6. 12; 7. 11; 7. 18; 11. 5; 11. 6; 11. 7; 11. 8; 1899. 3. 11; 5. 1; 5. 10; 5. 22; 7. 22; 7. 23; 7. 24; 08. 26; 10. 25; 1901. 3. 24; 7. 4; 8. 4; 8. 5; 9. 2; 1903. 4. 30; 1904. 10. 29; 1909. 5. 12; 12. 11; 1911. 1. 1.

은 내용은 있는데 날씨를 기록하지 않은 날이 있었으며,⁵⁶ 萬歲曆과 掛曆의 차이로 인하여 그냥 삽입한 날도 있다.⁵⁷ 일기를 쓰다보면 일부 내용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날짜만 있고 날씨와 내용이 없는 날이 있거나⁵⁸ 날짜와 날씨, 내용이 모두 결락된 경우도 있다.⁵⁹ 어느 날은 ‘특별히 기록할 것이 없었다.’라고 쓰기도 하였다.⁶⁰ 날짜와 더불어 24節氣를 기록하고 그 밖에 寒食, 三伏, 臘日 등도 적고 있다.

3. 일기의 사실성

일기에 보이는 날짜는 대체로 정확하다. 날씨와 천체변화를 보도한 신문기사나 3·1 운동 등 다른 기록에 언급되고 있는 양력 날짜와 음력으로 기록한 일기의 기록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서 당대 기록으로서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오윤환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날씨를 자세히 기록하였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 까지 강원도 중부 동해안 지방에서 관측한 月蝕, 日蝕, 흰무지개, 黃沙, 폭우, 홍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문 기사 등과 비교하여도 날짜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당시 지방의 세세한 자연현상 변화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대체로 보름 무렵에 관측되는 월식은 해(日)-지구(地球)-달(月)의 순서로 일직선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데 일기에는 11회가 기록되어 있

56 『梅谷日記』1899. 3. 15; 3. 16; 1903. 3. 23; 1910. 2. 1; 10. 19; 1917. 3. 19; 1922. 12. 15; 1927. 1. 15.

57 『梅谷日記』1942. 9. 30; 10. 30; 11. 30; 12. 30.

58 1909년 12월 11일부터 12월 29일까지는 날짜만 기록하였다.

59 『梅谷日記』1899. 11. 22; 1904. 2. 22.

60 『梅谷日記』1925. 5. 20.

다.⁶¹ 1924년 1월의 월식은 남아메리카를 제외한 지구 전 지역에서 모두 볼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확인되었다.⁶² 1924년 7월의 월식은 새벽에 관측하였으며,⁶³ 1937년 10월의 월식은 오후에 관측하였다.⁶⁴

보통 초하루경에 관측되는 일식은 해-달-지구의 순서로 일직선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데 일기에는 6회가 기록되어 있다.⁶⁵ 1894년 3월에 관측한 일식은 黃弦도 관측하였다.⁶⁶ 1937년 11월에 발생한 일식은 이미 보름 전에 예고되었다.⁶⁷

중국에서 발원하는 황사는 고대로부터 각종 기록에 보이고 있어 그 연원이 오래되었는데, 오윤환이 살던 시대에도 수차례나 발생하였다.⁶⁸ 1921년 3월과 1928년 3월에 발생한 황사는 봉고 고비사막과 중국에서 발원하고 있어 현재 한국에 발생하고 있는 황사와 동일한 경로와 형태임을 보여준다.⁶⁹ 특히 1934년 2월에 발생한 황사는 예보에 바람과 눈이 있을 것이라 하였는데, ‘土雪’이라 하여 눈에 황사가 섞여 내렸다.⁷⁰

東高西低의 지형적 특징으로 동해안 영동 지

61 『梅谷日記』1906. 1. 16; 1909. 4. 15; 10. 13; 1913. 2. 15; 1914. 7. 15; 1918. 5. 16; 1924. 1. 16; 7. 15; 1925. 1. 17; 1935. 12. 13; 1937. 10. 16.

62 『梅谷日記』1924. 1. 16; 『동아일보』1924. 2. 20.

63 『梅谷日記』1924. 7. 15; 『동아일보』1924. 8. 15.

64 『梅谷日記』1937. 10. 16; 『동아일보』1937. 11. 18.

65 『梅谷日記』1894. 3. 1; 1903.03. 1; 1909. 5. 1; 1918. 5. 1; 1924. 8. 1; 1937. 11. 1.

66 『梅谷日記』1894. 3. 1; 黃弦, 『梅泉野錄』2, 갑오년(1894), <3월 초하루, 일식이 있었다>

67 『梅谷日記』1937. 11. 1; 『동아일보』1937. 11. 18.

68 『梅谷日記』1899. 2. 18; 1916. 3. 18; 3. 19; 1921. 3. 7; 1928. 3. 27; 1934. 2. 7; 1945. 3. 8.

69 『梅谷日記』1921. 3. 7; 동아일보 1921. 4. 15; 『梅谷日記』1928. 3. 27; 동아일보 1928. 5. 17.

70 『매곡일기』1934. 2. 7; 『동아일보』1934. 3. 21.

방은 봄바람이 세다. 편현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강풍은 일명 ‘襄江之風’ 또는 ‘襄杆之風’으로 불릴 정도로 지역에서는 위력이 대단하다.⁷¹ 동해안 영동지방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대형 산불은 바로 이 무렵에 발생하는 것이다. 오윤환이 살던 때에도 산불이 종종 일어났다.⁷² 1936년 윤3월⁷³과 1941년 2월의 산불은 고찰인 설악산 神興寺와 内院庵 주변에서 발생하여 문화재 보존에 위협을 주기도 하였다.

일기 기록의 정확함은 다른 기록과의 대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필자의 선대는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에서 세대를 이어왔다. 오윤환은 필자의 고조부(金泰鉉)와 증조부(金永奎)와 교류하였고, 필자의 큰할아버지(金晋洙)는 오윤환에게 학문을 배웠다. 오윤환은 필자의 고조모가 별세한 것⁷⁴과 고조부 탈상에 조문한 것⁷⁵을 기록하였다. 오윤환이 필자 집안과 가까운 인연을 보인 것은 필자의 증조부와 인척 관계였기 때문이다. 필자의 증조모⁷⁶, 즉 김영규의 부인은 오윤환의 작은할아버지 吳奎泳의 외손녀로 오윤

71 “天吼山 … 世傳襄杆之間多大風以此云” 李植, 『水城志』, <산천조>; “晚秋로부터 初春까지 風이 強烈하니 嶺東俗言에 소위 襄江之風이 이것이이다.” 『개벽』42, 1923. 12. 1, <嶺西八郡과 嶺東四郡>; “嶺東 嶺西를 물론하고 冬季의 풍설은 朝鮮의 명물이다. 특히 襄杆之風과 通高之雪이라 하면 學語小兒라도 다 허를 설설 내두른다” 『개벽』42, 1923. 12. 1. <朝鮮의 處女地인 關東地域>

72 『梅谷日記』1933. 4. 13; 1935. 12. 23; 1936. 윤3. 20; 1939. 11. 20; 1941. 2. 23; 1945. 3. 10.

73 『梅谷日記』1936. 윤3. 20; 매일신보 1936. 5. 17

74 『光山金氏忠穆公派家譜』, <金泰鉉: … 配淑夫人密陽朴氏 … 甲寅(1854)九月十一日生 癸亥(1923)二月十四日卒>; 『梅谷日記』1923. 2. 14.

75 『光山金氏忠穆公派家譜』, <金泰鉉: 乙卯(1855)十一月二十七日生 ~ 丁丑(1937)五月十六日卒>; 『梅谷日記』1939. 5. 16.

76 『光山金氏忠穆公派家譜』, <金永奎: … 配淑夫人全州李氏父時達 … 外祖海州吳奎泳 庚辰(1880)三月十一日生 戊子(1948)正月二十六日卒 …>; “… 有男一女三 … 女長適全州李時達 … 時達生一女適光山金永禹 … 永禹生一男曰晉洙 …” 『梅谷遺稿』, <先從王考通政公行狀>

환의 6촌이었다.

IV. 『매곡일기』의 내용

1. 농사

『매곡일기』의 주된 내용은 농업으로 1년 동안의 논농사, 밭농사 등과 製紙에 대한 것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매곡일기』의 전반부에는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소략해지고 있다. 오윤환의 중요하게 여겼던 농사는 벼농사와 보리농사였으며, 밭농사로 조와 콩을 주로 재배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많은 잡곡과 다양한 채소를 가꾸며, 농한기인 겨울철에는 종이 만드는 일을 주관하여 마을의 부업으로 행하였다.

오윤환이 살던 시기에 상도문리의 벼농사는清明을 전후한 시기에 논갈이와 물대기로 시작했다. 이르게는 春分 전에 물을 대거나, 늦게는 夏至가 지난 후에 늦벼를 키우는 논에 물을 댄 경우도 있었다.⁷⁷ 모를 키우기 위한 볍씨를 뿌리는 것은 논가는 때와 비슷한清明을 전후한 시기에 하였다.

모내기는 小滿을 지나서 芒種을 전후한 시기에 주로 하였다. 조금 이른 경우에는 소만 이전에 하기도 하였다. 늦모의 경우에는 하지를 지나 하였다. 1904년에는 논갈이를 한 후에 비가 오지 않은 날이 많았던 까닭인지 당일 논에 물을 대고 하기도 하였다. 1943년에는 하지보다 한 달이나 늦은 大暑가 지난 뒤에 남아 있던 땅에 모내기를 하였다.⁷⁸

77 『梅谷日記』1894. 2. 12.(춘분 2. 14.); 1904. 5. 21.(하지 5. 8.)

78 『梅谷日記』1893. 5. 17.(하지 5. 8.); 1899. 4. 11.(소만 4. 12.); 5. 18.(하지 5. 15.); 1904. 5. 21.(하지 5. 8.); 1906. 5. 3.(하지 5. 1.); 1909. 5. 11.(하지 5. 5.); 1926. 4. 23.(소만 4. 26.); 1926. 5. 26.(하지 5. 13.); 1943. 6. 25.(하지 5. 20., 대서 6. 23.); 1944. 5. 6.(하지 5. 1.)

모가 자라기 시작하면 1년 농사의 중요한 과정인 김매기가 시작된다. 농사를 짓는데 있어 잡풀을 제거하는 것은 농약과 같은 효율적인 제초방법이 흔치 않았던 前近代 시기에는 사람의 손이 제법 많이 가는 일이었다.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힘에 부치는 일을 하다 보니 농사소리 중에서도 김매는 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하였다.⁷⁹ 김매기는 통상 3차례 정도 이루어졌다. 하지 무렵부터 시작하여 處暑 무렵까지 무더운 때에 하였기에 더욱 힘이 드는 일이었다. 일찌감치 망종이 지났을 때부터 시작하기도 하였으며, 늦게는 秋分 무렵까지 하기도 하였다.⁸⁰

벼베기는 어느 정도 더위가 물러간 뒤에 벼가 익기 시작하면 시작하였다. 白露가 지나서 시작하여 霜降이 지나서까지 벼베기를 하였다.⁸¹ 이렇게 벼베기를 마치면 베어놓은 벼를 거두고 일정 장소에 모여 타작을 하였다. 타작은 여러 사람이 모여 도리깨를 이용한 전통적 방법으로 하였지만, 기계를 이용하기도 하였다.⁸²

보리농사는 벼베기가 마무리되는 상강을 전후한 시기부터 시작한다. 먼저 보리밭을 갈아 땅을 정리한 다음에 씨를 뿌렸다. 봄보리의 파종은 춘분 무렵에 하였다. 제초작업은 穀雨 무렵에 하였으며, 보리베기와 타작은 하지와 小暑 무렵에 하였다. 보리농사도 수확이 마무리되면 다시 밭갈이를 준비하는 1년 동안의 일정이다.

약간의 위도 차는 있지만 강원도 동해안 지

79 장정룡, 「속초시 도문메나리 농요의 전승과 기총」, 『속초민속 발굴과 도문메나리농요 전승』, 속초시·속초문화원, 2006, 45~46쪽.

80 『梅谷日記』1925. 윤4. 29.(망종 윤4. 15.); 8. 5.(추분 8. 6.); 1935. 5. 19.(망종 5. 7.)

81 『梅谷日記』1895. 9. 8.(상강 9. 7.); 1905. 10. 3.(상강 9. 26.); 1907. 9. 21.(상강 9. 18.); 1936. 9. 13.(상강 9. 9.); 1940. 9. 28.(상강 9. 23.); 1941. 9. 8.(상강 9. 5.); 1945. 9. 23.(상강 9. 19.)

82 『梅谷日記』1937. 9. 16; 1938. 9. 26.

〈표 1〉 상도문리의 농사 달력

24절기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곡우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02.05.	02.18.	03.05.	03.20.	04.04.	04.20.	05.05.	05.21.	06.05.	06.21.	07.07.	07.22.	08.07.	08.23.	09.07.	09.23.	10.08.	10.23.	11.07.	11.22.	12.07.	12.21.	01.05.	01.20.			
벼농사				(논갈이·풀대기) (씨부리기)									(모내기)									(김매기)				
보리농사																							(벼베기·타작)		(밭갈이·파종)	
																								(봄보리·파종)	(김매기)	(보리베기·타작)

역의 농가에서 행해지는 연중행사는 대체로 비슷하였을 것이다. 속초와 그리 멀지 않은 강릉 지역의 1930년대 생활 상태를 조사한 자료가 비교할 만하다.⁸³ 강릉의 논농사는 양력 3월에 논갈이를 시작으로 6월에 모내기를 하여 10월·11월에 수확을 한다. 수확을 준비하면서 보리 파종을 한다. 『매곡일기』와 비교하여 거의 비슷한 시기에 농사일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사를 짓는 이에게 중요한 것은 降雨 여부이다. 오윤환도 이를 중하게 여겨 가뭄⁸⁴과 폭우·홍수⁸⁵ 기록을 남겼다. 쌀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移秧法의 경우 가뭄은 큰 타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물을 가두는 시설인 보의 설치가 늘어났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자연의 힘에 기대는 수밖에 없어 祈雨祭를 지냈다. 오윤환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青岱山과 土王城, 食堂岩 등에 올라 기우제를 지냈다.⁸⁶

83 善生永助, 『生活狀態調查(其三) 江陵郡』, 朝鮮總督府, 1931(임호민 역, 『국역 강릉생활상태조사』, 강릉문화원, 2002, 50~52쪽)

84 『梅谷日記』 1908. 5. 8; 1909. 4. 8; 1915. 5. 18; 1917. 5. 4; 5. 6; 5. 8; 1918. 5. 6; 5. 8; 1923. 5. 12; 1924. 8. 11; 1926. 5. 14; 1927. 5. 21; 1928. 3. 2; 3. 22; 5. 7; 1939. 6. 29.(영남지방); 1940. 5. 12; 1942. 4. 30; 6. 5; 1943. 5. 29; 1944. 6. 20; 1945. 3. 13.

85 『梅谷日記』 1892. 5. 18; 1908. 7. 18; 1912. 7. 8; 1914. 7. 9; 1915. 9. 1; 1920. 7. 13; 7. 21; 1925. 7. 18; 1931. 5. 28; 7. 10; 1933. 7. 14; 1936. 7. 12; 1938. 7. 8; 1940. 6. 6; 1945. 6. 23.

86 『梅谷日記』 1898. 4. 7; 1904. 5. 9; 1915. 5. 20; 1917. 4. 22; 4. 27; 1927. 5. 16; 1942. 4. 24; 1943. 4. 23; 『梅谷遺稿』, <祈雨祭文>

농사짓는 이에게 홍수도 그리 좋은 기후는 아니다. 1908년, 1936년, 1938년에 발생한 홍수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였다. 1936년 홍수에 7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1938년 홍수는 1936년 홍수에 벼금간다고 하였다. 오윤환은 하늘이 구멍이 났을 정도로 비가 그치지 않고 내리자 이 땅이 촉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였다.⁸⁷ 홍수 정도는 아니지만 며칠 동안 내린 비에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1912년 7월에 며칠 동안 내린 비로 인하여 현재 속초시 대포동 지역인 蠶津에서는 집이 파손되고 사람이 다쳤다.

2. 양양 지방 장시

오윤환은 생활의 유지와 물화의 교류 등을 위해서 주변 장시를 이용하였다. 매달 29일 무렵에 상도문리에서 가까운 汐澗場을 이용하였다.⁸⁸ 읍내의 소식을 듣고 친구도 만나기 위하여 襄陽場도 이용하였으며,⁸⁹ 1930년대에 들어서는 새롭게 성장하던 도천면의 東草場을 이용한다.⁹⁰

87 오윤환은 두보의 시 “重簡王明府”를 차용하여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을 ‘蜀雨’에 비유하였다. 『梅谷日記』 1892. 5. 18; 1908. 6. 2.

88 『梅谷日記』 1892. 9. 29; 1896. 7. 29; 1899. 4. 29; 1900. 4. 29; 윤8. 29; 1902. 5. 29; 1903. 윤5. 29; 7. 29; 1904. 5. 29.

89 『梅谷日記』 1894. 9. 14.

90 『梅谷日記』 1936. 윤3. 3; 1937. 7. 28; 8. 3.

〈표 2〉 양양 군내 장시

장이름	소재지	장서는 날	대동지지	증보문한비고	3차지형도*	강원도지**	비고
교암시	토성면	1·6일			○	○	[고성] 간성시 2일, 7일
속초시	속초면	3·8일				○	
물치장	강현면	4·9일	○	○			
물치시	강현면	5·10일			○	○	
부동장	양양면	3·8일		○			
양양시	양양면	4·9일			○	○	
서림시	서면	3·8일				○	
상운장	손양면	4·9일	○	○			
기사문시	현북면	2·7일			○	○	
동산장	현남면	5·10일	○	○			
인구시	현남면	5·10일			○	○	[강릉] 주문진시 1일, 6일

* 조선총독부, 『五萬分之一 地形圖』, 1918. 〈市場〉

** 『江原道誌』卷之五, 1940. 〈市場〉(강원도, 『국역 강원도지』, 2005, 928쪽)

조선후기 양양 지역에는 3~4개의 장이 있었다.⁹¹ 일제강점 초인 1918년 무렵에 양양군에서 장이 서던 곳은 4곳이었으나,⁹² 일제강점 말인 1940년 무렵에는 7곳으로 늘어난다.⁹³ 장시가 4곳일 때 開市日은 4·9일이 1곳, 5·10일이 2곳, 10일이 1곳으로 불규칙하였다.⁹⁴ 일제강점기에 주변 지역과 활발한 교류를 하면서 시장망이 확장되고 필요에 따라 개시일의 변천과 장시의 이동이 생겼다. 물치장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 2·7일, 3·8일, 4·9일, 5·10일 등 수시로 변하였으며⁹⁵ 주로 4·9일에 섰으나 일제강점기에 5·10일로 정착한다. 강원도에서 비교적 큰 장시에 속하였던 양양 읍

91 류종기, 「조선후기 영동지방 장시에 관한 연구」, 『영동문화』18, 2001, 80쪽~86쪽.

92 임시토지조사국 편찬제판, 『朝鮮二十萬分一圖 -杆城·江陵 -』, 1918; 류승렬, 「일제강점 초기 강원도의 시장 분포와 거래 양상」, 『강원문화연구』18, 1999, 84쪽; 류종기, 위의 논문, 86쪽.

93 『江原道誌』卷之五, 1940. 〈市場〉

94 류승렬, 위의 논문, 87쪽.

95 『梅谷日記』1894. 9. 23; 1899. 12. 27; 1901. 10. 19; 1902. 7. 5; 1903. 9.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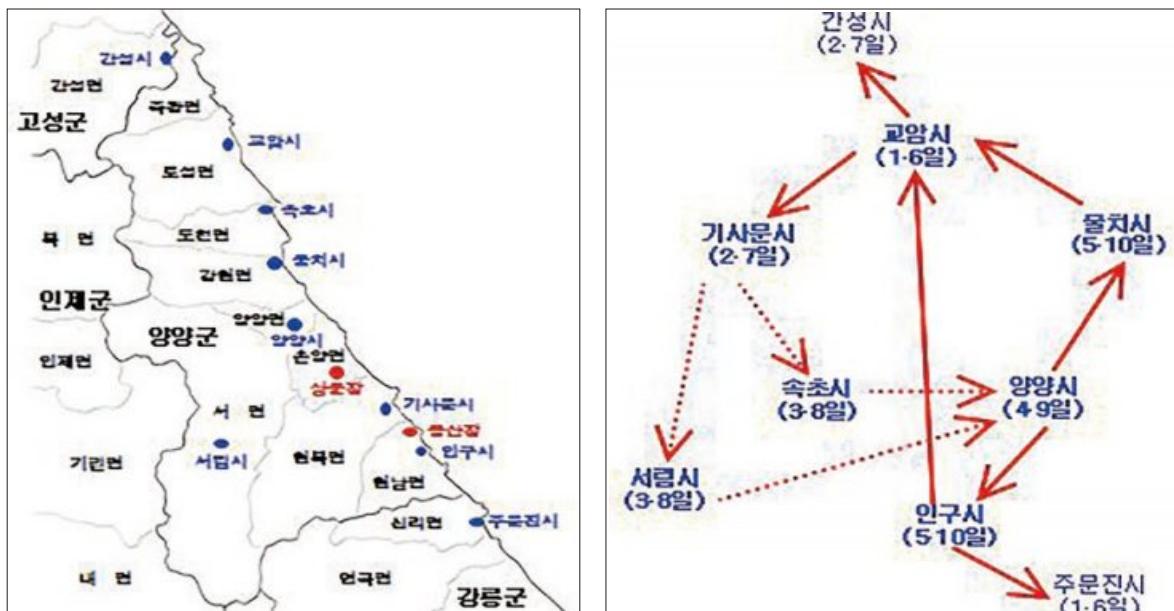
내장의 경우 4·9일에서 3·8일로 변동하였다가, 다시 4·9일로 정착되는 과정을 거친다.⁹⁶ 손양면 祥雲場은 현북면의 其士門場으로 옮기면서, 개시일도 2·7일로 바뀌었다. 현남면 銅山場은 仁邱場으로 옮겼지만, 개시일은 5·10일을 유지하였다. 1919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橋岩場이 양양군에 편입하고, 1930년대에 속초장⁹⁷이 생겼다.

이렇게 양양 지역은 1940년대에 〈도 3〉과 같이 5일장 체계가 갖춰지게 되었고, 1·6일에 개시하는 교암시는 다음 날에 양양군의 기사문시와 고성의 간성시, 5·10일에 개시하는 인구시는 다음 날에 강릉의 주문진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시장에서 물자의 교류는 같은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인들의 활동범위와 연계하여 주변 지역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96 류종기, 위의 논문, 86~88쪽.

97 『부산일보』, 1930. 7. 26. <市場の新設や 築港測量で>; 『매일신보』1930. 7. 31. <襄陽束草里에 新市場認可, 市日은 三八日로 決定>

〈도 3〉 일제강점기 양양군내 시장 위치 및 5일장



3. 민족운동

가. 을미의병

東學農民戰爭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생겨난 중요한 의제는 明成王后 시해 사건과 斷髮令이다. 오윤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여러 사람에게서 단발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으며, 단발령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자신의 심정을 일기에 잘 드러냈다.⁹⁸

동학농민전쟁의 와중에 일본의 강요로 甲午改革이 실시된다. 清日戰爭에서 승리한 일본은 친일내각을 만들었으나, 삼국간섭으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친러 내각이 들어서자 이를 주도한 명성왕후를 시해한다. 이후 집권한 친일 내각은 내정개혁을 목표로 양력 및 단발령 시행이 담겨 있는 乙未改革을 실시한다. 이를

계기로 일어난 을미의병 중 강원도 영동 지방에서는 閔龍鎬를 대장으로 봉기하였다. 민용호는 여주에 머물고 있다가 명성왕후 시해 사건을 전해 듣고서 강릉에서 일어난 의병 부대의 창의대장에 올랐다.⁹⁹ 민용호의 강릉의병은 강릉 입성 이후부터 약 한 달 동안 영동의 여러 군을 통솔하는 關東九郡都倡義所를 설치하여 주변의 의병 세력을 통합하였다. 또 의병부대 전투력의 핵심이었던 산포수를 비롯한 의병을 모집하는 등 전력 강화에 진력을 다하였는데, 이는 당시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던 元山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⁰⁰ 이 무렵에 춘천의병의 별동부대인 成益鉉 부대가 강릉의병과 합세하고자 동해안의 통천을 지나 고성방면으로 내려오고, 강릉의

98 『梅谷日記』 1896. 4. 23; 1899. 1. 29; 1900. 1. 26; 5. 29; 1904. 7. 21; 1905. 1. 3; 1. 27; 12. 23; 1907. 6. 1; 1912. 7. 18; 1933. 12. 19; 1935. 9. 4.

99 박민영, 「민용호의 강릉의병 항전에 대한 연구」, 『한국민족 운동사연구』5, 1991; 이청희, 「복제 민용호의 의병활동」, 『영동문화』6, 1997; 이상찬, 「1896년 의병장 민용호의 실체」, 『규장각』20, 1997; 김민석, 「관동의병장 민용호의 활동과 관동창의록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원대학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2020.

100 강원도사편찬위원회, 강원도사 -제20권 의병·독립운동-, 2017, 125쪽.

병은 성익현 의병부대와 연합하기 위해 북상하여 연곡·양양 방면으로 진출하였다.¹⁰¹

을미의병이 속초에서 전쟁을 벌이던 때에 오윤환은 농사를 짓거나 서재에 나가 자신의 일을 보면서 전투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오윤환은 단발령으로 민심이 소란해지자 민용호가 강릉을 근거로 하여 의병 3,000명으로 일으키고, 성익현이 의병 1,800명을 일으켰다고 하였다. 속초 지역에서는 1896년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투를 치렀다.¹⁰² 춘천병영에서 넘어온 군대가 서울의 군대와 합세하여 의병과 속초에서 큰 전투를 벌인 것이다. 서울의 군대는 속초와 양양 경계인 雙川 남쪽인 降仙峙에 매복하고, 의병은 쌍천 북쪽 靑岱山 줄기에 주둔하였다. 쌍방간의 전투는 치열하여 포성으로 하늘이 진동하고 화약 연기가 땅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자신이 살던 도문동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것을 지켜본 오윤환은 민용호와 성익현이 병사를 일으켜 관군에 대항한 것을 의병이라 칭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¹⁰³

나. 정미의병

1905년 乙巳勒約과 1907년 丁未條約이 체결된 이후 다시 의병이 크게 일어난다. 1907년 이후에는 전국의 유생과 농민이 봉기하고 강제 해산당한 군인들이 합류하면서 무장 항일 전쟁을 벌이게 된다.

양양 지역에서는 1907년 8월부터 11월까지 禹秀吉, 閔肯鎬, 朴長浩, 朱光錫 등이 이끄는 수백 명의 의병이 일본군과 교전을 벌였다.¹⁰⁴

101 강원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17, 131쪽.

102 『梅谷日記』1896. 4. 23; 4. 25; 4. 26; 4. 27; 4. 28.

103 속초시·속초문화원, 『『梅谷日記』解説』, 『국역 매곡일기』, 2007, 11쪽.

104 강원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17, 206~207쪽; 양양문화

속초지역에서 의병이 1907년 7월 14일(양력 8월 22일)부터 10월 29일(양력 12월 4일)에 걸쳐 전투하였다.¹⁰⁵ 의병은 9월 28일(양력 11월 3일)에 양양읍으로 들어가 상도문리에서 읍의 불빛이 보일 정도로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다. 10월 1일(양력 11월 6일)에는 의병과 왜병이 전투를 치렀다. 10월 27일(양력 12월 2일)에 주광식이 이끄는 의병 200여 명이 강릉에서 패배하고 도망을 왔다.

1907년에 시작한 정미의병은 1908년에도 계속 활동하였다. 이 무렵 영동 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강년 부대는 설악산 百潭寺에 진을 치고 神興寺에서 군사들을 교련시켰다.¹⁰⁶ 설악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인제, 강릉, 양양 등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¹⁰⁷ 속초지역에서 의병은 1908년 3월 8일(양력 4월 8일)부터 7월 26일(양력 8월 22일)에 걸쳐 전투하였다.¹⁰⁸ 설악산과 양양군청 등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¹⁰⁹ 이 과정에서 민가가 불타고 상도문리 주민십여 명이 다치는 일도 생겼다.

정미의병이 1907년과 1908년에 걸쳐 상도문리와 설악산, 양양읍내 등에서 전투를 벌인 것을 기록한 오윤환은 식사를 제공하는 등 의병

원, 『양양 3·1만세운동사』, 2019, 23쪽.

105 『梅谷日記』1907. 7. 14; 8. 13; 8. 26; 9. 5; 9. 27; 9. 28; 9. 29; 10. 1; 10. 6; 10. 14; 10. 15; 10. 20; 10. 27; 10. 28; 10. 29.

106 이구용, 「운강 이강년의 항일의병운동」, 『강원사학』7, 1991, 1~52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1-의병항쟁사』, 1970, 546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1-의병 항쟁사자료집』, 1971, 276쪽; 구완희, 『한말의 제천의병』, 집문당, 1997, 342~350쪽; 독립기념관, 『신흥사-이강년의병부대교련지』, 『강원도 독립운동사적지』, 2010, 344~345쪽; 강원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17, 201쪽.

107 강원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017, 201~202쪽.

108 『梅谷日記』1908. 3. 8; 3. 19; 3. 22; 3. 23; 4. 6; 4. 10; 5. 16; 5. 23; 5. 24; 5. 25; 6. 19; 7. 26.

109 양양문화원, 위의 책, 23쪽.

을 후원하기도 하였다.¹¹⁰

다. 3·1 운동

3·1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최대의 항일 투쟁으로 일제 지배 정책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야기한 강력한 민족 독립운동이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 운동은 전국으로 금세 확산되었다. 속초지역의 만세운동은 1919년 4월 5일과 6일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중도문리(현 속초시 도문동)의 李國範·李能烈·李東烈·李鍾黃·李鍾國·金英經, 대포리(현 속초시 대포동)의 朴士集, 부월리(현 속초시 조양동)의 李鍾淳 등이 주도하였다. 4월 5일 800여 명의 주민이 대포리에 위치한 경찰 주재소 앞에 모여 시위를 벌이자 주재소 수석이었던 이시다 키사부로(石田喜三郎)는 시위 군중에게 허리 굽혀 굴복하였다.¹¹¹ 4월 8일에는 논산리(현 속초시 조양동)의 김주철·황명찬·박명원·고을주·손계원 등이 주도하여 마을 주민을 이끌고 대포주재소로 가려고 하였으나 도천면서기 金雨圭의 만류로 부월리 앞에서 만세를 부르고 돌아갔다.¹¹²

오윤환의 만세 운동 참여 여부나 상도문리 사람들의 만세 운동 참여 규모는 확인하기 쉽지 않다. 2월 22일(양력 3월 23일)과 3월 1일(양력 4월 1일)에 만세 운동을 주도한 이동렬과 이능렬이 찾아 왔던 것으로 보아 때가 때인지라 만세운동 참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오윤환은 양양 만세운동이 벌

110 속초시·속초문화원, 『梅谷日記』해제, 『국역 매곡일기』, 11쪽.

11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2-3·1운동사(상)』, 1970, 616~620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이동렬 판결문」, 『독립운동사사료집5-3·1운동재판기록』, 1971, 975~976쪽; 최창희, 「강원도의 3·1운동」, 『강원도 항일독립운동사』3, 광복회강원도지부, 1992, 377~379쪽; 조동걸, 『3·1운동의 역사』, 역사공간, 2010, 241~245쪽.

112 조동걸, 위의 책, 245쪽.

어지던 1919년 3월 4일(양력 4월 4일)에 양양 군내가 시끄러웠으며, 3월 5일(양력 4월 5일)에 汐澑場이 서지 않았음을 들었다.¹¹³ 이로 보아 오윤환은 양양 만세 운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윤환은 양양 만세 운동이 정리되던 시기인 3월 13일(양력 4월 13일) 오후에 주재소로 내려갔고, 다음날 오후에 양양경찰서에 갔다가 4일간 구금되었다. 3월 18일(양력 4월 18일)에 풀려나지만 구금되어 있는 동안 고문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집에 돌아와서는 내내 이불을 안고 신음하였으며, 장독과 열이 나서 몇 날을 고생하였다.¹¹⁴ 그의 당숙도 구금되었다가 풀려나왔다.¹¹⁵ 만세 운동과 연루되어 고초를 치렀지만 기록이 소략하여 어떻게 만세 운동에 관여했는지와 왜 고문을 받았는지는 파악하기 힘들다. 이것을 만세운동과 관련된 일제 지배 세력의 탄압과 처벌 중 잘 포착되지 않는 즉결처분형 태형에 대해 처벌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겼다는 것에 가치가 큰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¹¹⁶

당시 일제 지배 당국의 지배구조 말단에 위치하고 있던 면서기나 마을 이장들이 3·1 운동이 확산되는데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다.¹¹⁷ 1913년부터 1917년 무렵까지 상도문리 이장을 역임하였던 오윤환은 3·1 운동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일제 경찰의 판단으로 구금과 고문을 당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일기나 다른 기록에서 상도문리 사람들이 만세운동과 연루되어 경찰서에 잡혀가거나 만세운동 참여자의

113 『梅谷日記』1919. 3. 4; 3. 5.

114 『梅谷日記』1919. 3. 13.~3. 19; 3. 23; 3. 28; 4. 3.

115 『梅谷日記』1919. 3. 24.

116 정병욱, 「일기 자료와 사건」, 『일기로 역사를 읽다』, 국사편찬위원회, 2018b, 132쪽.

117 조동걸, 앞의 책, 242~243쪽.

재판 기록 등에서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 것은 오윤환이 경찰서에 구금되어 고문을 당하면서도 다른 이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만세 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 절의를 지킨 유림의 모습이다.

4. 해방 이후

1945년 8·15 해방이 되고 난 후 우리나라는 미·소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소련의 군정이 시행된 38선 이북 지역에 대한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¹¹⁸ 『매곡일기』는 해방 후 1년밖에 되지 않는 기간이지만 이런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1945년 7월 8일(양력 8월 15일) 일제로부터 독립하자, 이 소식을 듣은 오윤환은 기뻐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으며 상도문리를 비롯한 양양 지역에서도 사람들은 해방의 기쁨을 누렸다.¹¹⁹ 해방이 되자 일제 통치 당국의 최말단에 위치한 면직원들은 고초를 겪었다. 맞아서 상처를 입은 자가 많았는데, 오윤환은 이들에게는 과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²⁰ 일제에 부역한 이들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7월 12일(양력 8월 19일)에는 서울에서 온 사람이 광고서를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해방 후의 건국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라의 이름은 ‘東震共和國’이며, 대통령 金九, 총리대신 李承晚, 내무대신 呂運亨, 육군대신 金日成,

118 이세진, 「해방 이후 속초·양양 지역의 사회 상황과 소군정 정책」, 『한중인문학연구』 제68집, 한중인문학회, 2020, 321쪽.

119 『梅谷日記』 1945. 7. 9; 7. 10; 7. 11; 7. 15.

120 『梅谷日記』 1945. 7. 20.

외무대신 安在鴻이었다.

해방이 되고 나자 다양한 국가 체제가 거론되었다. 이 당시에 나라 이름으로 논의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소위 ‘동진공화국’이다. 공화국의 조각 명단은 기록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대통령은 김구·이승만·안모¹²¹, 총리대신(수상)은 이승만·김구, 내무대신은 여운형, 국방장관(군부대신, 육군대신)은 김일성, 외무대신은 안재홍·김일성·여운형, 총참모장 황운, 문교부대신은 김성수가 조각 명단에 언급되고 있다.¹²² 해방 이후 국가 체제를 이끌어 갈 명망가들은 여럿이 있었지만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던 인물 중에 좌·우를 떠나 각자 역량있는 분야의 대신을 맡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강원도 지역에서 38선 이북에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한 철원 지역으로 1945년 7월 15일(양력 8월 22일)에 소련군이 들어왔다.¹²³ 철원역 광장으로 소련군을 보기 위하여 구경꾼이 몰리기도 하였다. 양양은 이보다 1주일 정도 늦은 7월 22일(양력 8월 29일)에 소련군이 들어오고 일본 수비대는 무장을 벼린 채 도망을 갔다. 경찰서장이 무기를 우물 속에 숨기자, 소련군은 警防團을 통하여 건져내고 경찰서장을 가두었다.¹²⁴ 7월 28일(양력 9월 4일)에 소련군은 일시 철수하면서 경찰서장을 함흥으로 끌고 가고,

121 안중근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122 『觀瀾齋日記』(鄭觀海가 1912년부터 1947년까지 기록한 한문 일기); 『崔炳彩日記』(崔炳彩가 1927년부터 1974년까지 기록한 생활 일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타베이스(<http://db.history.go.kr/>),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Part I > CHAPTERIII INTERMEZZO: AUGUST 1945 > The Russian Scare 1945. 9. 17; 『人民解放報』(부산에서 1945년 10월 8일 창간), 『동아일보』, 1947. 1. 7, <流水生(필명), ‘戰災民: 滿洲殘留同胞를 생각하며’>; 채만식, 『소년은 자란다』(1949년 2월 25일 탈고한 미발표 遺稿); 『경향신문』 1955.08.01. <光復十周年의 발자취(1) - 八·一五光復>;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1964; 최영희, 『격동의 해방 3년』, 1996.

123 유용수, 『고향 철원 실버드나무꽃 한 쌍』, 천산, 2013, 45쪽.

124 『梅谷日記』 1945. 7. 23.(양력 8월 30일)

군수와 면장을 가뒀다. 이때 들어온 300여 명의 소련군은 해방군의 역할에 충실하여 조금의 행패도 부리지 않았다고 한다.¹²⁵ 16일 뒤인 8월 15일(양력 9월 20일)에 다시 진주한 소련군은 400여 명으로 늘어났고 점령군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지켜본 오윤환은 무법천지라고 하였다. 소련군은 부녀자를 겁탈하고 재물을 노략질하였으며, 소련군 6명이 인가에 들어가서 별통을 보고 꿀을 채취해 먹었다.¹²⁶ 이에 양양군민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소련군 책임자가 와서 절대 행패를 부리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오윤환은 이를 믿지 않았다.¹²⁷ 옛 소련 국립 문서보관소에서 있던 한 보고서에도 소련군은 약탈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¹²⁸ 처음에는 규율을 지닌 군대였지만, 금세 약탈자로 변하는 모습을 기록하였다.

한편 38선 이남 지역의 일본군 무장해제는 양양군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해방이 되었으나 강릉지역의 일본군은 계속 무장한 채로 주둔하고 있었다. 2주일이 지나도록 기다리던 미군이 오지 않자 강릉군민들은 양양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에게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요청하게 된다. 이에 소련군은 8월 29일 1개 중대 병력으로 강릉에 와서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였다.¹²⁹ 즉 소련군은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면서 양양과 강릉으로 동시에 군대를 진주시켜 그 때까지 남아 있던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한 것이다.

125 『梅谷日記』 1945. 7. 24.(양력 8월 31일)

126 『梅谷日記』 1945. 8. 23.(양력 9월 28일); 9. 9.(양력 10월 14일)

127 『梅谷日記』 1945. 9. 2.(양력 10월 7일)

128 『동아일보』 2010. 3. 10. <1945년 北 진주 소련의 붉은 군대는 해방군 아닌 약탈군이었다>

129 강릉시사편찬위원회, 『江陵市史(下)』, 강릉문화원, 1996, 132쪽.

미군은 1945년 11월 말경에 삼척의 시멘트공장과 유지공장을 경비하기 위해서 강릉을 거쳐 삼척에 주둔하였다.¹³⁰ 그러나 미군은 그보다 1달 이전에 이미 강릉에 주둔하고 있었다. 오윤환은 강릉에 주둔한 미군의 행패가 심해지자 강릉군민 10,000여 명이 투쟁하여 승리한 것을 기록하였다.¹³¹ 38선 남과 북에 진주한 미군과 소련군 모두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행동하였음을 일기에 남겼다.

해방이 되고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38선을 경계로 미·소군이 진주하였다. 해방 초기에는 38선 남북 간의 통행은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 같다. 미·소 및 남·북간 긴장이 강화되면서 점차 통행 제한이 이루어지게 되고 38선 이북 지역으로부터 이남 지역으로 넘어오는 사람을 무조건 체포하기 시작한 1947년 4월 18일 이후가 되면서 통행이 힘들어진다.¹³² 오윤환이 살던 곳은 38선 이북 지역으로 소련군이 진주하였다. 오윤환 주변의 사람들은 미군의 제재와 관리가 강화되던 1946년 5월 이전에 종종 38선을 넘나들었다.¹³³ 1945년 8월에 오세건은 여주를 갔다 왔다. 9월에 오직현은 춘천을 다녀왔고, 오수현은 서울로 일을 보러갔다가 돌아왔다. 1946년 3월 오윤환의 손자사위인 고환재는 홍천을 갔다가 돌아왔고, 4월에는 서울에서 김노인이 찾아오기도 하였다. 서울, 여주, 춘천, 홍천은 모두 38선 이남에 있는 지

130 강릉시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37쪽.

131 『梅谷日記』 1945. 9. 18.(양력 10월 23일)

132 남·북간 통행 제한에 대한 과정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였다. 『매일신보』 1945. 9. 22; 『매일신보』 1945. 9. 25; 『자유신문』 1945. 11. 27; 『동아일보』 1946. 5. 24; 『동아일보』 1946. 6. 7; 『중앙일보』 1972. 9. 11; 『경향신문』 1947. 4. 20; 『서울신문』 1947. 4. 20; 『경향신문』 1947. 4. 30; 『서울신문』 1947. 5. 6.

133 『梅谷日記』 1945. 8. 12.(양력 9. 17.); 8. 22.(양력 9. 27.); 9. 8.(양력 10. 13.); 9. 16.(양력 10. 21.); 1946. 3. 11.(양력 4. 12.); 4. 13.(양력 5. 13.)

역이다. 오수현은 9일이나 서울에서 일을 보고 올 정도로 통행 제한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남북 간 통행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은 38선이 해방 초기에는 고정된 국경 성격의 정치적 경계선이 아니라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한 임시 작전선이었기 때문이다. 38선 이북에 살던 사람들이 남과 북을 오고간 것은 소련군의 특별한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소련군이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하여 38선 이남 지역인 강릉지역으로 간 것도 해방 초기 미·소 간의 역할은 일본군 무장 해제에 한정된 것이지, 한국을 지배하려던 것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V. 맷음말

『매곡일기』를 쓴 오윤환은 해주 오씨 찬성공파의 일파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속초시 도문동에서 1872년에 태어나 해방 직후인 1946년에 사망했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한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격변의 시기였다. 일기에는 변동성이 큰 시대를 살았던 유학자의 삶이 생생히 드러나 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할아버지로부터 학문을 배운 오윤환은 배진환, 민병승, 이규현, 김성기, 심동진, 이종영 등의 저명한 유학자들과 교류를 가지며 학문을 넓힌다. 교류했던 이들은 대부분 조선말기 위정척사사상을 대표하는 화서학파의 일원이었고, 오윤환에게 글을 배운 오수현, 어경학 등도 화서학파의 학문을 이었다.

총 3권으로 이루어진 『매곡일기』는 오윤환의 후손이 기증하여 현재 속초시립박물관에서 소장·전시하고 있다. 1891년 2월부터 사망하기 바로 전날인 1946년 7월 11일까지 쓴 약

56년간의 기록인 『매곡일기』는 1890년대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영동 북부지역의 다양한 생활상이 담겨 있어 지역의 역사를 복원하여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 말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일기의 내용 중에서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농사, 장시, 민족운동, 해방이후 정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매곡일기』는 영동북부지역의 농업활동이 잘 기록되어 있는 농사일기이다.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모습과 울력, 이동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오윤환이 물화의 교류를 위하여 이용하였던 장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양양지역의 장시는 조선후기에 4개소였다가 일제강점기에 7개소까지 늘어나면서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5일장 체계를 갖춰 간다. 격변의 시기를 살았던 오윤환은 일제와 대응하였던 을미의 병, 정미의병, 3·1운동 등 민족운동을 중요시하였다. 속초지역에서 벌어진 전투 등을 세세하게 기록하여 외세에 저항하는 민족운동의 지역적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 양양은 해방이 되면서 38선을 경계로 하여 남·북으로 나뉘게 된다. 남은 미군, 북은 소련군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하여 진주하였으나, 강릉과 양양에서는 점령군의 모습을 보였다. 오윤환이 살던 상도문리는 38선 이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자료가 부족한 해방 이후 당시 지역의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가 된다.

오윤환의 애증이 담겨 있는 당대 기록으로서 『매곡일기』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 첫째, 1890년대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속초를 중심으로 하는 영동북부지역에서 벌어지고 있



는 일들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1차 사료이다. 도문동을 중심으로 속초지역에서 벌어진 의병들의 전투 기록이나 양양과 강릉에 진주한 미·소군의 행태는 기존 자료에 없거나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 둘째, 지역의 다양한 삶을 보여주는 민속학의 寶庫로서 지역사를 복원하고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다. 농사와 교육 관련 기록, 각종 통과의례, 장시 등은 당시 영동 북부지역 사람들의 생활방법과 활동범위를 알려준다. 사람들이 오고 간 곳의 지명 변천 및 물산지 등의 자료는 지역 문화를 해석하고 복원하는데 필요하다. 셋째, 삼엄한 감시의 시대를 살고 있어 자신의 기록이 언제 노출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늘 감수하여야 하였기에 오윤환은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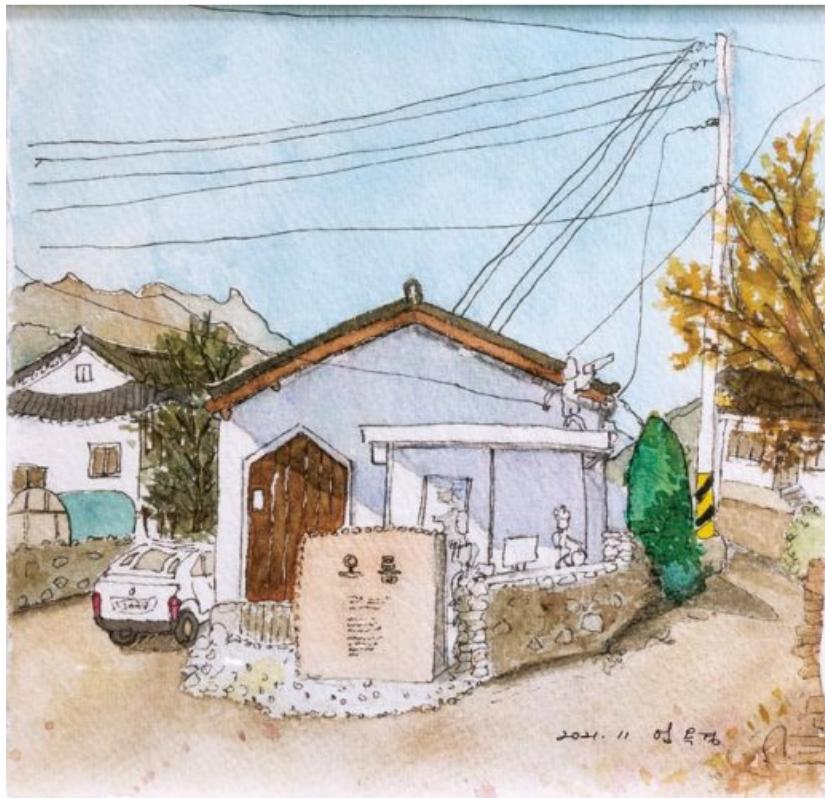
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 주변에서 목격·관조하는자의 시각으로 기술하고 있다. 직접적 참여의 기록이 적은 것은 각종 조사의 목적으로 꾸준히 찾아오는 감시자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일기에 보이는 세세한 기록과 다른 기록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지역사 연구의 범위를 넓히고, 오윤환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화서학파의 연관성과 활동 추적은 앞으로 穿鑿할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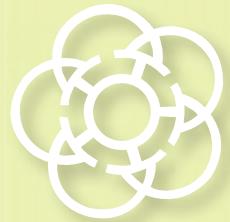
속초문화



강인순 作 · 영랑호의 봄 · Watercolor on paper



엄옥경 作 · 설악산 상도문 '오름' · Watercolor on paper



“특집3,”

- 속초 청초호(青草湖)의 여러 가지
이름에 대하여





속초 청초호(青草湖)의 여러 가지 이름에 대하여

- 쌍성호(雙城湖, 雙成湖) 지명 유래를 중심으로-

정상철*

I. 들어가는 말

속초에는 아름다운 호수 2개가 있다.

하나는 신라 화랑 ‘영랑(永郎)’의 이름을 간직한 ‘영랑호(永郎湖)’요, 또 하나는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중환¹이 그의 저서 『택리지(擇里志)』에서 그 아름다운 비경 때문에 관동팔경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아름다운 ‘청초호(青草湖)’이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영랑호(永郎湖)’는 구슬이 큰 못에 갈무리된 것과 같다고 하였으며, 청초호(青草湖)는 거울 앞의 화장대와 같다’고 하면서 영랑호와 청초호의 아름다움을 극찬하면서도 차이점을 구별했다.

영랑호는 조선시대 우암 송시열이 유배지를 함경도 덕원에서 경상도 장기로 이배(移配, 유배지를 옮김)되는 과정에서 영랑호에 잠시 머물

며 근처바위에 ‘영랑호(永郎湖)’를 ‘영랑호(永郎湖)’로 –‘랑’자를 바꿔 쓴 이유는 분명히 있다 – 바꿔 써서 일제강점기 시절 한자만 달리 썼을 뿐 신라 화랑 ‘영랑(永郎)’ 관련 전설로 인해 지금까지 오직 ‘영랑호’라는 한 가지 이름으로만 불리어오고 있다.

그런데, ‘청초호’는 청초호라는 이름 외에 ‘논뫼호’, ‘술랑포(述郎浦)’, ‘속사호(束沙湖)’, ‘속호(束湖)’, ‘속진호(束津湖)’, ‘진성호(辰成湖)’, ‘쌍성호(雙城湖)’, ‘쌍성호(雙成湖)’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아름답기 때문에 나라에서 ‘쌍성호’라는 공식적으로 지은 이름 이외에 청초호를 구경했던 전국의 수많은 시인, 방랑객들에 의해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아무리 박식한 사람이라도 전국의 수많은 호수의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한다. 즉, 유람하는 곳마다 안내하는 관리(官吏)나, 지역

*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속초사립박물관 관리담당.

1 1690(숙종 16) 1756(영조 32). 조선 후기의 실학자

사람에게 물어봐서 기록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다른 이름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흔히 아는 ‘청초호’라는 이름을 놔두고 나라²에서는 왜 ‘쌍성호(雙城湖, 雙成湖)’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필자의 뇌리를 자극한다. 그것도 ‘성(城)’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를 성(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본 소고는 청초호가 어떻게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유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어느 이름이 옳다는 것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쌍성호(雙城湖, 雙成湖)’라는 이름 중 ‘성(城)’과 ‘성(成)’의 사용이 오류, 오탏가 아님을 전제로 이야기함을 밝혀둔다.

먼저 논뫼호, 술랑포(述郎浦), 속사호(束沙湖), 속호(束湖), 속진호(束津湖) 등 다양한 지명에 대해서 관련문헌이나 연유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고 쌍성호(雙城湖, 雙成湖)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Ⅱ. 청초호의 여러 가지 이름들

Ⅱ-1. 청초호의 여러 가지 이름들

(논뫼호, 술랑포, 속호, 속사호 등)

Ⅱ-1-1. 논뫼호

‘논뫼호’란 이름은 ‘논(畠)+뫼(山)+호’가 합쳐진 이름이다. 즉, 조양동 ‘논산리’라는 마을 앞에 있는 호수’라는 의미이다. 이 지역사람들이 부르던 청초호의 순우리말이다. 청초호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어졌든 간에 청초호를 가 본 사람은 누구나 그러하듯 청초호 호수 면에 비취진 설악산 봉우리들의 아름다움에 반해 시 한 수를

2 나라에서 편찬한 관서(官書)를 의미, 《신증동국여지승람》

읊었을 것이다.

이러한 비경을 자랑하거나 하듯 이 지역 사람들은 조선 시대 양양부사로 부임하는 관리를 축하하기 위해 논뫼호 호수 위에 불을 띄우고 ‘낙화유(落火遊)³’ 즉, 지금의 선상파티를 즐겼다고 한다.

조선후기 학자인 심육이 청초호를 방문해 남긴 시⁴에 ‘청초호선유(靑草湖船遊)’라 하여 ‘청초호에 배를 띄워 놀다’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세력있는 사대부들이 청초호를 방문할 때 즐기던 지금의 인기 관광콘텐츠이기도 하다.

1907년 남궁역 선생(1863~1939)이 양양부사로 부임했을 때에도 ‘낙화유(落火遊)’를 행하였으며, 다음 최종락 군수(郡守, 고종 1895년 부사가 군수로 바뀜) 때 불꽃놀이 중에 배가 뒤집혀 백성이 죽는 바람에 폐지되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우리 고유의 말이 사라져 가는 것을 아파하는 현실 속에서 ‘논뫼호’라는 호수이름은 가장 마음에 드는 이름이기도 하다.

Ⅱ-1-2. 술랑포(述郎浦)

조선 세조때의 문신인 구사맹(具思孟)⁵이 양양 지역을 유람하면서 지은 《팔곡집(八谷集)》이라는 문집에 남아있는 「비선대(秘仙臺)」⁶라는

3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낙화유(落火遊)’는 ‘줄불놀이’라고도 한다. 밤하늘에 흩어지는 불꽃을 관상하던 운치 있는 놀이로, 주로 뱃놀이나 시화·관등놀이 등에서 놀이의 흥을 돋우기 위해 행하였다. 이 놀이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동의 경우 뱃놀이·낙화놀이·달걀불놀이·줄불놀이 등의 네 가지 놀이로 이루어진다. 이곳의 낙화놀이는 선조 때의 공신 유성룡(柳成龍)이 관직에서 물러나 귀향한 뒤 그의 형과 더불어 낙동강에서 뱃놀이를 했다는 유래를 근거로 17세기 초부터 놀아왔다고 하나, 그 시기는 훨씬 이전으로 소급될 수도 있다.

4 『강호록(江湖錄)』의 “무자춘하(戊子春夏)”

5 1531~1604, 조선시대 좌부승지, 이조판서, 좌찬성 등을 역임한 문신.

6 비선대(秘仙臺) 高臺獨立聳亭亭。翠靄彤雲匝杳冥。天吼石峯連雪嶽。述郎湖水接滄溟。心隨淨羽雙飛白。目極脩眉

시의 부연설명 중 ‘쌍성호(雙成湖)가 있는데 일명 술랑포(述郎浦)이다’라고 적어 놓은 것이 필자가 찾은 가장 오래된 기록인데, 구사맹이외에는 청초호를 ‘술랑포’로 부른 사람은 없다.

‘술랑(述郎)⁷’이란 이름 역시 영랑호(永郎湖)의 ‘영랑’처럼 신라 4대 화랑으로 불리던 인물들로 영랑, 술랑, 안상, 남석행(화랑의 이름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음)이다. 고성 삼일포에도 이들의 이름이 적힌 비석이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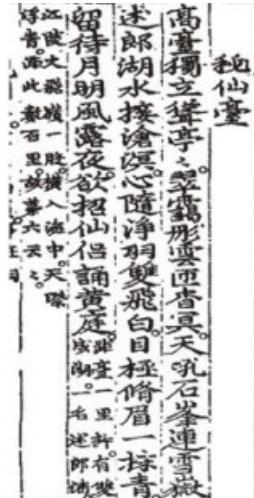
참고로 ‘비선대’는 설악산에 있는 ‘비선대(飛仙臺)’가 아니라 지금의 ‘영금정’ 지역을 일컫는 ‘비선대(秘仙臺)’이다. 고증에 의하면 ‘비선대(秘仙臺)’와 ‘영금정(靈琴亭)’은 같은 곳이 아니라 비선대의 일부가 영금정이라는 석벽구간이라고 한다.

II-1-3. 속호(束湖), 속진호(束津湖)

‘속호(束湖)’라는 이름은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침탈을 위한 전략지도를 만들기 위하여 1913~1918년까지 제작한 조선 5만분의 1지도에 나타나 있다. 아마도 ‘속초호’ 또는 ‘속호’를 줄여서 ‘속호’라고 쓰인 것으로 생각된다.

一抹青。留待月明風露夜。欲招仙侶誦黃庭。
부연설명 距臺一里許。有雙成湖。一名述郎浦 앉아서 놀 수 있는 장소가 약 1리 넓이쯤 된다. 쌍성호가 있다. 일명 술랑포이다.

7 생몰년 미상. 신라 중대의 화랑. [내용] 이른바 사선(四仙)의 하나로 일컬어진다. 효소왕 때에 남랑(南郎)·영랑(永郎)·안상(安詳)과 함께 지금의 강원도 통천군 총석정에서 노닐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리고 『해동금석원』에 의하면 강원도 고성군 삼일포에는 ‘술랑도남석행(述郎徒南石行)’이라는 석각(石刻)이 있다고 한다. 출처 : 한민족대백과사전



1915년경 일제강점기 제작지도
(출처 : 조선총독부)

‘속진호(束津湖)’라는 이름은 일제강점기 발행된 동아일보, 중외일보, 부산일보 등에서 양양 등을 소개하면서 ‘청초호’를 ‘속진호’로 표시한 기록이 많이 보인다. ‘속진(束津)’이라는 명칭은 지금의 영금정~수복탑 일대에 있던 마을을 칭한다.

II-1-4. 속사호(束沙湖), 속사포(束沙浦)

조선중기의 문인(文人)인 이시선(李時善, 1625~1725)의 문집인《송월제선생집(松月齋先生集)》중에서 관동지역을 유람하면서 지은 「관동록(關東錄)」이 전해지는데, 영랑호와 청초호의 경치를 표현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 즉, ‘영랑호와 속사호 두 호수는 마치 춤추는 사람의 소매가 가볍게 나부끼는 모양과 같다⁸라고 하였다.

속초에 두 개의 호수가 있으니 하나는 당연히 ‘영랑호’요, 또 다른 하나는 ‘청초호’인데 이시선은 청초호를 ‘속사호(束沙湖)’로 기록해 놓았다. 즉, 청초호의 또 다른 이름을 ‘속사호’로 볼 수 있다. ‘속초(束草)’라는 명칭이 ‘속사(束沙, 속

8 而永郎束沙二湖亦得婆娑。聞同邑天吼山季祖窟, 食堂巖之勝而不可往

새)'에서 나왔다고들 한다.

또한, 조선후기 문신(文臣)인 조병현[(趙秉鉉, 1791~1849)이 지은 각종 시문을 엮은 『성재집(成齋集)』중에 금강산 여행을 기록한 『금강관서(金剛觀敘)』이란 별집(別集)에서는 '5리를 지나니 영랑포(영랑호)에 이르고, 속진속사포를 지나'라는 문장에 속진과 속사포가 동시에 나온다.

문제는 '과속진속사포(過東津東沙浦)'를 해석할 때 '속진과 속사포를 지나서(過東津以東沙浦)'라고 해석해야 하는지 '속진에 있는 속사포를 지나서(過東津之東沙浦)'라고 해석해야 하는지 애매하기 짙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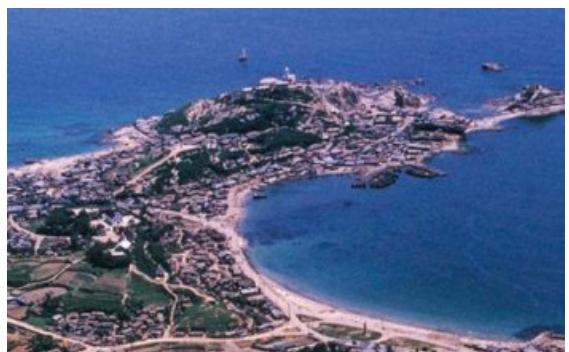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속초(東草)'라는 지명의 어원이 '초(草)'가 아닌 '속(束)'이나 '사(沙)'란 글자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필자 개인의 의견이지만, '속초(東草)'란 이름이 현재 '풀을 묶다'로 해석되지만 '속사(東沙)'가 속초의 옛 지명이었음을 인정할 때 '풀을 묶다'기보다는 '모래를 묶다(다만, 모래를 묶는다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로 풀이 되고, 오른쪽 사진처럼 영금정에 있던 '솔섬'과 본토사이를 잇는 여성의 허리처럼 가느다란 모래톱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나아가 영랑동~동명동~청호동~조양동으로 이어지는 모래를 연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포시 통진면에는 속사1리에 '속사(東沙)'라는 지명이 전해오는데, 약 300여 년 전부터 해주최씨(海州崔氏)가 입향(入鄉)해 현재까지 세거(世居)해 오고 있다고 한다. 예전 한강에 제방이 없었던 시절 한강의 조수(潮水)가 이 마을 앞까지 밀려와 물결이 출렁거릴 때마다 땅이 패어 나가므로 '모래를 섬(가마니)에 담아 묶어서'

토사의 유실을 막아 '속사(東沙)'라는 이름을 붙였다.¹⁰고 한다.



솔섬과 육지 사이에 가느다란 모래톱이 있다.



속진산 주변으로 모래가 이어지고 있다.

하여튼, '속진'의 위치에 대해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속진의 위치는 지금의 영금정 일대이고 '속사포(東沙浦)'는 '속사호(東沙湖)' 즉, 청초호로 추정할 수 있는데, 청초호와 현재의 지형과는 확연히 달랐음을 밝혀둔다. 옛 선비들의 유람기록들을 보면 '영랑호'도 '영랑포'로 기술하고 '청초호'를 '술량포'로 기록한 경우를 볼 수 있다.

'포(浦)'란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기 위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어선정박 집합시설'을 이야기하는데 영랑호와 청초호 모두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랑호에서 바다로

9 五里至永郎浦。過東津東沙浦

10 김포시청 홈페이지 마을지명

나갈 수 있는 곳은 지금의 영랑호다리로 추정되고, 청초호에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곳은 지금의 갯배위치로 추정된다.

또한, 1911년에 제작된 전국의 지명을 세세하게 기록한 『조선지지(朝鮮地誌)』의 양양군 도진명(渡津名, 나루터 이름)에는 ‘청초호’를 기록해 놓고 언문으로 ‘속새개목’으로 적어놓고 있다. ‘언문’이란 ‘한글을 속되게 부르는 말’로 결론적으로 순 한글이름이란 얘기다. 또한 ‘포구명(浦口名, 항구이름)’에 ‘속진(束津)’을 기록해 놓고 ‘속새’라고 언문표시를 해놓았다. ‘개’이란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을 말한다.

즉, ‘속새개목’이란 청초호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육지의 끝인데 사람 목같이 생겨서 지어진 이름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곳의 너비가 일제 강점기 확장공사로 인해 지금은 30~40m되는 데, 공사 전에는 가장 넓은 곳이 10m도 안되었다고 한다.

‘속사’와 ‘속새’!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II-1-5. 청초호(青草湖)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부르고 있는 이름이다. ‘청학동(青鶴洞)’과 ‘청호동(青湖洞)’이라는 동네이름도 ‘청초호’라는 이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청학동’은 청초호 호수가 너무 맑아서(青) 학들이 호숫가에 앉아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보고 이름 지었으며, ‘청호동’은 조선시대 양양도호부 소천면(부월리, 논산리, 속초리, 속진리, 노리) 지역의 멋진 경치를 이야기한 ‘소야8경(所野八景)¹¹⁾’이란 시에 ‘청호마경(青湖魔境–청초호에 비춰지는 설악산의 모습이 가히 아름답다

11 일제강점기 속초면 『면세일반』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데, 매월 당김시습이 지었다는 설도 있다.

는 의미)’의 ‘청호’를 따서 이름 지었다고 한다.

그런데, ‘청초호’라는 지명이 언제부터 사용되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청초호를 다녀갔던 수많은 유랑객들의 기록 중에서 – 비록 개인문집이지만 – 가장 오래된 기록은 양양부사로 부임한 조위한¹²⁾이 남긴 “청초호”라는 시가 있는데 1623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확인된 상태이다.

청초호
(青草湖)

- 조선지지자료(1910년대)
- 대동지지(1866년 완성)*
- 현산지(19세기, 청초호 일명 쌍성호)

* 青草湖 高麗置萬戶營泊兵舡其革罷未改

고려때 만호영을 설치하였으며, 선박을 정박하였다. 현재 폐하였다.

조선후기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지지』에는 ‘청초호에 고려때 만호영¹³⁾을 설치하였으며, 선박을 정박하였다. 현재 폐하였다(高麗置萬戶營泊兵舡其革罷未改).’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은 ‘속초’라는 지명의 최초 기원을 알 수 있는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동해안에 6개의 수군기지가 있는데 그 중 속초포…’라는 기록과 비교해 볼 때 속초에 수군기지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위치가 ‘청초호’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조선(朝鮮)’이라는 나라가 ‘고려(高麗)’라는 이름에서 이름만 바꾼 나라(易姓)이므로 경국대전 등 조선의 각종 기틀을 만들기 이전에는 고려시대의 각종 관제와 각종 시설들을 유지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고려 때에는 조선시대 ‘청초호’를 어떻게 불렀는지 정말 궁금하다. 어렵게도 고려시대 기록 중 ‘청초호’에 대한 기록은 현재로서는 남아있지 않다.

12 조선시대 직제학, 공조참판, 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 조선사대 수군 관직(정사품)

이 지역의 지명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인 안축(1282~1348, 강릉존무사 역임)의 『관동별곡』과 이곡(1298~1351, 고려 말 문신)의 『동유기(東遊記)』에는 ‘영랑호’라는 지명은 나오지만 아쉽게도 ‘청초호’라는 지명은 없다. 청초호가 영랑호보다 아름답지 않거나,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어떤 이는 청초호가 영랑호보다 아름답다고 한다.

사실 우리는 속초라는 이름에 매달려 각종 문헌 속에서 ‘속초’라는 지명만 찾았는데, 우리 지역의 지명 중 가장 오래된 지명은 비록 설화로 존재하지만 ‘도문(道門)’이라는 지명이 남북국시대 원효대사와 관련되어 전해지고 있으며, ‘영랑호’도 마찬가지로 남북국시대이며, ‘덕산(德山)’이라는 지명이 지금의 외옹치로 고려 충선왕(1301년) 때 ‘삼일포매향비¹⁴’에 기록되어 있다.

각종 사료를 찾던 중에 조선 후기 학자 류희문(1773~1827)이 지은 『북유록(北遊錄)』에 청초호를 유람하며 지은 글이 눈에 띠는데, “일찌기 관동8경에 선정된 곳들을 먼저 본 사람들이 논하기를 낙산이 더 좋냐? 청초호가 더 좋냐”¹⁵ 하였더라, ‘청초’라는 이름을 양양사람들 조차 모르더라”라고 해석된다.

류희문이 이 글을 쓴 이유는 이중환(1690~1756)이 그의 저서 『택리지(擇里志)』에서 관동8경 중 낙산의 절경보다 청초호의 절경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된다. 세력 있는 사람들이 관동팔경에 낙산을 넣어야 한다, 청초호가 더 아름다우니 청초호를 넣어야 한

다 월가월부증인데, 양양사람들은 왜 논뫼호가 청초호로 불리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는가? 하는 반문이다.

그만큼 아름다운 절경으로 인해 지역사람에게 그저 ‘논뫼호’라고 불리고 있었을 뿐인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술랑포’가 되고, ‘청초호’가 되고, ‘쌍성호’가 되고, ‘속호’가 되기도 하였다.

속초가 고향인 필자의 입장에서 약간 감정적인 의견으로 변명을 해 본다면 “속초를 포함한 양양군민들은 먹고 살기에 바빠 죽겠는데, 한가하게 놀러나 다닐 수 있는 배부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틈이 없다고 해야 할까? 논뫼호면 어떻고 청초호면 어떻나? 관동팔경을 가본 적도 없는데 뭘 넣고 뭘 빼라는 얘기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왜 ‘청초호’라는 이름이 생겨났을까? 아쉽게도 청초호가 순수한 우리 고유의 이름이기를 바랐지만 중국에도 속초 청초호와 같은 이름의 ‘청초호(青草湖)’가 있다.

사기 권1(史記 卷一) 오제본기 권1(五帝本紀 第一)

〈중략〉오기(吳起)가 말했다. “삼묘의 나라는 원쪽에 동정(洞庭)이 있고, 오른쪽에 팽력(彭蠡)가 있다.” 살피건대, 동정은 호수 이름인데, 악주(岳州) 파릉(巴陵)의 서남 1리에 있는데, 남쪽으로는 청초호(青草湖)*와 연접해있다.

* 청초호(青草湖) : 현재 호남성(湖南省) 악양시(岳陽市) 서남에 있으며 동정호(洞庭湖)와 연결되어 있다. 인근에 청초산(青草山)이 있어 명명(命名)되었으며 또한 파구호(巴丘湖)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도시와 자연이름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참담한 모화사상으로 중무장한 조선시대 학자, 관료들의 영향력인 것 같다.

‘양양(襄陽)’이란 이름은 조선 태종 때 목조의

14 강원도 고성군 외금강변 삼일포에 있었던 고려후기에 건립된 기념비. 매향비. 출처: 한민족대백과

15 “嘗觀前人之論八景、或以洛山、或以青草、而青之草名、襄人亦罕有知者”

외향이라는 이유로 양주부(襄州府)로 승격되었다가 태종 16년(1416년)에 ‘양양(襄陽)’이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 역시 중국에서 따왔는데, 청초호는 중국 호남성(湖南城)에 있는 반면, 양양은 중국 호북성(湖北城)에 있다. 강원도의 ‘양양(襄陽)’은 예전 고구려 때에는 ‘익현현(翼峴縣)’, 남북국시대(구.통일신라시대)에는 ‘익령현(翼領縣)’이란 이름으로 불렸으며 별칭으로는 현산(峴山), 이문(伊文)도 있다.

조선후기 학자 이도현(李道顯)¹⁶의 시문집인 계촌선생문집《溪村先生文集》¹⁷에는 ‘청초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는데, ‘청초호’라는 이름의 기원을 알 수 있는 현재까지는 최초의 기록이다.

‘청초호(양주 북쪽 30리에 있는 큰 호수이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지(대동지지?)에는 주위가 30리로 되어있다고 한다.) – 영랑호보다 아름다운데 주위는 돌과 바위들이 기괴한데 동쪽 편으로는 작은 봉우리 하나가 호수 속으로 반쯤 잠겼다. 그 봉우리 위에는 옛 정자의 터가 있는데 국선 영랑과 낭도들이 노닐던 곳이다. – 이 청초호는 강원도 영동지방의 여러 호수 중 가장 큰 것으로 중국 파릉의 ‘청초호’의 이름을 취하여 명명하였다. 그러나 파릉의 청초호는 그 둘 레가 수백리이다. 그러므로 양양의 청초호는 진실로 파릉의 청초호에 견줄 수 없을 것이다.’¹⁸

16 1726년(영조 2) 1776년(영조 52). 조선 후기 성리학자. 자는 치문(禪文)이고, 호는 계촌(溪村)이다.

17 시는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암암자실(暗暗者室)」「안유류의(岸有柳矣)」 등은 『시경』의 체재를 모방한 것으로 4언으로 된 것이며, 「관동잡영(關東雜吟)」은 강원도 지방의 명승고적 가운데 주로 금강산의 풍물을 담고 있어 ‘금강산유람시’라고 평할 수 있는데, 제목마다 해설을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도운 것이 특색이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8 溪村先生文集卷二 > 溪村先生文集卷之二 > 詩
青草湖[襄州北三十里、有大湖、人稱其周三十里地誌、以此爲永郎湖、巖石奇怪、東有小峯半入湖心、其上有古亭基

라며 ‘청초호’라는 이름은 중국의 ‘청초호’에서 빌려 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모화사상에 빛나는 조선이라고 할지라도 무작정 ‘청초호’라는 이름을 빌려 왔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슨 이유가 있길래 ‘푸른 풀(而青之草名)’이라는 이름을 따왔을까?

청초호를 한번쯤 가본 사람이라면 서쪽의 울산바위가 호수위에 투영되어 마치 호수가 울산바위를 삼킨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또한, 북쪽에서 보면 남쪽의 청대산과 맑은 하늘이 호수 면에 반사되어 속초에 전해져 내려오는 ‘소야팔경’중 ‘청호마경(靑湖魔境)’의 의미를 알 수 있다.

II-2. 쌍성호(雙成湖, 雙城湖)

‘쌍성호’란 이름은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나라』에서 편찬한 사서[이하 관서(官書)]에서 ‘쌍성호’라는 이름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아래의 표를 보면 『신동국여지승람-관서』, 『여지도서-관서』에 ‘청초호’를 ‘쌍성호’로 표기한 기록이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완성) 권44 양양 산천조에는
○ 쌍성호(雙成湖) : 관문40리 간성군과의 경계에 있으며, 형세가 영랑호보다 뛰어나며, 옛날 만호영을 두어 선박을 정박하였으나, 현재 폐하였다.

여지도서(1757년 완성) 양양 산천조에는

○ 쌍성호(雙成湖) : 관문40리 주위가 20리 형세가 영랑호보다 뛰어나며, 옛날 만호영을 두어 선박을 정박하였으나, 현재 폐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한글로는 ‘쌍성호’이지만, 한

蓋、亦永郎仙徒、遊賞之地、是湖爲嶺東諸湖之最大者、故取巴陵青草湖之名、以名之然巴陵之湖、回數百里、則此固不能侔矣。

자로는 2개의 쌍성호((雙城湖, 雙成湖)가 존재 한다. 전자는 2개의 성(城)이 있는 호수라는 의미요, 후자는 2개의 호수로 이루어진(成) 호수라는 의미이다.

‘쌍성호((雙城湖)’라는 명칭은 《세종실록》에 동해안의 수군기지 정비관련 기사와 《연려 실기술》, 《만기요람》 등 주로 군사시설관련 기록에 등장하는 반면, ‘쌍성호((雙成湖)’는 《동국여지승람》, 「양양부읍지」 등 지역관련정보 기록에 등장한다.

쌍성호 (雙城湖)	○ 세종 7년 을사(1425, 흥희 1) 4월 26일 (을축) 기사
	○ 연려실기술 16권 산천의 형승中
쌍성호 (雙成湖)	○ 취제선생유고집3-관동록
	○ 만기요람 군정4편 해방조 등
쌍성호 (雙成湖)	○ 신동국여지승람(1530년)
	○ 동국여지지(1656년)
	○ 여지도서(1756~1757년)
	○ 양양부읍지(1759년)
	○ 강원도양양군읍지 등

그렇다면 ‘청초호’라는 이름을 놔두고 또 ‘쌍성호’라고 이름 지었을까? 어떤 이름이 먼저 지어졌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언제부터 청초호로 불리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가장 오래된 기록은 양양부사로 부임한 조위한(1567년~1649년)이 남긴 “청초호”라는 시가 1623년경에 지어졌으며, ‘쌍성호(雙城湖)’라는 이름은 1425년(세종7년) 세종실록에 기록(쌍성포로 기록되어 있음)되어 있어 절대적인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 ‘쌍성호’라는 지명이 ‘청초호’라는 지명보다 약 200여년 빠르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이름이 먼저 지어졌느냐가 이글의 주제가 아니므로 이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쌍성호’란 한자가 왜 2개가 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무

엇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II-2-1. 쌍성호(雙城湖)

첫 번째로 ‘쌍성호(雙城湖)’ 즉 두 개의 성(城) 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선 초기 유명한 문신인 성현(成僕)¹⁹의 기록집인《허백당(虛白堂)》에는 청초호를 유람하면서 지은 두 편의 시가 있는데 그중 ‘쌍성호(雙城湖)’란 시에 보면

‘대숲 어둑한 쌍성은 옛터가 그대로 있네(竹暗雙城有古基)’라는 문장이 있는데,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청초호에는 옛 성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구나’라고 풀이된다.

쌍성호[雙城湖]

하늘 높이 솟은 설악은 활화가 기괴하여라 / 雪嶽凌空活畫奇
이산은 험준하고 내봉 또한 우뚝하구려 / 篱山崎峯聳峯危
십 리나 펼쳐진 호수는 평야를 감싸 안았고 / 湖開十里包平野
대숲 어둑한 쌍성은 옛터가 그대로 있네 / 竹暗雙城有古基
속초도는 넓은 바다 가까이 쑥 내밀었고 / 束草島侵滄海近
비선대는 소나무 숲 가지에 가려져 있구나 / 祕仙臺隱亂松枝
춘풍에 채찍 드리고 말 가는 대로 가노라니 / 春風信馬垂鞭去
풀 파랗고 모래 흰 곳에 해가 한창 길구려 / 草綠沙明日正遲

사용된 지 오래되어 대나무로 둘러싸인 성(城)! 이 시점에서 또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청초호에 있던 성(城)의 이름이 ‘쌍성(雙城)’이여서 쌍성호일까? 아니면 2개의 성이 있어서 쌍성호일까? 먼저, 성(城)의 이름이 쌍성(雙城)일까?라는 의문은 먼저 성현의 ‘청초호’라는 시에서 표현한 대상 및 필자가 바라 본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19 조선 성종 때의 문신 · 학자(1439~1504). 자는 경숙(磬叔). 호는 부후자(浮休子) · 용재(慵齋) · 허백당(虛白堂) · 국오(菊塢). 대제학(大提學) 등을 지냈고, 《악학궤범》을 편찬하여 음악을 집대성하였다. 저서에 《용재총화》, 《허백당집》 등이 있다.

1행은 필자의 위치에
서 남서쪽의 설악산을,
2행은 서쪽의 이산(천
후산, 울산바위)을, 3
행은 필자의 위치인 청
초호와 소야평야를, 5

1행 : 하늘 높이 솟은 설악 은 활화가 기괴하여라	⇒ 남서쪽, 설악산
2행 : 이산 은 험준하고 내봉 또한 우뚝하구려	⇒ 서쪽, 울산바위
3행 : 십 리나 펼쳐진 호수 는 평야를 감싸 안았고	⇒ 필자위치, 청초호와 소야평야
4행 : 대숲 어둑한 쌍성 은 옛터가 그대로 있네	⇒ ?쪽, 쌍성
5행 : 속초도 는 넓은 바다 가까이 쑥 내밀었고	⇒ 동쪽, 지금의 조도
6행 : 비선대 는 소나무 숲 가지에 가려져 있구나	⇒ 북동쪽, 지금의 영금정

행은 동쪽의 속초도(조도)를, 6행은 북동쪽의 비선대(영금정)을 표현하였다. 문제는 4행의 쌍성이
다. 필자의 위치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시를 썼다고 가정한다면 쌍성호의 안쪽이나 밖에서 정
남쪽이나 정북쪽 방향의 일직선상에서 쌍성의 위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우선 ‘쌍성’이 쌍성호 내에 있었다고 한다면 ‘쌍성’라는 성은 ‘속초포’로 간주되어야 한다. 즉, 세종
실록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동해안 6개의 수군(지금의 해군) 가운데 양양북쪽에 있었던 속초포[조
선시대 수군 사령관 : 수군만호(정4품)], 그 옛 터가 쌍성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청초호에 ‘속초포’라는 수군기지가 있었다는 사실이 앞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
속초포 또한 시기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었다.

그것도 《조선왕조실록》
이라는 정부가 편찬한 관서
(官書)에서 태종(재위기간
1400~1418) 때에는 ‘속초
포(束草浦)’로, 세종(재위기간
1418~1450) 때에는 ‘산성포
(山城浦)와 쌍성포(雙城浦)’로,
세조(재위기간 1455~1468)
때에는 다시 ‘산성포(山城浦)’로



기록되어 있다. 그중 세종 때에 불려진 ‘쌍성포(雙城浦)’라는 이름이 필자의 의도와 가장 근접한 ‘쌍
성(雙城)’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세조 때에는 ‘산성포’로 불리어졌음을 기억하자.

명칭	추정연대	주요내용	출처
속초포 (束草浦)	1398년 (태조6년)	속초포(束草浦)가 양양(襄陽) 북쪽에 있고…	세종실록지리지 권153 진보조
산성포 (山城浦)	1422년 (세종 4년)	또 경내(境內)의 산성포 만호 (山城浦萬戶) 이양수(李養脩)에게 소금을 청하여…	세종 권15,
쌍성포 (雙城浦)	1425년 (세종 7년)	“강원도 영동(嶺東) 각 포구의 선군(船軍)은 다른 부역도 별로 없고 또 병(兵營)에 딸린 밭도 없사오니, 쌍성포(雙城浦)와 삼척포(三陟浦) 등 철을 생산하는 곳에 선군을 시켜 모래를 일어서 철을 생산하게 하고…”	세종 7년(홍희 1) 4월28일 기사
산성포 (山城浦)	1462년 (세조 8년)	“강원도 산성포(山城浦)는 즉 포구(浦口)에 모래가 메워져서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정박(定泊) 하기가 어려우며…”	세조 권29권

세종실록·세조실록상의 속초포(束草浦)의 이명(異名) ›

청초호에 ‘쌍성(雙城)’이 있었음을 처음 알려준 이 시(時)의 저자 성현(成僕)은 1439년에 태어나 1504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다. 허백당 성현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관료층 문인으로 1462년(세조8년)에 23세의 나이로 식년문과(3년마다 치러지는 정기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정계에 진출한다. 다시 한번 세조 때임을 기억하자.

이후 성현은 1483년 11월(성종14년)부터 1484년 10월(성종15년)까지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는데, 그때 청초호를 포함한 양양 지방을 순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1483년이면 ‘속초포’가 ‘쌍성포’로 다음 세조 때(재위기간 1455~1468) ‘산성포’로 불려진 후 역사 속으로 사라진지 22년이 흐른 때이다.

『세종실록』 세조 8년(1462년) 9월 14일 기사를 보면 ‘병조의 건의로 강원도 산성만호 · 연곡 만호를 울진 · 삼척으로 옮기게 하다’는 기록²⁰이 있는데

병조에서 도체찰사 한명회(韓明渾)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원도 **산성포(山城浦)**는 즉 포구(浦口)에 모래가 메워져서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정박(定泊)하기가 어려우며, 연곡포(連谷浦)는 포구에 암석이 많아서 역시 배를 정박시키기가 어려우니 만호(萬戶)를 두기가 마땅치 못하고, 울진(蔚珍)과 삼척(三陟)의 양 포(浦)는 도적이 지나는 요충지(要衝地)인데 수령으로써 겸하여 관할하게 하였으니, 만약 사변(事變)이 있으면 수군(水軍)·육군(陸軍)을 겸해서 다스려야 하니, 그 형세가 심히 어렵습니다. 청컨대 **산성만호(山城萬戶)**·연곡만호(連谷萬戶)를 없애고 울진·삼척에 만호를 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20 ○戶曹啓: “江原道嶺東各浦船軍不供他役, 且無營田。雙城浦、三陟浦產鐵之地, 可令船軍陶沙冶鐵, 其他產鐵各浦, 亦依此例, 其軍人日課, 監司差官試驗, 量定額數, 移關本曹, 會計施行。自三月至八月冶鐵, 自九月至翌年二月煮鹽, 以爲恒式。”從之 『세종실록』 영인본】 2책 667면

정리하자면, 속초포(束草浦)는 ‘산성포(山城浦)’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으며, 태조6년인 1398년 설치되어 포구(浦口)가 모래에 메워져서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정박(定泊)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조 1462년경에 폐지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초포가 쌍성포로 불렸다는 이유 하나로 ‘쌍(雙)’이란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기에는 뭔가가 부족하다. ‘쌍성(雙城)’이란 성이 있어서 ‘쌍성포’로 불리었다고 한다면 ‘쌍성호(雙成湖)’란 이름으로 불리어진 연유를 풀기가 어렵다.

2개의 성으로 이루어진… 2개의 호수로 이루어진…… 그렇다면 신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등의 사료에서 ‘성(城)’을 ‘성(成)’으로 잘못 썼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성(城)’과 ‘성(成)’의 사용이 오류, 오타가 아님을 전제로 이야기함을 밝혀둔다.

‘쌍성호(雙成湖)’란 이름과 개연성을 맞추고자 한다면 ‘쌍성(雙城)’의 의미는 말 그대로 두 개의 성(城)이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성현 시에서 필자의 위치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시를 썼다고 가정한다면 쌍성호의 안쪽이나 밖에서 정남쪽이나 정북쪽 방향의 일직선상에서 쌍성의 위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상기해 봄야 할 것이다.

생각하건데 앞서 이야기한 속초포(쌍성포)에 또 하나를 더하자면 지금의 동명동(수복탑앞 대형아파트공사현장~속초감리교회~법원)에 있던 고려 예종3년(1113년)경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속초리성지(束草里城址)’와 함께 하면 ‘쌍(雙)’이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상공에서 보는 관점이 아니라 땅에서 수평으로 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청초호 수로의 너비(구. 제일극장 뒤편 기준)가 30m이상이지만 일제강점기 개발되기 이전에는 몇 미터 안 되는 좁은 갯가로 호수의 남쪽(조양동쪽)에서 볼 때는 좁은 개울을 통해 동명동 앞바다가 호수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정우 선생님의 「내고향 속초」 내용 중에 '일본인들이 청초호를 군사용 항구로 개항코자 지금의 제일극장 뒤 수로를 준설하자 물고가 트이면서 바다고기들이 항내에 몰려들어 청어 등이 잡혔다.'에서 알 수 있듯이 준설이전의 갯배지역은 물이 항상 고여 있지 않는 갯가지역(속새개목)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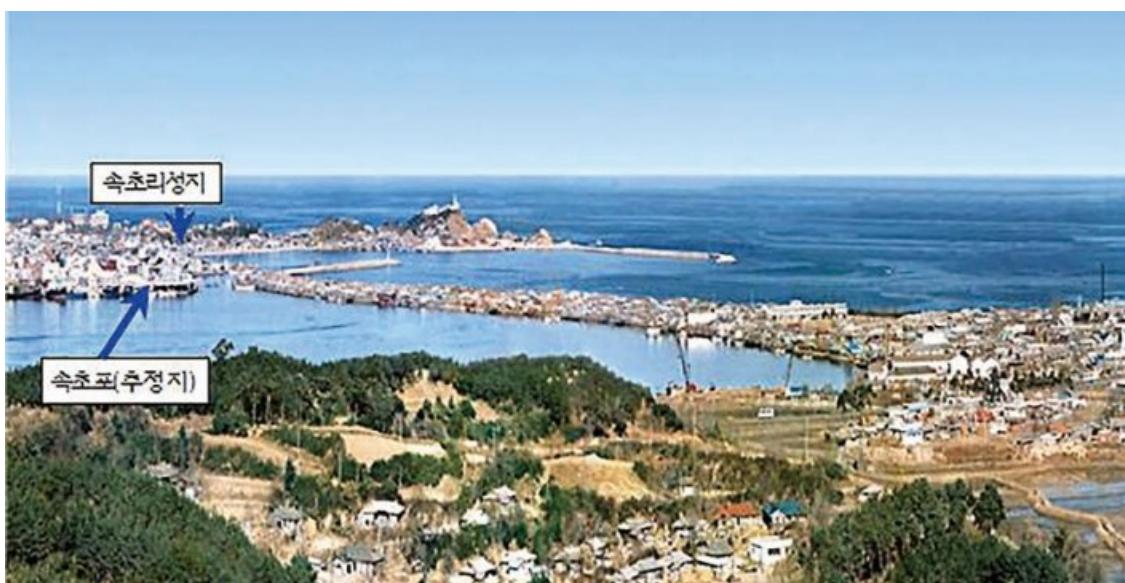
또한, 속초포는 청초호 호수면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고, 속초리성지는 해발 20~30m위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지금의 조양동 엑스포유원지 쪽에서 속초리성지가 있는 동명동 속초감리교회 쪽을 바라보면 군사기지로서의 '성(城)'이 나란히 보일 수 있다. 참고로, 조선시대 속초리 구역은 지금의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 노학동 일부, 청호동 일부이다.

옛 문헌에 지금의 영금정 위치인 비선대를 표기할 때도 '청초호 동북쪽'이라고 표시하는데, 수평적 시각에서는 가능하다. 앞서 말했듯이 나라에서 편찬한 관서에서 '쌍성호(雙城湖)'라 표기한 이유도 2개의 성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시사한다.

그렇다면, 속초포(쌍성포, 산성포)는 쌍성호 어느 위치에 있었을까? 그 막연한 추측은 위 세조 8년(1462년) 9월 14일 기사에서 산성포가 없엔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포구(浦口)에 모래가 메워져서 배가 드나들 수 없고 정박(定泊)하기가 어려우며'가 그 이유이다.

아래 사진은 지금의 시내 농협방향에서 바닷가를 찍은 사진(1928년경)인데 모래톱으로 이루어진 사이에 '배다리'가 보이며, 배다리 안쪽에 정박해 놓은 배가 보인다. 그러면, 배다리 안쪽에 있는 배는 어떻게 바다로 나갈 수 있었을까? 결론은 물이 차서 바닷물이 배다리 위로 올라올 때가 돼서야 배가 바다로 나갈 수 있다



1980년대 온정리에서 바라 본 청초호와 영금정(사진출처 : 유형일)

는 얘기이다.

즉, 속초포(쌍성포, 산성포)가 배다리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방어하기 위해 바다로 나가야 하는데 물이 차오르지 않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혁파된 것으로 생각된다.



속초항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80년 전 우편엽서.

참고로 속초리성지는 2012년 발굴된 곳으로 현존하는 우리나라 역사문헌에는 존재하지 않고, 일제강점기(1942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도천면(道川面) 속초리(束草里)에 있는 사유지로 속초리 부락의 서쪽방향으로 근접한 작은 언덕 위에 있다. 주위 약 삼백 칸이며, 흙으로 쌓았다. 거의 완전하다’라고만 나와있는 실정이었으며, 이 지역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곳을 장안마을(長安, 일명 장안골, 장안동)이라 부르고 있다. 아시다시피 장안이란 한나라의 수도를 지칭하거나 큰 고을을 의미한다.

이 곳에서 발굴된 명문기와(글자가 새겨진 기와)의 경우 속초리성지의 축성(새로 만듬) 또는 중수(증축이나 보수)연대로 추정되는 천경 3년(天慶三年, 요나라 연호로 고려 예종 8년, 1113년에 해당) 기와 등이 발견되었으며, 공교롭게도 양양 진전사(陳田寺), 설악산 권금성(權金城)에서도 같은 연대의 기와가 발견되었다.

속초리성지가 언제 성(城)으로서의 수명을 다 하였는지는 문헌부족으로 알 수 없다. 동해안의 설치된 수군기지와 성(城)의 목적은 주로 여진족과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함으로 고려 때부터 설치되어 조선초까지 운영되어오다 조선 중기에 삼척포 등 주요 진(鎮)이 거의 대부분이 혁파된 것으로 보인다.



천경(天慶)3년의 명문기와

속초포(쌍성포, 산성포)가 혁파된 시기도 1443년(세종 25) 침지중추부사 변효문(卞孝文)이 대마도주(對馬島主) 종정성(宗貞盛)과 세 견선(歲遣船) 등 무역에 대해 맺은 계해약조 이후 왜구의 침탈이 잣아든 시기로서 1510년(중종 5년) 제포(내이포), 부산포, 염포의 삼포에 거주하고 있던 왜인들이 대마도주 종성친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삼포왜란 전까지의 시기에 해당된다.



1960년대 초 청초호 항공사진 ※ 출처 : 속초시립박물관



2017년 청초호 항공사진 ※ 출처 : 속초시청

II-2-2. 쌍성호(雙成湖)

두 번째로 두 개의 호수(湖)여서 쌍성호(雙成湖)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옛 공식적인 기록을 찾아 본 결과 아직까지는 찾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쌍성호(雙成湖)’란 이름은 1530년에 제작된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등에 기록되어 있는데, 중국의 청초호가 ‘동정호(洞庭湖)’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 청초호도 다른 호수와 연결되어 있어서 쌍성

호(雙成湖)인가? 하는 막연한 추측이 들기도 한다.

쌍성호
(雙成湖)

- 신동국여지승람(1530년)
- 동국여지지(1656년)
- 여지도서(1756~1757년)
- 양양부읍지(1759년)
- 강원도양양군읍지 등

다만, 허균이 지은 쌍성호라는 시에서 청초호

를 ‘쌍성호(雙成湖)²¹’로 표기한 기록이 남아 있다.

雙成湖 허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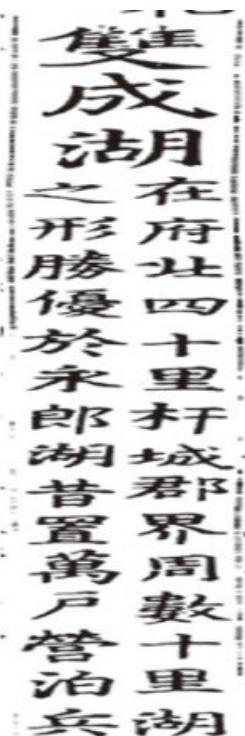
바다와 함께 있어 호수는 넓고. 흘러가는 놀잇배 가볍구나. 연기서리고 저무는 산 붉게 물들고. 서리 내리자 저녁물결 맑네. 맷목 길 은하수 통하니. 신선의 삶은 옥경과 같구나. 피리불어 서왕모 신선이 내려오니. 동쌍성은 어디쯤 있는가?

※ 동쌍성(董雙成) : 서왕모의 시녀로 득도하여 옥소를 불며 학을 타고 승천하여 신선이 됨

위 기록에서 허균(許筠, 1569년~1618년)이 쌍성호의 경치를 시를 읊는 중 곤륜산의 신(神) 서왕모가 쌍성호의 경치에 반해 신선계(神仙界)에서 지상계(地上界)로 내려왔는데 서왕모의 시녀인 동쌍성이 왜 내려오질 않는가?라는 의미로 마지막 구에 ‘쌍성호(雙成湖)’와 같은 이름인 ‘동쌍성(雙成)’을 비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쉬운 것은 ‘쌍성호(雙成湖)’의 의미는 찾을 수 없었다. 참고로 우측의 사진자료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편의 ‘쌍성호’를 소개한 내용이다.

두 개의 호수여서 ‘쌍성호(雙成湖)’라는 연유를 찾던 중 마지막으로 막연한 사명감(?)을 가



21. 雙成湖 허균(許筠)

並海平海闊。沿流客棹輕。煙凝暮山紫。霜落夕波清。槎路通銀漢。仙居近玉京。吹笙降王母。何許董雙成。- 출처 : 惺所覆瓿稿卷之一〇詩部一楓嶽紀行 -

지고 여러 자료들을 찾은 끝에 미약하나마 100년 전 가장 최근(?)에 기록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부산일보(釜山日報) 1917년 10월 17일자에 게재된 이타모토 미나미다케(板本南岳) 특파원의 「강원도발섭기(江原道跋涉記)」라는 기행문 중 “대포항에서 간성으로”라는 기사의 내용 중에서 필자는 뜻밖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발섭기(跋涉記)’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면 길을 수고하며 돌아다니면서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

발섭기의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일보 1917년 10월 17일 - 강원도 발섭기(跋涉記)

대포항에서 간성으로 특파원 이타모토미나미다케(板本南岳)

27일 오전 9시 대포를 떠나 간성으로 향하기로 했다. 본 신문 애독자로서 이 지역 부근의 일류상업가인 호소가와(細川)씨를 비롯 가토(加蘇), 사이레라소(西來路夫)를 비롯해 본 신문 애독자로 간성군 토성면 교암리(대포에서 3.5리 가리)에 살면서 해산물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오쿠다(奥田)씨가 찾아와서 출발전날 밤에 같이 합석했다.

출발에 앞서 위에 거명된 이들로부터 축하도 받고 이별주 의미로 맥주도 대접 받고 함께 건배도 했다. 여러 사람의 환송을 받고 사슴 빛 말을 타고 간성으로 가기 위해 북쪽으로 계속해 올라갔다. 오쿠다(奥田)씨는 간성에 볼일이 좀 있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갈 안내자 역할을 하며 함께 갔다.

오쿠다씨는 자전거를 타고 나는 사슴 빛 말을 타고 초가을 얼굴에 스치는 신선한 바람을 즐기며 미완성의 이등도로를 달렸다.

각별히 강원도 산하의 아름다운 풍경을 접하는 일이 가능해 왼쪽(필자의 의견으로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물결이 요동치는 해수면 저편에 나무하나 없는 작은



섬[조도를 말함]이 푸른 바다에 쌓여 있다. 물위에 떠 있는 모습이 정말 뭐라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오른쪽(필자의 의견으로는 왼쪽)에는 고개를 돌리면 중첩된 산악의 흉부를 찌르는 창을 세워놓은 것 같은 바위산(울산바위)이 한층 더 솟아 있어 마치 하늘을 갈아놓은 듯한 모습을 보는 듯하다.

완만한 경사면은 옷이 흘러내리듯 서서히 열리고 끝자락에 5정(五町)¹ 정도의 사이를 두고 하나는 주위 2리(里)²의 호수를 ‘좌천호(左川湖)’라 부르며, 또 하나는 ‘속진호(束津湖)’라고 부른다고 들었다.[후략]

1 정(町), 밭이랑의 두둑한 부분. 거리의 단위 1정은 60간(間), 간(間)은 길이의 단위로서, 길이 한 간은 여섯 자이다.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1.8182미터. 즉 5정은 약 9미터.

2 1리(里)는 약 400미터. 즉 2리는 약 800미터.

위 「강원도 발십기」를 쓴 이타모토 특파원의 청초호를 묘사한 대목을 살펴볼 때 이 글을 쓴 1917년은 아직 청초호가 항구로 개발(1933년 이후)되기 이전이므로 최소한 조선시대 여러 방랑객들이 청초호를 둘러보며 ‘쌍성호(雙成湖)’라 이름 불렸을 당시 그대로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글이 기행문형식이다 보니 글의 순서대로 속초에 대한 사실을 추적해 보자.

오쿠다씨는 자전거를 타고 나는 사슴 빛 말을 타고 초가을 얼굴에 스치는 신선한 바람을 즐기며 미완성의 이등도로를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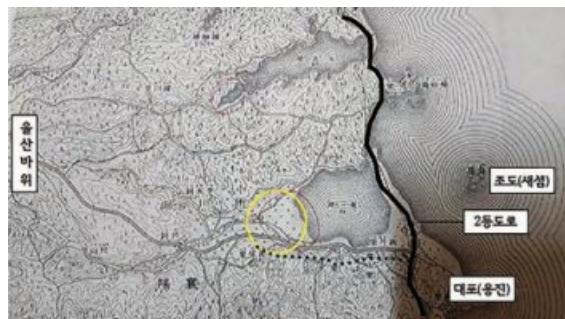
왼쪽(필자의 의견으로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물결이 요동치는 해수면 저편에 나무하나 없는 작은 섬[조도를 말함]이 푸른 바다에 쌓여 있다….

오른쪽(필자의 의견으로는 왼쪽)에는 고개를 돌리면 중첩된 산악의 흉부를 찌르는 창을 세워놓은 것 같은 바위산(울산바위)이 한층 더 솟아 있어 마치 하늘을 갈아놓은 듯한 모습을 보는 듯하다.

먼저 오쿠다씨는 대포를 출발해 일행과 함께 이등도로를 달렸다고 하는데, 그 당시 이등도로는 ‘양양~원산’ 구간으로 우리 지역으로 보면 대

포항 신작로에서 부월리를 지나 고속버스터미널서쪽(지금의 대로)가 아니라 청호동 마을을 지나 갯배를 건너 시내를 지나 영랑동으로 지나간다.

즉, 이타모토 특파원은 간성을 가기 위해 북쪽으로 가는 중이니 조도는 이타모토 특파원의 오른쪽(동쪽)에 위치해 있고, 울산바위는 왼쪽(서쪽)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특파원은 왼쪽에 조도, 오른쪽에 울산바위가 보인다고 기록했으니 남쪽으로 다시 돌아서 보지 않는 한 이상하기 짝이 없다. 다만, 이등도로를 달렸다는 기록에 대해 간성으로 가는 모든 여정을 말을 타고 이등도로를 달렸는지, 잠깐 다른 길을 달렸는지는 알 수 없다. 다음 기록을 보면 약간 다른 길을 달렸을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



위 지도는 1915년 일제강점기때 제작된 지도인데, 강원도발십기를 쓴 1917년보다 2년전임에도 불구하고 좌천호(원안)가 보이질 않는다.

다음은

완만한 경사면은 옷이 흘러내리듯 서서히 열리고 끝자락에 5정(약9m)정도의 사이를 두고 하나는 주위 2리(약 800m)의 호수를 ‘좌천호(左川湖)’라 부르며, 또 하나는 ‘속진호(束津湖)’라고 부른다고 들었다.

즉, 대포에서 간성을 향해 가는 길에 너비 약 9미터의 밭이랑(논이나 밭을 갈아 골을 타서 두

두룩하게 흙을 쌓아 만든 곳) 같은 두둑한 부분을 두고 양옆으로 호수가 있는데 하나는 둘레 약 800미터(주위 약 2리) 규모의 ‘좌천호(左川湖)’라는 호수가 있고, 또 하나는 ‘속진호(束津湖)’라는 호수가 있다는 것이다.

두 개의 호수로 이루어진 호수, 쌍성호(雙成湖)라는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서 필자가 그토록 찾던 대목이다. 이타모토 특파원이 이곳을 지나 가던 10월, 동해안의 밀물과 썰물의 차이로 인해 물속에 있던 밭이랑 같은 두둑한 부분이 물 위로 모습을 나타내어 2개의 호수처럼 보인 것일까?

먼저 속진호는 우리가 아는 ‘청초호(青草湖)’이며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청초호를 ‘속호(束湖)', '속진호(束津湖)', '속초호(束草湖)' 등 다양하게 불려 지다가 1918년 「조선오만분의일 지도」를 완성하면서 ‘청초호’로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좌천호(左川湖)’의 위치는 구체적으로 어디인가가 궁금하다.

아니 그보다 먼저 ‘좌천호’라는 호수의 존재에 대해서 이타모토 특파원외에는 그 당시에 이 지역사람 그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신문기사 내용처럼 ‘속진호라고 부른다고 들었다.’고 한다면 간성으로 가던 도중 지역사람에게 ‘좌천호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사실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속초에는 전해지지 않았는지 가슴 아프기만 하다. 당시의 속초사람들이 전멸이라도 했단 말인가?

여하튼 ‘좌천호’를 한자해석상 ‘하천(川)의 왼쪽(左)에 있는 호수(湖)’라고 풀이를 한다면 ‘소야천의 왼쪽에 있는 호수’라는 의미로서 대략적인 위치추정이 가능하다.

1953년에 제작된 속초 위성사진을 보면 청초

호 서쪽으로 움푹 파인 부분이 보인다.

원안의 지역은 위치상 청초호 호수 왼쪽으로 매립되어 현재 ‘석봉도자기박물관, 청초정, 어린이 교통공원’ 등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1979년에 제작된 위성지도를 보면 청초호 북쪽, 즉 소야천의 왼쪽으로 이타모토 특파원이 언급한 주위 800m규모의 조그마한 호수를 볼 수 있다. 1953년에 없던 모습이 1979년에는 보인단 말인가? 사실 이 사진은 1979년 당시 청초호 매립사업의 일부로 형성된 모습이다.



속초항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80년 전 우편엽서.



1953년 위성사진(출처 : 국토정보맵)



1979년 위성사진(출처 : 국토정보맵)

1999년 지금의 엑스포장에서 「1999 세계관 광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청초호를 크게 매립하기 전에도 청초호를 관이나 민간이 부분매립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이다. 아마도 1953년 이전에는 1979년의 사진처럼 확연하게 분리된 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추측을 하게 된다.

그 막연한 추측은 우측의 일제강점기 1928년 제작된 「양양명소 속초항」이라는 제목의 우편엽서를 보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조선시대때 속초포(산성포, 쌍성포)라는 수군기지가 없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인용한 사진인데, 지금의 우체국 근처로 추정되는 곳에서 영금정 쪽을 향해 찍은 이 사진에는 일명 ‘배다리(원안)’가 보이는데 물이 얕아지면 속초 서쪽 부월리 사람들이 이 다리를 건너 속초리, 속진리 쪽으로 걸어 다녔다고 한다.

또한, 물이 배다리 위로 차오르면 청초호 안에 있던 배들이 다리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이러한 현상을 ‘밀물 때’와 ‘썰물

때’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얼마만큼의 주기를 갖고 일어났는지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지만, 물이 낮아져 배다리가 보였을 때 청초호를 보았다면 이마모토 특파원이 언급한 주위 2리(약800m)의 호수를 ‘좌천호(左川湖)’가 나타나 조선시대 유랑객들이 큰 호수인 청초호와 함께 2개의 호수로 이루어진 호수, ‘쌍성호’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수 있을 것이다.

III. 끝맺음

이상으로 청초호의 여러 가지 이름들에 대하여, 특히, 쌍성호에 대하여 그 연유를 추측해 보았다. 여러 가지 이름 중 ‘어느 이름이 정답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논뫼호’라고 불려지던 아름다운 호수를 나라에서는 ‘쌍성호’로 칭하였다가 군사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청초호로 다시 불려진 것으로 생각된다.



청초호 주변모습(2017년) ※ 원안의 좌천호가 있던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

지명	기록 문헌
쌍성호 (雙城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 7년 을사(1425, 흥희 1) 4월 26일 (을축) 기사 ○ 연려실기술 16권 산천의 형승中 ○ 취재선생유고집 3-관동록 ○ 만기요람 군정 4편 해방조
쌍성호 (雙城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동국여지승람 ○ 동국여지지 ○ 여지도서 ○ 양양부읍지 ○ 강원도양양군읍지
청초호 (青草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지지자료 ○ 대동지지 ○ 현산지(청초호 일명 쌍성호)

(각종 문헌상에 기록된 쌍성호(雙城湖), 쌍성호(雙成湖), 청초호(青草湖))

장엄한 설악산, 울산바위를 호수 속에 품은 아름다운 호수. 청초호!

청초호는 논뫼호, 술랑포(述郎浦), 속사호(東沙湖), 속호(束湖), 속진호(束津湖), 진성호(辰成湖), 쌍성호(雙城湖), 쌍성호(雙成湖)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다. 또한, 이 청초호는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이 지방을 유람하는 많은 선비들로 하여금 시를 쓰게 만들었으며, 때로는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 존재했었던 곳이다.

다시 한번 조선 후기의 학자 류휘문이 지은 『북유록』에 “청초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양양사람들 조차 모르더라”라는 문장이 다시 생각나는 시점이다.

‘청초호’라는 이름이 무슨 연유로 이름 지어졌는지 모르는데, 하물며 ‘쌍성호’라는 이름 또한 왜 지어졌는지 모르는 것이 당연한 얘기 아닌가?

하지만, 그 이유는 나라에서 지은 이름이기에……. 청초호를 지나간 선비들이 지은 이름이기에……. 양양백성들에게는 순수하게 ‘논뫼호’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

※ 참고자료. 부산일보 1917년 10월 17일 - 강원도 발섭기(跋涉記)전문

대포항에서 간성으로 / 특파원 이타모토미나미다케(板本南岳)

▲ 27일 오전 9시 대포를 떠나 간성으로 향하기로 했다. 본 신문 애독자로서 이 지역 부근의 일류상업가인 호소가와(細川)씨를 비롯 가토(加蘇), 사이레라소(西來路夫)를 비롯해 본 신문 애독자로 간성군 토성면 교암리(대포에서 3.5리 가리)에 살면서 해산물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오쿠다(奥田)씨가 찾아와서 출발전날 밤에 같이 합석했다.

출발에 앞서 위에 거명된 이들로부터 축하도 받고 이별주 의미로 맥주도 대접받고 함께 건배도 했다. 여러 사람의 환송을 받고 사슴 빛 말을 타고 간성으로 가기 위해 북쪽으로 계속해 올라갔다.

▲ 오쿠다(奥田)씨는 간성에 볼 일이 좀 있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갈 안내자 역할을 하며 함께 갔다. 오쿠

다씨는 자전거를 타고 나는 사슴 빛 말을 타고 초가을 얼굴에 스치는 신선한 바람을 즐기며 미완성의 이 등도로를 달렸다.

오쿠다씨가 마부가(馬子歌)를 씩씩하게 부르며 달려가는 걸 보니 우리 마부가 부르는 노래는 달리는 말에게 힘을 준다고 했는데 별 효과가 없는거 같았다. 마치 바보의 거짓노래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별 재미없는 시시한 소리로 들리고 마치 최면술에 걸린 듯 들어 말에게 전혀 자극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빈약한 마부가와는 달리 주변경치는 아주 좋다고 말할 수 있다.

각별히 강원도 산하의 아름다운 풍경을 접하는 일이 가능해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물결이 요동치는 해수면 저편에 나무하나 없는 작은 섬[조도를 말함]이 푸른 바다에 쌓여 있다. 물위에 떠 있는 모습이 정말 뭐라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오른쪽에는 고개를 돌리면 중첩된 산악의 흉부를 찌르는 창을 세워놓은 것 같은 바위산이 한층 더 솟아 있어 마치 하늘을 갈아놓은 듯한 모습을 보는 듯하다.

완만한 경사면은 웃이 흘러내리듯 서서히 열리고 끝자락에 5정(五町)정도의 사이를 두고 하나는 주위 2리(里)의 호수를 ‘좌천호(左川湖)’라 부르며, 또 하나는 속진호(束津湖)라고 부른다고 들었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 7년 을사(1425, 흥희 1) 4월26일 (을축) 기사
- 『연려실기술』 16권 산천의 형승中
- 『만기요람 군정4편 해방조
- 『신동국여지승람』
- 『동국여지지』
- 『여지도서』
- 『대동지지』
- 「양양부읍지」
- 「강원도 양양군읍지」
- 「조선지지」자료
- 「현산지」
- 성소복부고(惺所覆瓿稿)
- 속초면세일반(束草面勢一般)
- 『팔곡집(八谷集)』
- 《성재집(成齋集)》
- 『동유기(東遊記)』
- 송월제선생집(松月齋先生集)』
- 『북유록(北遊錄)』
- 계촌선생문집(溪村先生文集)』
- 「취제선생유고집」3-관동록
- 《허백당(虛白堂)》
- 부산일보(釜山日報) 1917년 10월 17일자 기사



이순재 作 · 청호동 시장 · Watercolor on paper



이희숙 作 · 청호동 '신다신' · Watercolor on paper

속초문화원 365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속초도시변천사 기록사업
문화시민학교 교육강좌 운영
향토사안내서 발간 사업
2021 속초문화원 공모사업
속초도문농요 전승 및 공연
2021 지방문화원 사랑방지원사업

2021 학교문화 예술교육
제56회 설악문화제 설악소사
2021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어르신문화활동지원
2021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활성화 지원사업
2021 속초문화원 발간책자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올해 청소년문화예술교육사업은 지역문화자원 활용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였다.

속초의 지역문화자원(역사와 문화 등)과 도서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우리문화의 소중함과 지역문화 정체성 함양을 위해 속초시다함께돌봄센터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여름방학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속초문화원 대표 문화예술강좌로 자리잡은 ‘영화야놀자’, ‘동화로 읽는 빨주노초파남보’를 운영하였다.

• 지역문화자원 활용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교육 기간 : 2021.8.~12.

향유기관	지도강사	수업횟수	향유인원	비고
속초시 다함께 돌봄센터	오성란	40회	445명	

• 여름방학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교육 기간 : 2021.8.9.~18.

프로그램명	지도강사	수업횟수	향유인원	비고
속초시 다함께 돌봄센터	양수진	8회	68명	
	오성란	8회	93명	
	계	16회	161명	



속초의 역사적 변천과 시민의 삶, 그 공간이 담고 있는 문화적 의미를 사진, 구술, 자료집 등으로 구현하여 속초의 역사와 문화를 온전히 기록하고자 도시변천사 기록사업을 시작하였다. 올해는 동명동·중앙동 사람들과 도시역사의 가치를 되새겨보기 위한 작업으로 『속초도시변천사Ⅱ, 동명동·중앙동』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속초도시변천사 기록사업

■ 속초도시변천사기록사업

- 기 간 : 2021년 4월~12월
- 집필진 :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김정환, 정종천, 한정규)
관내 고등학교 교사(최영택, 박명선)
- 자료집 발간 :

『속초도시변천사Ⅱ, 동명동·중앙동』(250부)



문화시민학교 교육강좌 운영

지역민들의 문화적 소양 향상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위해 문화시민학교 '서예, 흥사랑노래교실, 행복한노래교실, 민요, 라인댄스, 한지공예, 스케치로만나는속초, 잽베, 고고장구&퓨전난타, 드로잉, 사물, 웰빙라틴댄스, 춤추는시민신나는속초, 돈돌라리, 우쿨렐레, 천문학' 16개 강좌를 운영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문화학교 수료·전시·발표회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 문화시민학교 일정

교육 기간 : 2021.8.~12.

(단위 : 명)

강좌명	수업내용	강사명	수업장소	수업횟수	향유인원	비고
서예	한문 서예	이덕우	문화사랑방	26	130	
흥사랑노래교실	가요 및 트로트 등	최봉하	문화사랑방	26	389	
행복한노래교실	가요 및 트로트 등	홍철	문화사랑방	28	390	
민요	경기민요 등	김현섭	문화사랑방	26	112	
라인댄스	라인댄스 기초	이태림	문화사랑방	26	260	
한지공예	한지공예	이진향	문화사랑방	16	87	
스케치로만나는속초	생활예술미술수업	정봉재	문화사랑방	16	182	
젬베	젬베기초	이은영	속초도문농요전수관	16	67	
고고장구&퓨전난타	고고장구, 난타	한명옥	두두리연구원	26	212	
드로잉	드로잉 초급	정봉재	문화사랑방	16	100	
사물	사물악기(기초)	한명옥	두두리연구원	26	162	
웰빙라틴댄스	라틴댄스 기초	최덕성	속초시댄스 스포츠연구소	26	285	
춤추는시민신나는속초	댄스스포츠	이명우	속초시댄스 스포츠연구소	26	254	
돈돌라리	속초사자놀이 무용	김민희	속초예술종합교육원	26	308	
우쿨렐레	우쿨렐레 기초	이은미	문화사랑방	16	119	
천문학	별이야기	최원복	문화사랑방	15	58	
			합계	357	3,115	



향토사안내서 발간 사업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및 관내 중·고등 교사들과 함께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리 등 콘텐츠를 선정하여 중등 교사용 향토안내서로 제작, 관내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보급하여 지역향토문화 교육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들이 지역향토문화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 향토사 안내서

- 기 간 : 2021년 4월~12월
- 집필진 : 김정환 -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김동현, 신수은, 최종학 - 관내 중·고등학교 교사
- 내 용 :『중등 교사를 위한 속초 향토사 안내서』(200부)



속초문화원은 2021년 정부·기관 등에서 공모한 다양한 사업에 응모·선정되어 속초시의 예산절감, 일자리창출, 속초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2021 속초문화원 공모사업

사업 주최 기관	내용	사업기간
속초시 속초문화재단	속초 지명 역사성 및 정체성 정리 - 포럼 1회 - 결과집 50부	2021년 5월~12월
속초고등학교 문화예술공연	속초고등학교 1,2학년 대상 문화예술공연 1일/4회 - 관현악과 밴드 - 비트박스 - 관내 댄스팀 - 기타리스트	2021년 12월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속초를 중심으로한 설악권 화전민사 연구	2021년 6월~12월



속초도문농요 전승 및 공연

속초도문농요전수관 위탁관리

속초문화원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0호 속초도문농요의 지속적인 재현과 보존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속초시 상도문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속초도문농요 보존회는 연간 7회 총연습과 전승교육을 통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올해는 총연습 회수를 지난해에 비해 2회 추가하였으며 무형문화재 2차 공개공연에서는 마을 논에서 벼베기소리 및 손으로 벼베기 등 정겨운 농촌의 옛 모습을 재현하였다.

속초도문농요전수관은 도문농요 연습 및 공연 등 체계적인 전승활동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사업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2021년 생생문화재 및 워크숍 장소대관 등 지역의 문화활동의 장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 2021 속초도문농요 공연활동

공연 일시	내용	장소	관람객
2회	6월 05일	무형문화재 공개공연(1차)	시립박물관 야외 특설무대
3회	9월 23일	무형문화재 공개공연(2차)	상도문 마을 논

■ 2021 속초도문농요 연습 활동

- 일 시 : 1월 ~ 12월
- 연 습 : 소리연습 7회, 총연습 5회
- 장 소 : 속초도문농요전수관
- 참가자 : 속초도문농요보존회원 46명



문화강좌를 통해 문화적 소양 향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학교를 운영하였다. 올해 서예, 흥사랑 노래, 행복한 노래, 민요, 라인댄스, 무용, 한지, 스케치로 만나는 속초, 천문학 등 9개 강좌를 운영하였다.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로 문화복지 실현,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 습득 및 감상능력 제고, 코로나 19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문화학교 운영으로 그동안 갇혀있던 심신의 치유 및 삶의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2021 지방문화원 사랑방 지원 사업

■ 문화학교 운영

- 교육기간 : 2021.3.8.~7.31.

강좌명	수업내용	강사명	수업장소	수업횟수	향유인원	비고
서예	한문 서예	이덕우	문화사랑방	30	170	
흥사랑 노래	가요 및 트로트 등	최봉하	문화사랑방	30	559	
행복한 노래	가요 및 트로트 등	홍 철	문화사랑방	30	500	
민요	경기민요 등	김현섭	문화사랑방	30	175	
라인댄스	라인댄스 기초	이태림	문화사랑방	30	231	
무용	한국무용	김민희	문화사랑방	30	85	
한지	한지공예	이진향	문화사랑방	16	65	
스케치로 만나는 속초	생활예술미술수업	정봉재	문화사랑방	19	188	
천문학	별이야기	최원복	문화사랑방	19	93	
			계	234	2,066	



2021 학교문화 예술교육

지역 전통문화예술의 정착과 전수사업을 이끌어 내며 학교별 특성화 과목을 지정 운영하여 문화예술 과목의 편향성을 지양하고, 학교별 다양한 문화전수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일반 교과 수업에서 미치지 못하는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전통예술학습을 통해 자기 계발과 더불어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활동이다.

속초문화원은 초등학교 대상 전통문화교육사업인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을 2008년부터 주관하였다. 올해 관내 5개 초등학교에서 ‘대포초-국악관현악단’, ‘설악초-속초도문농요’, ‘온정초-속초도리원농악’, ‘소야초-소리극’, ‘청호초-속초사자놀이’ 같은 다양한 국악 장르를 초등학교와 연계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문화 감수성 향상과 지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데 많은 기여하였다.

■ 문화예술교육

- 교육기간 : 2021.3.~12.

학교명	담당교사	강좌명	지도 강사	수업 횟수	향유 인원	교육내용	비고
대포초등학교	오유미	국악관현악	박치영	32	1,184	합주, 지휘	
			최수미	32		타악, 모듬북	
설악초등학교	정범기	속초도문농요	김영순	33	693	속초도문농요 및 농사풀이	
온정초등학교	원영근	속초도리원농악	박치영	34	1,564	가락, 소고	
			정의효	34		상모, 무동	
소야초등학교	윤현령	소리극	김현섭	62	1,256	민요	
청호초등학교	신정인	속초사자놀이	김민희	32	210	무용	
			김현섭	32		민요	
			황승연	32		사자놀이	
			계	323	5,081		



온정초등학교



소야초등학교



청호초등학교



대포초등학교



설악초등학교

제56회 설악문화제 설악소사 (설악산신제)

지역의 대표 축제인 설악문화제 주요행사인 설악산신제를 통해 지역의 번영과 안녕을 빌며,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정신적 안정과 화합을 꾀하고자 속초문화원의 주관으로 10월 12일 오전 9시 산신맞이로 칠선녀 및 모듬북 공연으로 시작하여 제례위원들이 협력하여 속초시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 제56회 설악문화제 설악소사(설악산신제)
 - 기 간 : 2021년 10월 12일 09:00~11:00
 - 장 소 : 설악산 소공원 특설제단



『2021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어르신문화활동지원은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을 통해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지향하고 어르신 개개인의 즐거움과 작은 행복의 향유를 문화예술활동 참여로 마련하였다. 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에게 삶과 생활 속의 활력을 불어 넣으며, 더불어 활동을 통해 육체적 건강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된다.

『2021 어르신문화 프로그램』

어르신문화활동지원

■ 「2021 어르신문화프로그램」어르신문화활동지원

- 기 간 : 2021년 5월 ~ 11월
- 장 소 : 속초시댄스스포츠연맹
- 프로그램명 : 쉘 위 댄스?
- 내 용 : 댄스강좌(30회), 특강(4회), 공연(1회)



2021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사업

시민의 문화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보존 및 전승, 향토문화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다.

■ 다문화소통프로그램 ‘전통문화놀이 체험프로그램’

- 교육 기간 : 2021.3.~12.

프로그램명	지도강사	수업횟수	향유인원	비고	
전통문화놀이체험프로그램	최현주	9회	119명	전통놀이 우쿨렐레, 젬베	
	이지숙	9회			
	이은미	2회	40명		
	이은영	2회			
	계	22회	159명		



■ 2021 강원문화대축전 in 고성 참가

- 일시 : 2021.11.25.(목) 10:00
- 장소 : 강원 고성 실내체육관
- 내용 :
 - 참가인원 : 30명
 - 문화유공자 포상
 - 강원도지사 표창(예술강사 김현섭)
 - 강원도의회 의장 표창(예술강사 이명우)
 - 한국문화원연합회장 표창(향토사연구위원 최재도)
 - ‘스케치로 만나는 속초’ 강좌
 - 스케치 작품 10점 전시



■ 문화유적답사

- 일자 : 2021.11.24.(수)
- 인원 : 24명
- 장소 : 고성일대(통일전망대, 백섬전망대, 건봉사, 영랑호수윗길 등)



■ 2021 문화학교 수료 전시 발표회

- 2021.12.10.(금) 10:00 장소 :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인원 : 200여명
- 내용 :
 - 우수수강생 16명
 - 공연 10팀(우쿨렐레, 민요, 흥사랑노래교실, 라인, 행복한노래교실, 사물, 고고장구&난타, 돈돌라리, 춤추는시민신나는속초, 웰빙라틴)
 - 전시 6팀(스케치로만나는속초, 드로잉, 한지, 서예, 천문학, 젬베)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활성화 지원사업

속초지역의 역사와 스토리를 통해 문화의 가치를 더하고 기역 문화예술 활동가의 교류를 마련하여 문화상품으로 관광콘텐츠를 만들어 정보·교통과 더불어 제공을 통하여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 및 확대에 이바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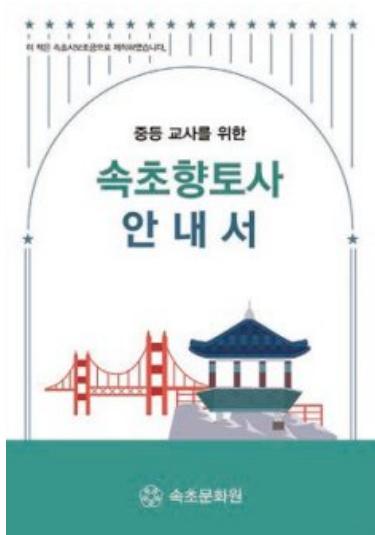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활성화 지원사업」

- 기 간 : 2020년 7월 ~ 2021년 7월
- 장 소 : 속초지역관내
- 프로그램명 : 드라마틱 속초만들기, 숲속마켓, 여행자카페
- 내 용
 - 드라마틱 속초만들기 : 상도문 돌담마을의 마을여행, 아바이마을의 문화자원, 갯배 스토리텔링 등으로 관광콘텐츠 개발 가능성을 볼 수 있음.
 - 숲속마켓 : 코로나 19를 대비한 언택트 관광상품이고, 외부의 전문인력이 아닌 지역의 셀러들이 참여해 문화체험과 마켓 운영으로 지역내 전문인력 발굴 및 활동의 계기가 됨.
 - 여행자카페 : 지역을 방문한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정보 제공 및 교환, 집 보관 공간 제공, 간단한 프로그램 운영, 쉼터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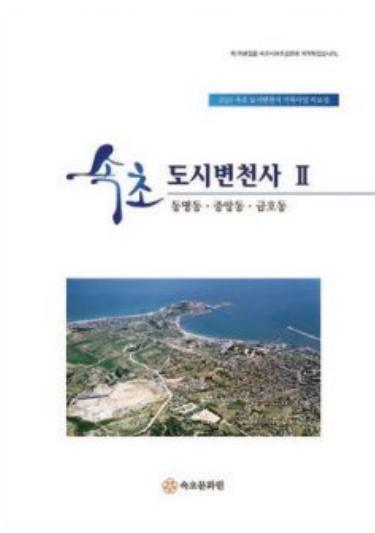
2021 속초문화원 발간책자



■ 「속초향토사 안내서」

- 발행일 : 2021년 12월
- 발행처 : 속초문화원
- 발행인 : 김계남
- 편집인 : 양용석
- 저자 : 김정환, 최종학, 신수은, 김동현
- 출판 : 엠제이디자인 주식회사
- ISBN : 979-11-977254-0-1

2021 향토사안내서는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및 중·고등 교사들과 함께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리 등 콘텐츠를 선정하여 중·고등학생 교사지도용으로 제작하여 발간하였다.



■ 「도시변천사 II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 발행일 : 2021년 12월
- 발행처 : 속초문화원
- 발행인 : 김계남
- 편집인 : 한정규
- 저자 : 김정환, 한정규, 정종천, 최영택, 박명선
- 출판 : 하늘공방
- ISBN : 979-11-96593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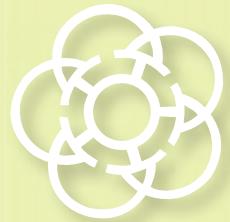
속초시 보조금으로 제작된 기록사업 자료집인 이책은 지난해 『속초도시변천사 I 영랑동·장사동』에 이어 「동명동·중앙동·금호동」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자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발간하였다.



신현숙 作 · 문화공간 돌담 · Watercolor on paper



김은경 作 · 동명동 펜션 '헤리티지' · Watercolor on paper



향토사연구위원 기고

- 2021년 속초문화재단 사업을 돌아보며
- 설악문화제 시민 사랑·화합 속
새롭게 발전하길

- 동해북부선 열차여, 이제 한없이 달려라!





2021년 속초문화재단 사업을 돌아보며

김 은 현 (속초문화재단 문예진흥팀 주임)

2020년 2월 속초문화재단이 출범한 이래 ‘문예진흥팀’은 문화정책연구개발과 지역문화정책 수립, 공모사업 기획 및 지원,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산하 ‘문화특화지역추진팀’을 두어 2019년부터 진행되었던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고, ‘공연사업팀’은 문화가 있는 날, 우수 레퍼토리 발굴 및 버스킹과 더불어 실향민문화축제와 설악문화제를 추진하면서 2021년도는 설립 초기인 2020년과 비교했을 때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문예진흥팀은 작년에 이어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연속 추진하였으며 <문화예술지원사업>과 <인문학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시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고, 강원문화재단·평창군문화예술재단과 함께 컨소시엄 기관으로 공동주관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지정·지원사업> 등의 공모사업도 운영하였다. 공연사업팀은 작년 코로나19

로 인하여 무산되었던 <실향민문화축제>와 속초시로부터 새로 위탁받은 <설악문화제>를 개최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 및 <우수 레퍼토리> 기획 사업을 통한 다양한 공연 및 전시를 발굴했고, 시민과 관광객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 버스킹>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축제의 경우, 축소 개최하는 대신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실향민문화축제>에서는 실향민의 역사와 애환을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 송출과 온라인을 통해 축제를 즐길 방안을 마련하였고 <설악문화제>에서는 축제의 정통성을 담은 제례를 개최하고 추억을 돌아켜 볼 수 있는 옛 사진 공모전을 통해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지역 축제의 역사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또한 두 축제 모두 포럼을 개최하여 지난 역사를 이론적·특수적 측면에서 되짚어보고, 온라인 중계를 통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 진행하며 시민 발제 참여를 통한 공론화장을 마련하여 앞으로 축제 발전 방향과 ‘위드 코로나’ 시대 축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진지한 고찰을 이어 나갔다.

그 외 공연의 경우, 코로나19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더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시도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을 함께 담은 비대면 영상 프로젝트 <가을데이트 ON YOU>와 우수 레퍼토리 사업으로 기획한 특별공연을 비롯하여 실향민의 향수가 남아 있는 속초에서 평화와 통합을 주제로 한 전시 <다시… 남향> 등을 진행하며 시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재단에서 진행하였던 사업 중 2021년 문예진 흥팀에서 처음 진행한 <문화예술지원사업>과 <인문학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추후 방향성과 계획을 논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지원사업

2021년 속초문화재단은 창립 이래 처음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한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총 3개의 하위 사업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이며, 두 번째는 시민의 생활예술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생활예술지원사업”, 마지막으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다. 이 중 “생활예술지원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속초시 위탁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은 속초에서 처음으



로 시행한 지원사업으로, 속초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되었다.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단체로서의 인정 범위는 강원문화재단을 비롯한 타 지역의 문화재단마다 각 기준이 있다. 속초문화재단의 경우, 첫 번째 강원도 지정의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인정을 받은 경우, 두 번째 전문예술인이 80% 이상 정회원인 경우와 그 외 심의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단체 등을 기준으로 두어 문화예술단체로서 인정하였으며, 최근 3년간 2회 이상 단독 주관으로서의 실적이 반드시 있는 경우에만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 시장인 2021년에는 총 13개의 문화예술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분야 또한 문학, 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를 선정하였다. 일례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명성을 쌓은 국악단체 “갯마당”을 비롯하여 속초의 대표 시인 故 이성선 시인을 추모하며 문학과 예술성에 대해 논한 “설악문화예술포럼”的 포럼과 영랑

호와 청초호를 배경으로 클래식 음악을 선사한 “뮤직인” 등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각계 단체들이 전시와 공연, 문학 포럼 등 다양한 사업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생활예술지원사업의 경우,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와 생활예술동아리의 활동 지원을 진행하였으며, 이전의 생활예술지원사업과 비교했을 때 특이점은, 신규 단체 지원을 위한 항목을 신설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활동 기회 확대와 신규 단체의 기반 마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기존 단체와 신규 단체 지원 시 기존 단체는 300만원, 신규 단체는 2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여 기존 단체에 우대 사항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신규 단체는 최근 1년 이내 단체등록을 한 경우를 기준으로 두었으며, 선정 결과는 21년 선정된 15개 단체 중 신규 5단체가 포함되었다.

올해 선정된 단체의 면모를 살펴보면, 25회 째 정기 회원전을 개최한 “속초서우회”부터 문학 분야의 “설악시낭송회 풀니음”, 시각예술분야이자 지역의 경관을 스케치로 담은 작품을 담는 신규단체 “어반스케쳐스 속초” 등이 있으며, 새로운 기준을 신설한 생활예술지원사업을 통해 시민이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가 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으며, 실제 생활 예술지원사업 신청 당시 속초에서 활동하는 많은 신규 단체들이 지원하였기에 이번 지원사업의 기준과 관련하여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2022년에도 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진행될 예정으로 속초문화재단에서는 신규단체 발굴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예술지원사업 끝으로 “찾아가는 문화활



동 지원사업(이하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곳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공연 및 체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공연을 접하기 힘든 곳을 찾아가 시민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위 두 사업과 달리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속초시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 외에도 도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지원할 수 있기에 지원 시에도 가장 많은 신청서가 접수된 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도내 문화예술단체가 가장 많은 춘천과 원주 등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많이 접수되었으며, 활동 단체 또한 상당한 경력을 갖춘 곳이 많았기에 실제 심사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도 하였다. 선정 단체는 총 9개 단체로 속초에서 활동하는 단체 외 춘천, 강릉, 홍천에 기반을 둔 단체들도 포함되어 지역에서 접근이 쉬운 작품 외에도 속초에 아직 선보이지 않은 새로운 공연을 선보일 수 있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경우 작년에 20년에 이어 계속된 코로나19 상황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업으로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공연을 펼쳐야 하다 보니 공연 단체들이 장소 섭외 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부디 2022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많은 이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공연 및 체험활동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2022년 “속초문화예술지원사업”은 2021년 사업보다 더욱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문화예술단체”와 더불어서 문화예술분야 특화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을 신설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기반의 예술가를 발굴 및 양성하며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 지역 예술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을 모집하여 사업 진행에 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원사업 결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반영과 체계가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21년에도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평가가 이루어졌으나, 22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사업의 투명한 진행과 효율적인 지원제도를 확립하고자 한다. 모니터링은 사업의 성격에 맞게 실시하여 각각의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충실히 진행되었는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지원사업 자체의 역량 또한 강화하는 방안으로 마련하였다.

문화예술지원사업의 경우 속초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일 사업을 운영하는 문화재단에서 매해 각 지역의 문화예술 특색과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지원사업의 기준과 성격이 변하고 있다. 속초문화재단 또한 지역의 특색과 시대의 흐름에 맞춰 계속해서 문화예술지원사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이 계속해서 창작활동을 이어나가고 한편으로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문화활동에 참여

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속초의 문화적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인문학프로그램

속초문화재단에서는 2021년 처음으로 인문학프로그램을 4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인문학프로그램”이기에 약간의 차별점을 두어 진행하였는데, 기존의 단순 인문학 강연 형태에서 벗어나 문화예술과 연계된 인문학프로그램을 우선 기획하여, 강연과 문화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21년 인문학프로그램은 한 강연에 4~6회차로 진행되는 4번의 프로그램과 연말 특강의 형식으로 분야별 명사를 초청하여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그 면모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인문학프로그램은 <교양으로 보는 정원인문학>으로 가든 디자이너로 전국적인 명성과 인지도를 얻고 있는 속초의 정원학교 “오경아 대표”와 함께 진행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원에 대한 방법론을 넘어 정원학으로서 정원의 역사와 가치, 그리고 이를 대하는 자세와 기초적인 조경지식까지 망라하여 다루었다. 마지막에는 오경아 대표가 직접 준비한 식물을 참여자들이 화분에 심어보는 시간을 가지며, 이론을 넘어 실제 경험의 이루어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써 6회차라는 긴 수강 기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출석률과 함께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은 강의로 기록되었다.

두 번째 인문학프로그램은 <쉽게 듣는 건축 이야기>로 인문학적 시선에서 건축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건축에 대한 기본적



인 이론 교육과 더불어 건축과 관련한 여러 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이면을 알아가는 강연을 진행하였다. 시대적으로 변화를 겪어온 건축의 역사와 건축 자재·사진 등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며 실제적인 건축의 모습과 이와 연계된 문화예술 분야를 망라한 건축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었다. 이 강연 또한 마지막 회 차 시 영랑동 일대를 함께 거닐며, 명신중학교 터와 동명동 성당 등지를 살펴보면서 공간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역사와 숨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투어를 진행하여 건축학적 시선에서 속초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프로그램인 <화음: 그림을 듣다, 음악을 보다>는 미술과 음악을 결합한 “인문예술 융합프로그램”으로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약 2주간 19세기 인상주의 시대 대표 화가들인 르누아르, 모네, 드가의 레플리카 작품 전시와 동시대 인상주의 작곡가의 음악 감상과 도슨트를 함께 곁들인 렉처콘서트를 진행하였다. 렉

플리카 작품은 그림이나 조각의 원작을 엄격한 감독하에 복제한 작품을 의미하며 단순한 모사나 인쇄기술에 의한 복제와는 구별하여, 명작을 최대한 원작과 같은 기술과 형태로 제작되어 더욱 가깝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적 측면에서 만든 작품이다. 그 당시 활동하였던 19세기 인상주의 작곡가들의 음악을 감상하고 전시 작품의 도슨트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미술과 음악을 한 번에 다룬 인문예술융합프로그램으로 교육적·예술적 의도를 모두 담아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예술강좌와 음악회가 결합한 형태로 지역에서는 자주 볼 수 없었던 형식의 프로그램이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던 강연 중의 하나였으며, 단순히 감상뿐만 아니라 융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19세기 인상주의를 느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정기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속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연극을 다룬 <세상을 비추는 거울, 희곡 그리고 연극>으로, 타 예술 분야와는 다른 연극과 희곡의 특성을 이해하며 그



특징과 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진행되었다. 또한, 현재 연출가이자 극작가로서 활동하는 “극단 산의 윤정환 대표”를 강연자로 초청하여 실제 연극을 연출할 시 희곡을 대하는 자세와 더불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에서 살피는 시간을 가졌으며, 작가가 집필한 작품을 함께 낭독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통해 연극 예술에 대한 감각적인 수용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극을 단순히 감상하는 것을 넘어 참여자들이 직접 소리 내 읽어보고 창작자의 시선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흔치 않은 강연이었다.

인문학프로그램은 각 프로그램별 4~6회차 진행 및 전시 진행으로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회차별 주제 연결을 통해 깊이 있는 강좌를 도모하였는데, 지속적인 참여가 어렵고 인문학 강연이 낯선 시민을 위하여 마지막은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여 보다 편안하게 강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강은 “클래식”과 “영화”를 소재로 총 2회 차 진행되어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없던 명사 초청 강연으로, 음악 칼럼니스트 이자 동아일보 문화부 전문기자인 “유윤종 기자”와 다큐멘터리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진모영 영화감독”을 초빙하여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리로 기획하였다.

2022년에도 속초문화재단만의 인문학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과 연계한 인문학을 선보이고자 한다.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주제를 다양도로 다루며 인문학과 문화예술 함께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꾸준히 만들고자 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어 소규모 형태로 진행되었던 2021년 인문학프로그램과 달리, 2022년에는 일상 회복과 함께 더 많은 시민들이 인문학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속초문화재단은 2020년 2월 출범한 이래, 이제 설립 3년 차를 맞이한다. 두 해를 지나며 문화재단은 앞서 설명한 “속초문화예술지원사업”과 “인문학프로그램” 외에도 온·오프라인을 적극 활용한 하이브리드형 축제 등을 개최하며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춰 대면과 비대면이 이루어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축소하여 현장을 찾는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지만 온라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아카이빙 및 자료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는 첫 시도로 시민의 일상 생활과 밀착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모두가 처음 맞이하는 새로운 일상의 변화 속에 어느 때보다 문화예술계 현장의 소리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앞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다.

속초문화



‘제56회 설악문화제 축제포럼’ 주요 내용
‘설악문화제 발전 및 위드 코로나 시대 축제 실행 방안 모색’

“설악문화제 시민 사랑·화합 속 새롭게 발전하길”

장재환

(설악신문 편집국장.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2021년 제56회 설악문화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해 대폭 축소돼 ‘설악소사(산신제)’와 ‘축제포럼’, ‘설악문화제 옛 사진 공모전’만 진행 됐다.

제56회 설악문화제 ‘축제포럼’은 지난해 10월 12일 마레몬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설악문화제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속초시가 주최하고 속초문화재단과 설악신문사가 공동 주관한 축제포럼에서는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반세기가 넘은 설악문화제의 변천사를 짚어보고 진단과 평가를 통해 축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으며, 아울러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축제를 실행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포럼은 사전행사에 이어 장재환 설악신문 편집국장을 좌장으로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에 이어 주제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온라인 줌 참여자 제안, 질의 응답 및 정리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정종천 속초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제1주제 ‘1966년~2019년 설악문화제 변천사’에 대해, 채용식 송호대 관광(대명)리조트과 교수가 제2주제 ‘설악문화제 진단 및 평가, 발전 방안 모색’에 대해, 신현식 디자이너가 제3주제 ‘코

로나 시대, 지역축제 실행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최재도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조명수 전 속초축제위원회 이사, 황운기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총감독, 고영진 설악신문사 대표가 토론을 벌였다.

이날 현장 포럼에는 김철수 속초시장, 신선의 속초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주민자치위원, 통장,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 인원이 50인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문화예술관계자와 시민들이 온라인 줌으로도 참여해 포럼을 지켜보고 의견도 제시했다. 온라인 줌으로 참여한 양용석 속초문화원 사무국장과 최문경 감자여행 사무국장이 시민제안을 발표했다.

축제포럼은 속초시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제1주제 ‘1966년~2019년 설악문화제 변천사’(정종천 속초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정종천 속초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설악문화제는 올해로 56회를 맞이하는 속초를 대표하는 향토문화축제이다. 1966년 최초 개최 이래 56년간 설악문화제(29회까지는 설악제)는 설악산 일원, 공설운동장, 동명항 항만매립지, 청초호 상설이벤트장, 로데오거리 등으로 주행사장을 옮겨가면서 개최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주행사장의 이동이 아니라 설악문화제 성격의 변화와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총속초시지부, 설악산악회, 속초시, 속초문화원, 설악문화제위원회, 속초축제위원회 등 설악문화제의 추진 주체에 따라서도 축제의 성격은 변화가 있었으며, 저마다 설악문화제를 통해 설악산의 홍보, 지역주민의 화합, 속초 문화예술의 활성화, 관광객의 유치 등의 목적을 추구하였다”고 설명했다.

정 학예연구사는 1966년 최초 개최를 주도한 최구현 선생(당시 속초예총 지부장)의 “평생을 설악산 개발과 홍보에 몸 밭쳤지만 관광객 확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설악산의 홍보를 위해 문화행사 위주의 설악제를 기획하게 되었고”라는 개막식 연설문과, 이기섭 박사가 결성한 설악산악회가 설악제에 참여하고 산악인의 무사고를 비는 제전행사와 전국규모의 등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게 됐다는 사실을 토대로 설악제는 “설악산 홍보를 위한 지역 예술인의 잔치이자, 관광지 설악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세상에 알리려는 설악산 등반대회를 목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 장정룡 교수에 의해 설악제는 그 역사성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삼산(三山) 오악(五岳) 이하 명산천(名山川)을 나누어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를 지냈으며, 그 중 설악산에서 소사(小祀)를 지냈다고 하여, “그 동안 산신제 성격을 지니고 행해지고 있는 설악제는 산천에 제사하고 지방안녕(地方安寧)과 행로안전(行路安全)을 기원하는 행사(行事)로 이미 신라(新羅) 때부터 산악지방(山岳地方)에서 행해졌던 산악제례의식(山岳祭禮儀式)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다”고 했다.

정 학예연구사는 설악문화제의 변천과정을 △최초 설악제의 개최와 등산대회의 성황 △초창기 설악제 운영 주체의 변화 △주민화합축제로의 변화 △‘설악제’에서 ‘설악문화제’로 명칭의 변경 △산악문화와 거리문화 중심으로 변화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1966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설악산 일대(특설무대와 신흥사)에서 개최된 제1회 설악제는 예총강원도지부에서 주최하고 예총속초시지부에서 주관하였으며, 설악산악회와 한국일보사가 협찬하였다. 문화예술행사를 비롯 해서 주요 행사는 예총속초시지부가 맡아 진행하였는데, 전야제를 시작으로 설악산 사진공모전, 사진촬영대회, 사생대회, 등산대회 등 13개 행사를 개최했다.

정 학예연구사는 “제1회 설악제는 문화예술적 성격의 축제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속초시에서는 제4회 설악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이 때부터 문화예술행사는 대폭 축소되고 산악행사가 주축으로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등산대회는 승승장구해 ‘설악제’ 하면 곧 ‘설악산 등산대회’라 말 할 수 있는 설악제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 잡게 되고, 나아가 설악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악축제로 안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후 축제의 변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제19회 설악제는 속초시민의 날(10월 2일) 행사와 통합하여 본격적인 시민 체육대회와 함께 개최되었고, 초창기 등산대회 참가 산악인의 시가행진이 크게 관심을 받았으나, 이제부터는 시민이 참여한 가장 행렬단 거리행진으로 대 표하는 시민참여축제가 되면서 설악제 개막식 또한 설악산이 아닌 공설운동장에서 갖게 되었다.”

“지난 1995년 제30회 때 ‘설악제’를 ‘설악문화제’로 이름을 바꾸고, 제31회 설악문화제는 동명항 항만매립지로 주행사장을 옮기고, 설악대제, 설악산악제전, 통일염원제전, 설악예술축전, 해양문화제전, 향토민속축전, 거리문화축 전으로 구분하여 개최함으로써 향토문화축제의 완성된 면모를 갖추게 되었 다.”

“설악문화제는 2006년 4월 20일 ‘설악문화제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제안한 근거를 들어 설악산예술제, 실향민문화제, 해양문화제 등 3가지로 통폐합하고 축제의 정체성과 차별화를 부각시켜 제41회 설악문화제를 청초호유원지, 설악산 외에 중앙시장, 외옹치 해수욕장으로 행사장을 확대하여 개최함으로써 전국적인 특화축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46회 설악문화제는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민한마당과 거리페스 티벌 행사를 모두 설악로데오거리에서 개최하면서 산악페스티벌과 거리페스 티벌로 나누어 2주간 4일에 걸쳐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 시민과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축제로 정착하게 되었으며, 설악로데오거리에 설악문화제 주무대(主舞臺)를 중심으로 2018년 제53회 설악문화제까지 개최 되었다.”

정 학예연구사는 “2019년 제54회 설악문화제와 2020년 제55회 설악문화제 는, 대표 콘텐츠의 부재 등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발전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축제 개최 예산을 대폭 삭감 당하는 처지에 몰리고,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우려 및 사단법인 축제위원회의 내부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2020년 제55회 설악문화제는 개최하지 못하고 2021년 축제위원회도 해 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55년을 지나오면서 설악문화제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설악산과 도시 모습도 크게 변했으며, 시민들도 속초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인식도 많

이 깊어졌다. 향토의 역사와 민속, 문화 그리고 예술을 집대성한 설악문화제가 다시금 시민들의 사랑과 화합 속에 새롭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주제 ‘설악문화제 진단 및 평가, 발전 방안 모색’(채용식 송호대 교수)

채용식 송호대 교수는 “코로나 이후, 축제분야 트렌드가 전통적 대면 서비스에서 비대면 서비스화로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주의 성향 및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트렌드가 뉴노멀로 정착하고 있다”고 했다.

채 교수는 설악문화제를 진단 평가하면서 먼저 △왜 설악문화제를 개최해야 하는가(비전, 존재의 이유, 가치관 등)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왜의 결과로 나온 제품이나 서비스, 설악문화제) △어떻게 할 것인가(왜를 실현하기 위한 비즈니스모델 등)를 통해 설악문화제 개최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떤 축제를 지향할 것인지 축제의 정체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설악문화제는 주민화합형과 관광이벤트, 지역향토문화예술이 혼합돼 있는 축제”라며 “축제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채 교수는 설악문화제가 속초를 대표하는 아이템인지, 대표콘텐츠가 무엇인지, 축제의 본질인 지역성+역사성+문화성+향토성을 어떻게 녹여낼지, 수요

자 중심의 축제인지 등을 고민하고, 장소를 분산형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축제조직의 전문성 확보와 설악산, 동해바다 등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주민 참여도 등을 강조했다. 특히, 주민 참여와 관련해 “왜 동참하고 함께 즐겨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전달과 설득, 축제 개최와 지역발전의 밑거름인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의식과 주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했다.

채 교수는 설악문화제의 발전 방안에 대해 “코로나19와 디지털시대를 극복 할 수 있는 지역축제기구 개편(속초문화재단 설립 및 개편)과 전문인력 충원으로 하이브리드형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추진돼야 하고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관광여행패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속초문화재단의 속초문화관광재단으로의 명칭 변경과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채 교수는 “설악문화제는 50년 이상 지역의 고유성과 개성을 담아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되어 온 소중한 자원이자 상품”이라며 “전통적인 축제 아이템을 현대적 요소와 융복합해 차별화된 퓨전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제3주제 ‘코로나 시대, 지역축제의 실행 방안’(신현식 축제 디자이너)

신현식 축제 디자이너(문화관광컨설팅 감성피아 대표)는 “축제는 인간과 사회가 시대적 결핍을 놀이를 통해 문화적으로 표출하려는 욕구와 의지가 본질이다”며 “현재 축제는 3.0축제로 전환하는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고 진단했다.



신 대표는 ‘코로나 시대, 지역축제의 실행 방안’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융합하는 ‘초월성 축제’(3.0)를 제안했다.

그는 축제 공간과 운영의 진화를 △코로나19 이전 ‘오프라인축제’ △코로나19 발생 2020년 ‘온라인축제’ △백신 접종 2021년 ‘하이브리드축제’ △위드 코로나 시대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초월성축제’로 구분해 설명했다.

하이브리드축제 개념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축제 + 온라인 축제로 위기의 러다임 속에서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는 결합 축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시대에서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것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하이브리드 축제를 지나 미래 궁극적으로 전 기차로 가듯이 현실축제장과 가상축제장을 오가는 초월성 축제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월성 축제는 오프라인 축제장과 온라인 메타버스 축제장을 동시에 구축해 융합함으로써 축제의 지속 가능화, 일상화, 디지털 콘텐츠화, 글로벌 브랜드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설악문화제도 온라인을 임시 공간으로 구분해 사용하지 말고 오프라인과 융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초월성 축제로의 전환은 로컬의 새로운 정신을 창조하며, 창조성을 기반으로 로컬을 재구성해 글로벌로 진출시키는 기존 축제 가치의 혁신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새로운 운영”이라고 밝혔다.

■지정·종합토론

지정토론에서 최재도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은 “설악문화제가 자생적 문화예술행사에서 관제행사, 종합 향토문화행사를 거쳐 이벤트성 관광행사로 열리면서 축제의 기본개념에서 다소 멀어졌으나, 이 또한 시대의 흐름이니 또 다른 도약을 위해 세상 흐름을 면밀히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

최 향토사연구위원은 “오늘날의 지역 축제는 주민들의 유희 욕구를 해소하거나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는 데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확보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 그렇기에 ‘주민들이 얼마나 즐겼느냐’보다는, ‘외지 관광객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성패의 판단 요인이 된다”고 짚었다. 하지만 “브라질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춤을 추며 일탈과 유희를 즐기고, 뮌헨 사람들은 축제날 자신들이 먼저 취한다.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이 우선 즐겨야 하고, 그 흥겨움으로 외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면서 “주민 일체감 조성’이나 ‘공동체 결속감 고취’라는 최소한의 기본 이념마저 잃게 된다면, 우리의 향토축제에서 제(祭)는 사라지고 축(祝)만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토론 앞부분에서 “축제(祝祭)는 ‘축전(祝典)’과 ‘제전(祭典)’을 합친 말이다. 축전은 ‘축하를 위한 잔치’고 제전은 ‘제례를 위한 의식’이다”고 설명했다.

조명수 전 속초축제위원회 이사는 “설악문화제가 올바른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최근의 속초 관광환경 변화에 주목해 축제 방향성을 찾고 신규축제 개발 또는 축제 콘텐츠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나 희망적인 것은 최근에 다른 시·군과 달리 젊은층의 관광객 유입이 늘고 유명한 카페, 책방, 조선소, 게스트하우스 등 민간에 의해서 다양한 볼거리들이 생겨나 이제 속초시의 관광매력은 설악산만이 아닌 도시관광이라는 새로운 테마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이사는 “설악문화제는 설악산이라는 핵심 소재를 산악페스티벌을 통해 풀어내지만 이 행사 자체가 축제성이 결여되어 있고, 산악 페스티벌과 거리 도심축제를 동시에 하는 것은 축제의 소재 및 프로그램에 있어 이질성이 있으며, 시대가 변한 현대에 우리의 역사와 향수는 이해하지만 관광축제로서 설악문화제의 성장과 발전에는 장애 요소라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그나마 설악문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거리퍼레이드가 자리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설악문화제 행사 중 산신제와 산악페스티벌은 주민화합한마당을 뮤어 그대로 설악문화제 행사로 개최하고, 거리페스티벌은 분리해서 먹거리와 음식문화를 주제로 한 새로운 명칭의 도시형관광축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운기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총연출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축제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일인 만큼 과거로 대부분 돌아간다’ VS ‘팬데믹을 경험한 축제는 기존방식을 벗어나 온라인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방식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양분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감기처럼 되면 전국의 축제들이 다시 예전처럼 복귀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팬데믹을 경험한 인류는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는 팬데믹을 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형태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축제를 지향하되 언제나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여 축제를 기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하이브리드 축제’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황 연출은 “현재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이브리드 축제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하이브리드 축제는 온라인과 가상공간의 축제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대체축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인간본성의 자유와 해방 창구로 사용되었던 축제는 다양한 문화의 집합체이다. 이러한 다양함이 온라인과 가상공간에 갇힐 수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황 연출은 “하이브리드형 축제로 개최할 때 온라인을 단순히 오프라인의 대체 수단로만 봐야 하느냐”며 “코로나 시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전통축제, 하이브리드형 축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가상공간의 융합축제 등 다양하게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영진 설악신문사 대표는 종합토론에서 “내년부터 매년 축제포럼을 열어 당해 연도 설악문화제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설악문화제 발전 방향과 관련해 “설악문화제 55년의 역사를 이어 오면서 이미 왜 축제를 하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행해 왔다”며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왜 축제를 개최해야 하는지 고민 없이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역경제를 위해 무분별하게 축제를 열다 보니 정체성이 다 비슷하다. 우리 속초는 자연 환경이 좋아 올 사람들은 다

온다. 이제는 분산해서 계절적으로 축제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하이브리드형 축제는 여러 장점을 섞은 것이라고 본다”며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만나 온기를 즐기는 축제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 줌 시민 제안

온라인 줌 시민 제안에서 양용석 속초문화원 사무국장은 “5월의 시민의 날 행사 정체성과 설악문화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콘텐츠를 다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제례행사인 설악소사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제례의 완성도와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청소년을 축제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문경 감자여행 사무국장 “관광업 종사자 입장에서 축제가 관광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며 “여행의 일상화로 여행의 패턴이 바뀌는데, 이는 축제의 일상화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행과 관광에서 거점 공간 또는 장소가 중요한데, 일상적인 장소에 있는 콘텐츠를 시기별로 테마로 엮어서 그 일상적 장소를 특별한 일상으로 만드는 일상의 축제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속초문화**

팬데믹에서 지속가능한 삶

이수영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개인운동이 대세다.

워크온 앱을 통한 비대면 걷기와 주말 제한된 인원을 모집해 걷는「속초사잇길 주말걷기」는 우리 속초는 물론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완보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주말을 이용해 속초사잇길 10개 코스를 완보하는 분들이 시나브로 늘고 있지만 여전히 속초사잇길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속초사잇길 제5길(속초해변길) 바다향기로 모습

요즘 퇴직 후 무기력하게 집에 있어 대화 상대도 없이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의원을 출입하던 70대 노령층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초·중학교 인근을 순찰하며 일행들과 대화도 나누고 건강도 챙기는 일에 무척 만족해하고 있다고 한다. 한 달에 10일~15일 남짓 하루 2시간 정도 순찰하고 받는 수당이 2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실버들을 즐겁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과의 소통과 걷기를 통한 건강증진이라고 입을 모은다. 규칙적인 걷기를 통해 잔병이 사라지고 자주 찾던 병·의원 출입이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초기 암 등을 치료한 후 허약했던 몸이 「속초사잇길 걷기」로 점차 회복되는 체험을 하는 이들의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이렇듯 「속초사잇길 걷기」는 속초시민들에게 건강과 즐거움이란 두 가지 영양제를 주고 있다.

2021년도 「걷기」 운영 실태

○ 속초시보건소 「즐거운 발걸음 챌린지」 진행

올핸 참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 처음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두 달에 한 번씩 속초시보건소와 함께 워크-온 앱으로 비대면 「즐거운 발걸음 챌린지」를 진행했다.



4월 챌린지 웹-카드 모습



6월 챌린지 웹-카드 모습

「호자 걸어도 즐거운 발걸음 4월 챌린지」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 기간 내에 속초사잇길 10개 코스 중 자기가 거처하는 곳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 코스를 5회 이상 걸어 완보한 선착순 200명에게 건강용품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결국 총 264명이 참여해 속초사잇길 1개 코스를 5회 이상 달성한 사람이 88명에 불과했다.

워크-온 앱 <속초사잇길 걷기> 커뮤니티에서 GPS로 실적이 파악되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집근처 사잇길 접근에 애로를 겪은 것 같다는 자체분석에 따라 6월 챌린지 부터는 15일 운영 기간 내 10만보를 달성하면 속초시보건소의 건강용품을 선착순 200명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방식을 바꿨다.



10월 챌린지 웹-카드 모습

그 결과,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 진행한 「6월 혼자 걸어도 즐거운 1510 발걸음 챌린지」에 총 374명이 참여해 10만보를 달성한



12월 챌린지 웹-카드 모습

사람이 199명이었다. 8월 「가을을 부르는 즐거운 발걸음 챌린지」가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돼 총 272명이 도전, 10만보를 달성한 사람이 164명이었다.

「시월에 걷는 1510 즐거운 발걸음 챌린지」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려 참여자 300여명 중 181명이 10만보를 달성해 건강용품을 받았다.

올해 마지막 걷기 챌린지인 「12월 즐거운 발걸음 챌린지」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진행돼 참가자 총 390여명 중 262명이 10만보를 달성해 선착순으로 쿠폰을 받은 200명에게 건강용품(장갑)을 제공하고 나머지 62명에겐 개인 휴대용 소화기를 증정했다.

올해 5회 실시에 2천여명이 참여했고 회를 거듭할수록 참여자가 크게 늘어 내년부터 상품 수혜자 수를 늘릴 예정이다.

◎「걸어서 학교 가자 챌린지」운영



<걸어서 학교가자> 챌린지 앱 모습

「걸어서 학교 가자 챌린지」 역시 올해 처음 운영했다. 1년 중 가장 걷기 좋은 계절인 10월 한 달만이라도 관내 학생들이 걸어서 등하교하도록 해보자는 취지에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관내 초·중학교에 참여희망 반 모집 공문을 보낸 결과, 교동초등학교 1개 반, 청대초등학교 1개 반, 속초중학교 5개 반, 설악중학교 9개 반, 설온 중학교 9개 반, 해랑중학교 14개 반 등 총 39개반 1024명이 참여했다.

워크온에 「걸어서 학교가자」란 앱을 설치해 학생들이 직접 가입 신청을 하고 걸어 반별 평균걸음 수에 의한 성적에 따라 단체상 순위를 정했고, 상위 기록 5명에겐 개인상을 시상했다.

예년에 비해, 비도 잦았고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는 반도 있

었으며 대체 휴일까지 껴있어 등하교 일수가 좀 적었다. 또 초반 너무 과열된 나머지 한명이 하루 10만보 이상을 찍는 기현상이 벌어져 결국, 고육지책으로 10월6일부터 1인당 하루 1만보까지만 허용했다.

참가한 학생이나 담임교사 대부분은 「걸어서 학교가자」 챌린지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내년엔 시상금도 높이고 많은 학교에서 참여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속초사잇길 걷기반 및 노르딕워킹반」 운영

「속초사잇길 걷기」엔 아카데미 및 심화교육을 수료한 안내자들이 운영하는 걷기반과 노르딕워킹반이 있다. 2021년도엔 예년보다 빠른 1월 25일 개강해 6월 19일까지 운영했다.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일자리 사회공헌사업」으로 속초사잇길 안내자 13명이 매주 월~금 하루 6시간씩 운영, 총 3천여명의 시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속초사잇길 <걷기 반> 모습



속초사잇길 <노르딕워킹 반> 모습

수도권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사잇길 안내원 배치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속초시의회는 「속초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월 5일 제정·공포해 그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자원봉사 개념의 활동비 지급으로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서였다.

속초사잇길 안내자의 배치·활용·관리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준용했고 결국 2022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예산 3천5백만원이 반영되었다.

일단 2022년엔 속초사잇길 10개 길에 안내자 6명을 순환 배치하고 1인당 월 10일~15일씩 근무하면서 1일 6만원(안내활동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 보전)의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가능하면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예약관리시스템을 공유하고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도 안내자와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특히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속초사잇길 안내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지속가능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속초의 역사·문화·자연·생태환경 등이 연계된 속초사잇길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 관광 속초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데 그 의미를 들 수 있다.

◎ 속초사잇길 주말 걷기 진행

속초사잇길 주말 걷기가 4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2회 주말 오전 10시에 지정된 사잇길 코스에서 열렸다. 공개모집을 통한 걷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인원 제한을 고려해 1회 평균 30여명이 10개 길을 걸었다.

첫 주는 주말 걷기 형식이었고 두 번째 주는 플로깅으로 진행했다. 특히 주말에 관광객들로 붐비는 속초해변 등 집객 장소에서 걸으면서 집중적으로 쓰레기 줍기 활동을 벌여 플로깅 확산에 이바지하였다.

주말 걷기 실시일은 4월 17일과 4월 24일(지구의 날 행사 주간 병행), 5월 22일과 5월 29일, 6월 5일과 6월 19일(환경의 날 행사 주간 병행), 7월 3일(하계휴가로 1회만 실시), 8월 21일과 8월 28일, 9월 4일과 9월 11일, 10월 23일과 10

월 30일이었다.

특히 지구의 날, 환경의 날, 162일 챌린지, 즐거운 발걸음 챌린지 등과 연계해 주말 걷기에 참가하면 속초사잇길 걷기 인증이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참여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 「속초사잇길 걷기 162일 챌린지」 운영

「속초사잇길 걷기 162일 챌린지」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고 시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하며 우리 고장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체감하는 동시에 삶의 현장을 찾아 속초의 역사·문화 체득과 애향심 고취,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광진흥에 이바지한다.

속초시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속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 및 주관하고 NH농협



속초사잇길 <주말 걷기> 모습



속초사잇길 162일 걷기 모습(영랑호길)



속초사잇길 <주말 걷기> 일환의 플로깅 모습



속초사잇길 162일 걷기 모습(아바이마을길 유정충 선장 동상)

은행 속초시지부와 속초농협이 후원하는 「속초사잇길 걷기 162일 챌린지」는 5월 22일(토)부터 10월 30일(토)까지 장장 162일간 속초사잇길 10개 길에서 관내 학생, 학부모, 시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열렸다.

워크-온 커뮤니티 <속초사잇길 걷기> 앱에 가입 후 참여해 속초사잇길 1길에서 10길까지 각 길마다 1회씩 총 160회 반복하고 10개 길 완보는 공통이며, 완보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었다. 와인냉장고, 공기청정기, 무선청소기, 상품권 등 푸짐한 상품을 준비해 진행하였다.

속초시행복교육지구 특화사업인 「속초사잇길 162일 걷기 챌린지」 운영 결과, 총 516명이 가입해 162일 동안 속초사잇길 1길~10길까지 최소 1회씩 완보한 사람이 110명이었다. 올해 걷기왕은 엄남섭씨(닉네임 피닉스)로 1길(영랑호길) 75회, 2길(장사·영랑해변길) 73회, 3길(수복길) 130회, 4길(아바이마을길) 128회, 5길(속초해변길) 27회, 6길(청대산길) 16회, 7길(청초호길) 122회, 8길(청초천길) 21회, 9길(설악누리길) 18회, 10길(대포만세운동길) 24회 등 총 634회 완보했다.

400번대가 6명, 300번대가 9명, 200번대가 15명, 100번대가 28명, 10번 이상 51명이었다.

속초사잇길 1길~10길까지 최소 1회씩 완보



속초사잇길 162일 걷기 모습(설악누리길)

한 사람들은 11월 13일(토) 개최된 시상식에서 성적순에 따라 푸짐한 상품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시상식에 앞서 영랑호길(영랑호수윗길 포함)을 걸었다. 범바위 앞에서 출발해 영랑호수윗길을 거쳐 카누경기장, 영랑교, 안축시비, 영랑호수윗길, 습지공원, 범바위로 돌아오는 코스였는데 걸으면서 포토존 인증지점 세 군데(영랑호수윗길 원형광장, 별장콘도 키보관소 앞 정자, 장천천 영랑호 하구)에서 속초시 관광홍보용 토퍼를 활용해 인증사진을 찍어 오면 본부석에서 확인 후 선착순 382명에게 상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실시했다.

◎ 속초사잇길 안내자 아카데미 6기, 7기, 심화교육 운영



속초사잇길 162일 걷기 모습(설악누리길)

속초사잇길 안내자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6기 교육이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열렸고 제7기 아카데미 교육도 8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 속초시니어클럽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속초사잇길 안내자 심화교육도 지난해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속초시니어클럽 회의실에서 안내자 30여명이 참여해 열렸다. 아카데미와 심화교육

을 통해 지금껏 배출한 속초사잇길 안내자 수는 140여명에 달한다. 길에 얹힌 역사와 문화, 관광객 응대방법 등 체계적인 안내교육과 현장 실습을 거쳤다.

2022년도부터 속초사잇길 10개 길에서 본격적으로 안내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 스토리텔링 북 '속초사잇길' 출간



스토리텔링-북 '속초사잇길' 출간

2019년 속초사잇길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속초사잇길 걸어보고서」에 이은 두 번째 홍보 책자인 스토리텔링-북 '속초사잇길'을 출간

했다. 속초시 행복교육지구 특화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이 책은 총 230여쪽 분량으로 속초사잇길 10개 길을 <속초의 근대를 연 길>, <삶이 숨 쉬는 길>, <천혜 자연의 길>로 나눠 각 길의 코스는 물론, 역사와 문화를 사진과 함께 편집했다. 속초사잇길 홍보용으로 패스포트와 리플릿 등과 함께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속초사잇길은 속초 고유의 문화와 잘 어우러진 도심 관광 도보 코스이다.

「설악 생태학교」 활성화

2021년도 설악 생태학교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 모집 첫날에 40명 정원이 모두 찰 정도로 팬데믹에서 체험활동에 갈증을 느꼈던 학부모와 학생들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6월 20일(일) 오전 10시 청초천에서 시민과 학생 28명이 참가해 열린 제1회 차는 생태학교 이상집 총장과 문화관광해설사 이광호 강사의 재밌는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설악생태학교 참여자들에게 청초천에 사는 동식물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반두를 이용



2021년도
설악 생태학교
제1회차 활동 모습
(청초천)

하여 직접 물고기를 잡아봄으로서 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를 체감했고 지역의 생태에 대한 강사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자연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자연을 보전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도록 커리큘럼을 짰고 잡은 물고기를 방생해 생명존중의 마음도 고양했다.



2021년도 설악 생태학교 제2회차 활동 모습
(설악산자생식물원)

7월 18일(일) 오전 10시 설악산자생식물원에서 시민과 학생 35명이 참가해 열린 제2회 차는 자생식물원 주변에 사는 꽃과 나무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반두를 이용하여 직접 물고기를 잡아봄으로서 1급수에 사는 물고기를 알아보고 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를 체감하게 했다.

8월 22일(일) 오전 10시 설악산에서 시민과 학생 36명이 참가해 열린 제3회 차는 설악산 주변에 사는 동식물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조릿대를 이용하여 직접 배를 만들어보았다. 자연과 친해져야 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의 이유를 스스로 느끼게 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이 있지만 잘 찾지 않는 설악산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고 자연 보전의 동기를 부여했다.



2021년도 설악 생태학교 제3회차 활동 모습(설악산)



2021년도 설악 생태학교 제4회차 활동 모습(장천천 하구)



2021년도 설악 생태학교 제5회차 활동 모습
(영랑호 습지생태공원)

9월 5일(일) 오전 10시 장천천에서 시민과 학생 27명이 참가해 열린 제4회 차는 장천천과 영랑호 주변에 사는 동식물에 대한 지식을 공부했고, 조릿대를 이용해 직접 배를 만들었으며

망초를 이용한 투호놀이도 하면서 자연과 전통 놀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잡은 물고기는 방생하여 학생들에게 생명존중과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9월 12일(일) 오전 10시 청초천에서 시민과 학생 26명이 참가해 열린 제5회 차는 청초천에 사는 동식물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반두를 이용하여 직접 물고기를 잡아 봄으로서 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를 체감했으며 지난 6월과 비교해 9월은 어떤 물고기가 잡히는지 확인하여 계절별 생태의 변화를 공부했다. 조릿대를 이용하여 직접 배를 만들어 띠워 보내면서 자연이 아름답게 보전되길 기원했다. 잡은 물고기를 방생하여 생명존중의 마음도 드높였다.

10월 24일(일) 오전 10시 영랑호 습지생태공원에서 시민과 학생 40명이 참가해 열린 마지막 제6회 차는 영랑호의 유래와 영랑호 습지공원에 사는 동·식물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었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영랑호 습지공원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도 공부해 환경오염이 주는 폐해와 개선 노력에 대해 알아봤다. 갈대와 억새 액자를 자연물로 만들어보면서 자연이 아름답게 보전되길 기원하였다.

「찾아가는 기후학교」 실시

2021년도 '찾아가는 기후학교'가 11월 29일(월), 30일(화) 양일간 속초중학교 3학년1반과 3반, 4반, 7반에서 각각 열렸다. 강원지방 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주무관과 해설사가 기후변화 과학의 이해(강의 1시간)와 교구를 이용한 실습(1시간)으로 일기도 그리기(1반, 3반) 및 수상가 옥 만들기(4반, 7반)를 진행했다.



2021년도 '찾아가는 기후학교' 모습
(속초중학교 3학년 4개 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지구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기본원칙을 현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가정책에 적용하도록 제정된 것이다.

기후위기로 촉발된 경제, 환경, 사회의 지속 불가능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정치권과 정부가 수용하고 합의해 결실을 맺었다. 그간 한국 사회는 경제 성장, 민주주의 발전, 복지정책의 확산 등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협을 비



2021년도 지속가능발전 강원지역 행동회의 모습

롯해 사회 전 분야의 지속 불가능성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의 지속 불가능성은 경제, 환경,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고 그 전환은 현 세대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고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번 기본법에서 국정의 비전과 철학으로 지속가능발전을 규정하고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과 환류 체계를 설정해 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 지원근거를 정리한 점이 평가받을 만하다.

또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과 이행과정에 거버넌스를 통한 국민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숙의 공론을 법안에 포함한 것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진전이며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와 연구센터 등의 규정을 보완한 점도 눈에 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향후 과제

팬데믹으로 비대면이 꽤 장기화할 것이란 예측이다. 사회, 경제, 환경 등 3개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려면 우선, 자연 친화적인 삶이 요구된다. 노리 숲길, 설악산자생식물원, 청초천 등 자연과 함께 하는 설악 생태학교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내년이다. 질 높은 자연 체험 관광을 예비하고 생태환경이 주는 혜택을 활용하는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

산과 바다, 호수, 실개천 등에서 현장성이 살



옛 봉수대 아래길에서 내려다 본 속초해변 모습

아 숨 쉬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자연 생태적 놀이문화 개발 또한 급선무이다.

걷기 생활화를 통해 건강과 탄소중립, 관광 진흥이란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책도 여전히 고민거리다.

건강보험공단이 좀 선제적으로 나서 노령층에 대한 예방의학 차원의 걷기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걷기와 연계된 건강증진과 대화를 통한 소외감 불식, 걷기가 일과 이어져 실제적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022년부터 실시할 속초사잇길 안내자 운용 프로그램은 안내자 선발 공고와 심사를 통해 최종 안내자 6명을 뽑아 현장에서 처음 실시될 예정이다.

노리 숲길, 설악산자생식물원, 실개천 등지에 화려하고 인공적인 시설이 아니라 숲, 바람, 곤충, 물소리 등을 더 잘 듣고 알 수 있는 작은 장치들 말이다.

속초문화



동해북부선 열차여, 이제 한없이 달려라!

- 동해북부선의 흔적과 속초 철도교통의 미래 -

최영택

(속초고등학교 지리교사, 속초도시변천사 집필위원)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에 살고 있는 필자는 가끔 주말이면 자전거 페달을 밟는다. 삼포를 출발하여 오흐 - 공현진 - 가진 - 향목 - 간성 - 봉호 - 북천 철교 - 반암 - 거진 - 화진포 - 초도항 - 대진을 왕복하는 구간이다. 달리는 동안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해북부선의 아픈 흔적을 보면 상념에 잠긴다.

양양군 서면 공수전이 고향인 1939년생이신 어머님은 5살 때인 1943년, 재가하는 외할머니를 따라 양양역에서 기차를 타고 죽왕면 공현진역에 내리셨다. 이곳을 지나며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낯선 역에서 막막한 앞날을 걱정하시던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린다.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가 고향인 1931년생 아

버님은 18살 때인 1948년, 새어머니의 냉대를 견디지 못하고 간성역에서 기차를 타고 원산으로 떠나 문천 시멘트 공장의 노동자가 되셨다. 이곳을 지나며 생모에 대한 그리움과 막막한 현실에 눈물을 삼키며 북쪽으로 향하셨던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진다.

속초, 고성, 양양 어르신들의 삶의 애환이 오롯이 담겨 있는 동해북부선은 부산진역~안변역 간 동해선 건설이 진행되면서, 일제는 1928년 한반도 동쪽의 남과 북을 잇는 동해북부선 공사를 시작하여 1929년에 함경남도 안변역~흡곡역간, 1931년에 흡곡역~통천역간, 1932년에 통천역~외금강역~고성역간, 1935년에 고성역~간성역간, 1937년에 간성역~속초역~양양

* <사진설명> 동해북부선(東海北部線)에 있었던 역사(驛舍)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사용되었던 속초역사는 속초시 동명동 450-195번지에 위치 160평에 건평 40평 규모의 프랑스식 고깔형 양식으로 모르타르 시멘트 기와를 입힌 고색창연한 건물로 1941년 건립되었다.

역간을 개통하였다. (나무위키(동해북부선) 참조.)

1945년 남북분단으로 인해, 전 구간이 북위 38도선 이북인 동해북부선은 북한의 철도가 되었다가, 휴전 이후 남한은 1967년 전구간이 폐지되었으며, 북한에서는 안변역~금강산청년역(舊 외금강역) 구간을 복원하여 금강산청년선으로 노선 명칭을 변경했다.

남한 지역에 있던 역은 초구역~현내역~거진역~간성역~공현진역~문암역~천진역~속초역~대포역~낙산사역~양양역이며, 총 11개 역사가 건립되었으나 현재 남은 건물은 한 곳도 없고 종착역인 양양역은 양양읍 송암리에 위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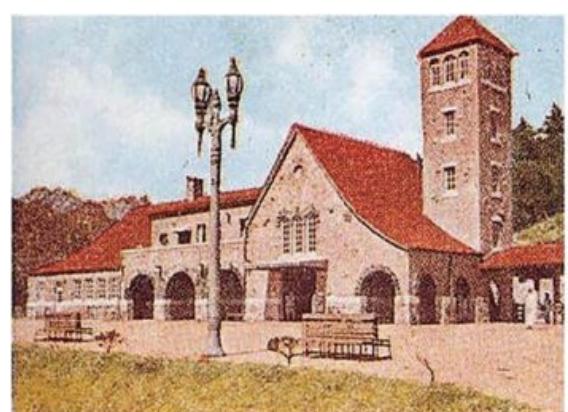


일제강점기 동해선 현재 노선 현황.

「매일건설신문」2020년 12월 7일, 손길신 전 철도박물관장의 철도역사 이야기에서 발췌, 영덕 삼척 구간은 2023년, 제진 강릉 구간은 2027년 개통 예정이다.



동해북부선 정차역.
최신판 여행안내도(1949) 강원도 부분 확대.



동해북부선 (1939)

외금강역 독특하고 아름다운 독일식 건축물로 1932년 9월 16일 개통식을 가졌고, 현재는 금강산청년역으로 불린다.



동해북부선 간성역터(현 간성읍 신안리)



동해북부선 철둑길 흔적 - 법대로



동해북부선 속초역
속초시립박물관에 전시된 속초역 복원 사진



동해북부선 고성군 북천 철교 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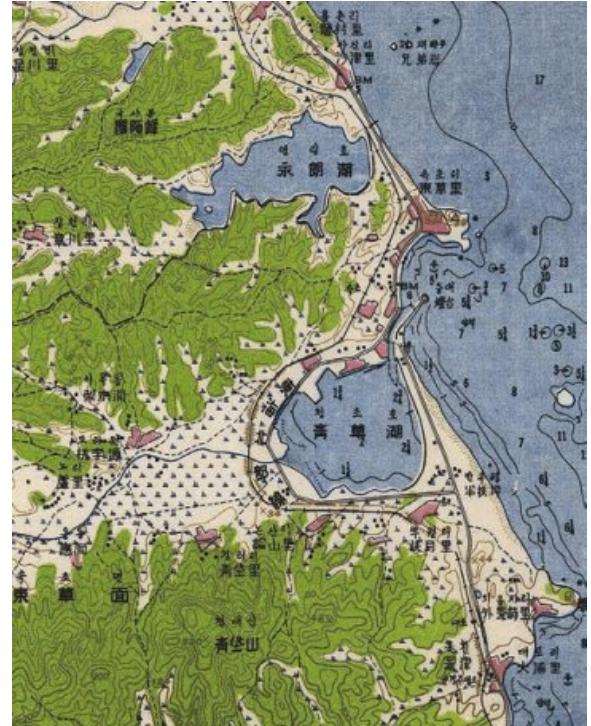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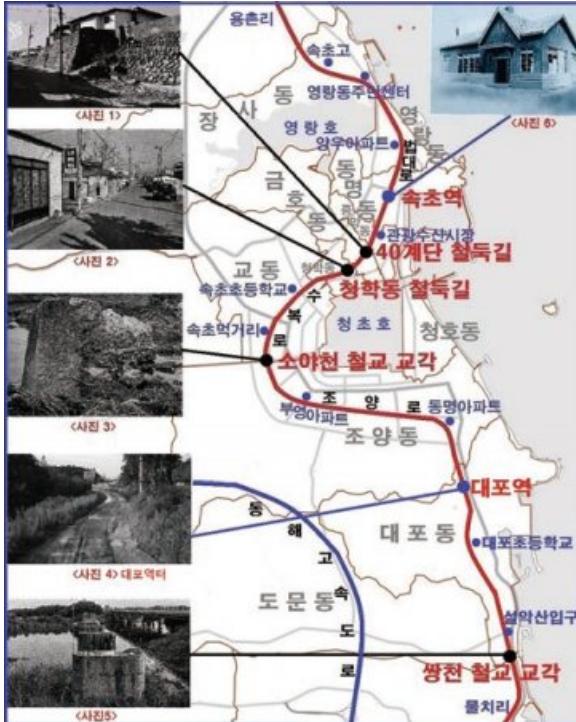
동해북부선 양양역터
(현 양양읍 송암리384-2)



동해북부선 양양 남대천 철교 교각
<전태극 사진 작가 제공>



동해북부선 철둑길 흔적 - 수복로



동해북부선 속초부근 노선 복원도

<사진1,2,3,4,5 전태극 사진작가, 사진6 노광복 전 속초문화원장>
<지도설명> 속초 구간은 구체적으로 쌍천 철교~설악산 입구~대포역~동명아파트 앞~조양로~부영아파트 사이~청초천 소야교~수로로~만천사거리~교동사거리~속초초등학교앞~중앙시장 주차장 앞~속초역(현 장안로 26-2, 26-4)~터미널 사거리~검찰청 속초지청 앞~양우아파트 앞~영랑초등학교 앞~영랑교~영랑동 주민센터 좌측~시진용길~속초고등학교 앞~예디울 미을을 거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반면으로 누선이 전개되었다

1967년 동해북부선이 폐선 되었지만 철도길은 주요한 교통로로 0
이들의 놀이터였으며, 교통의 만천동 마을, 속칭 청학동 니나노촌
금호동의 40계단 마을, 동명동의 우렁길 마을 등이 철로변에 위치한
대표적 마을이었으며 수많은 애ه과 촌인이 이곳에 서려 있다.

1 전태극(69세) 사진작가의 증언, 대포역은 대포 농공단지 부근 4거리 북쪽에 위치하였으며, 1950년대 말 부모님과 함께 이곳에서 밭을 경작하였으며, 대포역 공중화장실 흔적으로 5개의 변기시설이 있었다고 함.

속초지형도와 동해북부선 노선(1937 1942 추정)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지도설명> 속초지형도의 정식 도엽명(圖葉名)은 웅진(蠶津)¹이며 1956년(단기 4289년) 서울 삼릉공업지²가 발행하였으며, 지도 오른쪽 하단의 순경주재소(일제강점기 파출소)와, 왼쪽 하단의 속초면(1942년 속초읍 승격) 지명으로 볼 때 1937년 동해북부선 개통 직후인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 초에 초판이 발행된 것을 한국전쟁 후 일본어를 삭제하고 편집하여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현면 물치리에서 대포로 이어진 동해북부선 철도는 구배(기울기)가 급한 대포 고개를 우회하기 위해 국도에서 떨어져 북상하는데 일반 철도는 열차 차량 바퀴와 레일간의 마찰력이 작기 때문에 3% 이상의 기울기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포역은 농촌단지앞 4거리에서 150m 북쪽에 위치한 SK LPG 에너지 맞은편에 위치하였으며, 부월리 앞에서 왼쪽으로 크게 선회하여 소야벌을 지나 청초호를 반원 형태로 통과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직전에 위치한 속초역에 다다른다. 이어 영랑호 하구를 지나 철로는 다시 국도에서 떨어져 구배가 급한 용촌 고개를 우회하여 현 속초고등학교 앞을 지나 용촌리 내루를 거쳐 천지역으로 불상하다.

1 대포의 옛 지명

2 서울 충무로에 위치하였으며, 군용으로 쓰던 지형도를 군(軍)의 검열(檢閱)을 받아 펴집하고 발행함.

동해북부선 철도는 양양에서 하루 4번(05:00, 10:00, 16:00, 21:00)씩 출발하여 원산에 도착하는데 7시간이 걸렸으며 해방 이후 속초역사는 38선 이북으로 북한의 통제 하에 있었으며, 6·25전쟁 중에 대규모 폭격으로 철로가 파괴되어 역사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었고, 국군이 북진할 때는 화장장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6·25전쟁 중 속초지역이 미군의 군수물자 병참기지가 되면서 동해북부선은 한때 군수물자 수송 등으로 이용되었으나, 또한 일부 구간이 폭격으로 인해 유실되었고, 1963년 현내-간성 구간과 1965년 간성-속초 구간이 폐지되고, 1967년 1월 1일 철도청 고시에 의해 속초-양양



束草驛舍(1953~1954년)
속초시립박물관 기증유물. 주한미군 레버렛 기증사진 No. 03-09.



束草驛舍(고려산업사)
속초시·속초문화원, 2001, 「사진으로 엮은 속초의 발자취」, 72쪽.

구간 및 전 구간이 폐지되었다.

속초역사는 1951년 8월부터 1954년 11월까지 속초지역에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미군항만사령부(ATC)의 취사장과 댄스홀로 사용되었다. 그 후 1956년 4월에 명신고등공민학교가 입주하여 불우학생의 배움터가 되었다가 1957년부터는 벽돌공장인 고려산업사가 입주하여 경영하였다.

동해북부선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속초역사는 1978년 4월 10일에 철거되었다.

동해북부선은 강릉에서 제진역을 잇는 종단 철도로 1967년 노선이 폐지된 후 현재까지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으며, 53년 만에 복원될 전망이다.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2020년 4월 23일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협력사업으로 인정되었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이 사업은 남강릉역~강릉역~주문진역~양양역~속초역~간성역~화진포 신호장~제진역까지 총 110.9km를 잇는 구간으로 단선 전철로 건설되며 2021년 후반기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강릉~제진 사이는 동해선 철도의 유일한 단절 구간이다. 부산에서 두만강까지 총 1,279.3km의 철로(건설 예정 포함) 중 금강산에서 군사분계선까지 18.2km의 구간은 이미 2004년에 복원이 완료됐으며 군사분계선~제진 6.6km 구간은 2005년에 복원됐다. 현재 포항~삼척 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으로 강릉~제진 구간만 연결되면 부산에서 두만강까지 철로를 통한 이동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돼 유럽까지 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 (『설악신문』 2020년 4월 27일)



동해북부선 정차역
‘신호장’은 철도의 정거장의 일종으로 교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설치한 장소



동해선 구간 현황(2021년 12월 현재)

필자는 2018년 속초여고 재직 당시 20명의 학생들과 함께 속초시 자체 경비 지원으로 「러시아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다녀온 적이 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오후 6시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하여 다음날 오전 6시 하바로프스크에 도착하였는데, 끝없이 펼쳐

동해북부선과 북한 철도 연계도



제진역에 도착한 북한 열차(2007. 5.17) <강원도민일보 제공>

남·북을 연결하는 동해북부선 열차 시험운행으로 북고성~금강산청년역(외금강역)을 출발한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25.5km를 달려 57년 만에 남고성 제진역에 도착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남·북한철도(경의선/동해북부선)와 연결되는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 <국토교통부 제공>

진 타이가 숲을 지나며 이 철도가 북한의 나선을 거쳐 청진을 지나 원산을 경유하여 속초에 도착하는 그날이 오기를 학생들과 함께 간절히 염원하였다.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는 1916년에 전 구간이 개통되었고, 현재 거의 모든 철도 구간이 전철화되었으며,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토크의 9,288 km를 운행하는 열차는 세계에서 가장 긴 직통열차로도 유명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해운 대란이 일어나

면서 올해 상반기 이들 대륙횡단 노선을 이용한 육상철도 운송량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역뉴스』 2021년 9월 16일)

해상운송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탄소배출이 적은 철도운송은 친환경 운송수단으로서 주목받을 전망이며, 운송시간도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해상운송 52일이 소요되지만 철도운송은 9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며, 중국횡단철도(TCR)의 경우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운임이 저렴하고 물류비를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남·북 화해 협력을 통한 철도 연결에 한반도와 속초의 미래가 함께 달려 있다.

일제는 1939년 경춘선 철도 개통에 즈음해 인천에서 춘천까지 연결된 철도 노선을 양구·인제를 거쳐 양양군 도천면 속초리를 종점으로 동해북부선인 나진선과 연결하는 중앙횡단 철도사업을 추진하였다. 1941년 4월 25일 철도국에서는 24

명의 대규모 설계팀을 파견해 춘천군 동면 후평리를 기점으로 속초까지 90여km의 측량을 2개월간에 걸쳐 실시했다. (『강원일보』 2019년 5월 22일)

이후 사업은 태평양전쟁, 광복, 6·25전쟁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역사와 함께 묻혀 갔다. 하지만 2009년 초 경춘선 전철복선화사업 완공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속초와 양구에서는 철도를 속초까지 연결해 동서고속철도를 실현하자는 운동이 종교계와 의회를 중심으로 시작돼 들불처럼 번져갔고, 전 도민의 숙원으로 부각



동서고속화철도 기본노선도 <강원도민일보 제공>



동서고속화 철도 신규대안노선 <환경부 제공>

동서고속화 철도 속초역사 부근도 <<https://blog.naver.com/aa3356aa> 제공>

됐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처음 계획을 발표한 이후 역대 정권들이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각고의 노력과 진통 끝에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사업이 확정 발표되었다.

동서고속화 철도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어 2027년 준공 예정이며, 총연

장 92.8km로 춘천역~화천역~양구역~인제역~백담사역~속초역을 연결하며, 소요시간은 서울 용산역에서 속초역까지 1시간 15분이다.

2027년 강원도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튼튼한 동맥이 될 동서고속화 철도와 북방 외교·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동해북부선 철도가 함께 개통되어, 태백산맥, 휴전선, 동해로 인해 섬처럼 고립되어 있던 속초가 단순한 관광·수산도시를 넘어 활동권과 남·북화해 협력의 거점 물류도시로 성장하여 당당한 모습으로 우뚝 서기를 8만 3천 속초시민과 함께 강력히 희망한다.

속초문화



chodasi

흰구름 따라

푸른하늘에 흰구름 두둥실

가는 듯 마는 듯

한참을 보니까 간다

어디로 갈까?

흰구름따라 가볼까나

유유자적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인생은 어차피 나그네 인 것을

문득 애국가의 한귀절이 생각난다.

가을하늘 공활한데-----

하늘엔 때이른 기러기가 날아간다

오늘따라 하늘은 차겁기만하다.



탁명원

- 2013 「계간환경문학」으로 등단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사회복지사. 국학석사
- 민주문학, 한맥문학 회원
- 속초문화원 이사

속초농협 하나로마트



고객님의 하루에 **선물**이 되고 **쉼터**가 되는
속초농협 하나로마트 가 되겠습니다.

하나로마트 주요 입점 업종

1층

하나로마트, 식자재신선매장

임대코너 (남성의류 · 여성의류 · 화원 · 잡화 · 화장품 · 핸드폰 · 속옷)

2층

엑스포지점, 다문화교류소통공간, 마트사무실, 대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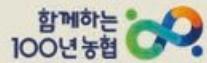
임대코너 (일반음식점 · 카페 · 인테리어용품 · 분식 · 치킨 · 세탁소
한의원 · 필라테스 여성의류)

3층

일반음식점 (구내식당) 하나로 어울림정원



농협 60주년
60th Anniversary



함께하는
100년 농협



도시와 농촌을 위해
유통을 새롭게

농업의 경쟁력을 위해
디지털로 놀랍게



우리 고향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바르게

**함께 달려온 60년
함께 열어갈 100년**

농업인과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 모두와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지부 장마상일

속초문화원 회원 모집

속초문화원은 지역사회의 발전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 기관으로서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원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뜻을 같이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원혜택

1. 향토사안내서, 속초문화지 등 속초문화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책자들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 관내 문화예술체험 행사를 빨 빠르게 알려드리며 우선적으로 초대합니다.
3.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DVD, 도서, 음반, 악기)의 대여가 가능합니다.
4. 문화유적답사 및 문화학교 수강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원 자격으로 문화원 운영방향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원회비 : 연 5만원

문의 : TEL 632-1231 / FAX 632-1241 / www.sokcho-culture.com





속초문화원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영방동)
Tel. 033 632 1231, 639 2439 Fax. 033 632 1241
www.sokcho-culture.com

비매품/무료



15

9 77271358001
ISSN 2713-5802